統一 對話에 관한

北韓의 主要對南提議 및 論調

〈1980－1989〉

1989. 12.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이 冊子는 1980년에서 1989년까지 10년간 統一對話와 관련한 北韓의 主要 對南提議 및 各 分野別 會談에 대한 北韓의 論調를 收錄한 것으로서 對北 協商戰略 開發을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發刊한 것입니다.

※ 冊子의 맞춤법은 대체로 原資料를 準用하였음.

목 차

Ⅰ. 북한의 주요 대남 제의

1. 남북정치협상회의 및 남북당국자회담 용의표명(1980. 1.11) ········ 9

2. 민족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1980.1.21)··········· 10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1980.10.10) ························ 12

4. 민족통일 촉진대회 소집제의(1981.8.6)································ 29

5.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소집제의(1982.2.10) ······················ 34

6.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제의(1983.1.18) ····················· 41

7. 3자회담 개최제의(1984.1.10) ·· 45

8. LA올림픽에 단일팀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제의(1984.3.30) ··· 52

9. 남북국회회담 개최제의(1985.4.9) ······································· 54

10. 남북한 상호 군사연습 중지제의(1986.1.11) ··························· 59

11. 3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제의(1986.6.17) ······························ 62

12.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제의(1986.6.23) ································ 67

13.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제의(1987.1.11) ······················· 70

14. 다국적 군축협상 개최제의(1987.7.23) ·································· 72

15.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1987.11.11) ··································· 76

16.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제의(1988.1.14)················· 84

17.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제의(1988.7.20) ································· 88

18.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의(1988.11.16)····························· 99

19.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1988.12.21)···· 100

20.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1989.1.30) ····································· 102

21. 남북대화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5개항제의(1989.3.27)······ 104

22 . 남북노동자대표 회담제의 (1989.3.31) ······························ 108

23 . 남북역사학자회담 제의 (1989.5.24) ······························ 111

24 . 제 2차 고방단 • 예술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의 (1989.5.31) ······························ 114

25. 남북종교인 회담제의 (1989.6.2) ······························ 115

26. 민족통일협상회의 개최제의 (1989.9.28) ······························ 118

Ⅱ. 분야별 남북회담 관련 북한논조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1980.2 ~ 1980.8)

1 . 접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1980.4.3) ··············· 133

2 . 남측은 접촉앞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1980.5.24) ··············· 135

3 . 암초부터 제거해야 한다 (1980.6.26) ······························ 139

남북체육회담 (1984.4 ~ 1984.5)

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변인성명 (1984.4.10) ········ 145

2 . 남조선측은 성실한 립장을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1984.5.16)············ 146

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 (1984.6.2) ······················ 148

수재물자 인도 • 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1984.9)

1 . 조선적십자회 실무접촉대표단장 성명 (1984.9.19) ···························· 153

2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담화 (1984.10.3) ·················· 155

3 . 우리는 인도주의적 , 동포애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1984.10.6)··· 158

남북경제회담 (1984.11 ~ 1985.11)

1 .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방안 (1984.11.19)······· 167

2.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를 포괄적으로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한 정당한 방안 (1985.5.20) ········ 169
3. 회담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 (1985.6.23) ········ 172
4. 북남경제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1985.11.16)·· 175
5. 립장과 자세문제이다.(1985.11.21) ········ 177

남북적십자회담 (1985.5 ~ 1985.12)

1.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 (1985.5.28) ········ 183
2. 인도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안 (1985.5.30)··· 186
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 311 호 (1985.6.4) ········ 189
4. 자유래왕을 실현하여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 (1985.8.27) ········ 190
5.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 (1985.8.29) ········ 194
6. 우리의 제안에 왜 등을 돌려대는가 (1985.12.5) ········ 197

제 1 차 고방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1985.7 ~ 1985.8)

1. 문제를 풀자는 립장인가 (1985.7.21) ········ 203
2. 북적대변인, 3차 실무접촉 종료후 기자회견 (1985.8.22) ········ 205
3. 남측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1985.8.23) ········ 207

남북국회회담 예비회담 (1985.7 ~ 1985.9)

1. 어째서 긴장완화 문제를 외면하는가 (1985.7.25) ········ 213
2. 긴장완화는 가장 선차적인 과제 (1985.9.25) ········ 216
3. 긴장완화를 외면하는 것은 대결을 위해서이다 (1985.9.27) ········ 219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1985.10 ~ 1987.7)

1 . 올림픽 공동주최안은 실현되여야 한다 (1985.10.21) ························ 225

2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1986.3.15) ································ 228

3 .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국제체육경기장소로 적합치 않다 (1986.3.31) ······ 232

4 . 올림픽공동주최안은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위한 정당한 제안 (1986.6.12) ··· 235

5 . 조선올림픽위원회 김득준 부위원장 담화 (1986.6.21) ······················ 238

6 . 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불순한 행위 (1986.7.25)············ 240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1988.8 ~ 1989.12)

1 . 또다시 지연전술인가 (1988.8.20)·· 247

2 . 역시 하자는 립장이 아니다 (1988.8.21)·· 251

3 . 문제토의를 원점에로 후퇴시킨 불성실한 행동 (1988.8.23)················ 255

4 .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 아니다 (1988.8.27) ······························ 260

5 .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성명 (1988.8.29)··· 265

6 .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1988.10.14) ··· 269

7 . 양보도 대폭 양보다 (1988.11.16) ·· 274

8 .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장 전금철 담화 (1989.1.12) ··· 280

9 .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대변인 성명 (1989.2.8) ··· 283

10 . 북남국회합동회의 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 북측대표단 성명 (1989.3.17)··· 285

11 . 대화장을 반공대결장으로 만든 신사들 (1989.10.27) ························ 288

12. 누가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1989.12.1) ………………………… 29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1989. 2 ~ 1989.12**)

1. 남측은 대결정책을 버려야한다(1989.2.9)…………………………………… 299
2. 대화하자는 것인가, 대결하자는 것인가(1989.3.3) ………………………… 304
3.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1989.3.15) ……………………………………………………………………… 307
4.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1989.10.13)…………………………………… 310
5. 대결관념에 절은 고약한 버릇을 버려야 한다(1989.11.16)……………… 314
6. 회담지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1989.12.22) ……………………………… 318

남북체육회담(**1989.3 ~ 1989.12**)

1. 북과 남은 유일팀으로 나가야 한다(1989.3.11)…………………………… 325
2. 성의와 무성의(1989.3.29)……………………………………………………… 328
3. 남측은 지연전술을 쓰고있다(1989.10.22) ………………………………… 332
4. 남측은 고의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리고 있다(1989.11.16) ……………… 336
5. 공공연한 지연전술(1989.11.26) …………………………………………… 339
6. 유일팀구성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1989.12.24) …………………… 342

제2차 고방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1989.9 ~ 1989.12)

1. 남측은 비뚤어진 대화자세를 바로가져야 한다(1989.9.28)……………… 349
2. 남측의 지연전술을 버려야 한다(1989.11.13)……………………………… 353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대변인 성명
(1989.12.7)………………………………………………………………………… 355

Ⅰ. 北韓의 主要 對南提議

1. 남북정치협상회의 및 남북당국자회담 용의 표명

(1980. 1.11)

대한민국 국무총리 신 현 확 귀하

우리는 최근의 국내외정세가 우리 북과 남의 당국자들에게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것을 통감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우리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과업은 없다는 우리의 의견에 귀하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지금 매우 착잡한 우리 나라의 주변정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외세를 배제하고 북과 남이 단합하여 지체없이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거듭 경종을 울리는 엄혹한 시점에 처해있습니다.

북과 남의 당국자들은 마땅히 민족적자각을 높이고 우리 조선사람끼리 합작하고 단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것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물론 북과 남사이에는 제도와 리념의 차이도 있고 오해와 불신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차이점과 과거를 론하지 말고 하루빨리 북과 남이 대화를 재개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장하고있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북과 남의 당국자회담도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나갈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는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없는 의견을 서로나누자는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접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것이며 장소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도 좋으며 제 3국도 무방할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한동포끼리 서로 마주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반드시 호상 리해를 증진시키고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훌륭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 애국적인 제의가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리 종 옥

2. 민족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

(1980. 1.21)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체육회 회장 박 종 규 귀하

제 22차올림픽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공동체육단을 무어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할것을 제의한 1979년 12월 20일부 우리의 편지에 대한 귀하의 회답편지를 받았습니다.

귀측은 편지에서 제 22차올림픽경기대회에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공동으로 출전하기 위한 회담이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리유로 민족유일팀을 구성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분야에서나마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잇고 민족의 영예를 떨치기 위하여 하루빨리 북과 남의 체육인들의 회담을 열고 민족유일팀을 구성할것을 바라는 남북체육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에 어긋나는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측이 주장하는 시간문제나 기술적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제 22차올림픽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하지 못할 타당한 리유로 될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같이 체육분야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민족의 슬기를 공동으로 과시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족유일팀을 구성하는데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며 기술실무적문제들도 호상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민족유일팀구성을 환영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 근본립장에 있는것이지 결코 시간이나 그 어떤 기술적조건이 문제로 될수 없습니다.

귀측은 또한 편지에서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한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남북간의 교환경기와 서울경기참가문제 그리고 7월이후의 체육회담 등을 뒤섞어놓으면서 문제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유일팀구성을 위한 우리의 회담제의를 반대하는 귀측의 립장을 합리화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리해할수 없습니다.

귀측은 이미 지난해 제 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때에도 통일팀구성을 위한 회담에서 기본 의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교환경기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결렬시킨 불미스러운 전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제 22차올림픽경기대회에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할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을 저버리지 말고 건전한 체육정신과 민족적립장으로 돌아와 민족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북과 남의 체육인들의 회담에 지체없이 응해나올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남북체육인들이 한데 모여앉으면 호상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서로 양보해가면서 좋게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제 22차올림픽경기대회에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북과 남의 체육인들의 회담을 오는 2월 1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것을 다시금 제의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거듭되는 제의에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

(1980.10.10, 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연설)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현실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 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 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었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 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북남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렬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 뿐 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날뛰였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 책동과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토양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서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쑈냐 하는 투쟁이였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어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쑈적 〈유신〉 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높은 매국노, 〈유신〉 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기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해 〈10월사건〉이후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악당들은 이른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시밑에 중무장한 괴뢰군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습니

다. 또한 군사파쑈악당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저명한 민주인사들과 행정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내란음모죄〉요 〈반공법위반죄〉요 하는 여러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 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에는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군사파쑈분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륙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벌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5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독재자들을 비호하여 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쑈화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자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 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 살륙만행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자리에 올려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보살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심과 파쑈교형리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인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폭악한 군사파쑈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은 곧 전체 남조선민족의 불신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쟁탈을 위한 열강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여 가고 있습니다. 력사는 열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일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리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렬강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렬강의 리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고 우리겨레가 망국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

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파쑈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수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 곳으로 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투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

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념원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겨누고 맞서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개 조선〉책동을 저지시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오늘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민족인 우

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분렬정책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정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인민과 미국인민들 사이의 관계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

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문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전영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

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록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 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인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 개발하고 리용하며 상호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 문화예술, 민족 교육을 통일적으로 발

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

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발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

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영세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들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

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연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입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립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

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블록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여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4.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제의

(1981. 8. 6, 조국전선중앙위 제 67차회의, 정당·사회단체련합성명)

지난해 10월에 있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을 천명하신 이후 나라의 안팎에서 조국통일기운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한결같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그 실

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조선의 애국적인 인민들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환영하면서 그에 고무되어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적인 교포단체들과 저명한 종교인들, 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또한 새로운 통일방안에 찬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서고 있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절대다수의 나라 정부들과 진보적 정당, 단체들, 인민들도 이 방안을 조선의 평화통일을 확고히 담보하고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발기라고 하면서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 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10대 시정방침은 오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하나의 목표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키는 휘황한 등대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일방안의 거대한 생활력 앞에서 당황망조한 남조선의 전○○군사파쑈도당은 날로 높아가는 평화통일 기운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 〈최고당국자들의 상호방문〉이라는 것을 황급히 들고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앞에서 〈통일〉의 간판을 들고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온갖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오늘 남조선에는 이른바 〈통일〉에 대하여 떠드는 바로 그 전○○역도에 의하여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수많은 애국자들과 민족인사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바로 이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남북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공소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존엄도 안중에 없는 전○○역도는 최근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유엔동시가입안〉을 들고 동남아시아를 행각하는 놀음까지 벌렸다.

그들이 떠드는 이른바 〈통일〉이 이러한 민족분렬책동을 감싸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원래 전○○역도가 남조선에서 고조되여가는 민주구국운동을 압살하고 인민들의 시체우에 새로운 파쑈독재자로 등장한 사실자체가 민주와 통일에 대한 반역이였다.

과연 이와 같은자들에게서 통일을 위한 그 무슨 긍정적인 발기가 나올 수 있으며 그들의 〈통일〉타령에 그 어떤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털끝만한 민족의 양심도 없는 살인악당이 그 추악한 몰골에 〈대화〉의 미소를 짓고 나서는 것을 신성한 민족의 통일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으로 간주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통일이 절박하여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도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은 전○○과 같은 민족반역자들과 마주앉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제하고 진정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있다.

민주와 평화통일의 거세찬 흐름을 총칼로 가로막고 반공대결과 파쑈적탄압을 업으로 삼는자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민족이 념원하는 나라의 통일은 물론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도 실현할 수 없으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긍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오늘 전○○역도에 대한 태도는 바로 통일에 대한 태도 문제이며 그것은

진짜로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분렬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라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역도를 상종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배제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방도로서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족통일 촉진대회는 나라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체로,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모체로 될 것이며 현단계에서 통일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할 수 있고 그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민족협상기구로 될 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들이 기탄없이 론의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또한 북과 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방면에 걸쳐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갈라져사는 혈육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인 문제들도 다같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남조선이 체육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제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도 전반적인 합작과 교류의 일환으로 이 대회에서 포괄적으로 론의되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가 소집되면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며 합의된 문제들은 전민족적인 지지밑에서 힘있게 실천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족통일 촉진대회는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열수 있을 것이다.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 위해서는 그 예비적 조치로서 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 사이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를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위하여 전○○일당을 내놓고는 남조선과 해외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그 누구에게나 아무때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군사파쑈도당이 〈정권〉을 잡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은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통하여서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전○○을 민족의 백정으로 지탄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이고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이며 바로 이렇게 하는데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도상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바로 보고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우리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나설것을 기대한다.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공업기술총동맹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조선기독교련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불교도련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조선아세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1981년 8월 6일

평　양

5.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소집 제의

(1982. 2.10, 중앙인민위, 정무원, 제정당·사회단체 련합회의)

〈남조선 당국과 제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1940년대에 시작한 민족분렬의 비극은 1980년대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하나의 강토를 갈라놓고 있는 남북의 장벽도 그대로 남아있고 분렬로 인한 민족의 고통도 가셔지지 않고 있으며 흩어져 사는 어느 한 가정의 불행조차 덜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의 선에 불과하였던 남북의 경계는 국경선보다 더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가로막히고 남북사이에 쌓여온 불신과 반목은 동족상쟁의 참화까지 빚어낸 엄중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는 반대로 영구분렬의 위험과 새로운 전쟁의 재난이 각일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이다.

다가오는 민족적 재난을 막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온겨레가 념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의 급선무이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의 장래를 깊이 우려하여 온 우리는 지난 기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가능한 방도들을 다 모색해 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으며 통일에 도움이 되고 겨레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일찌기 1948년3월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전조선최고입법기관을 선거하며 여기에서 헌법을 승인하고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시였으며 1955년8월 8.15해방 10주년 경축대회에서는 남북사이에 자유로운 인사래왕과 경제, 문화, 과학, 예술교류를 실현할 것을 제의하시고 1960년8월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는 전조선적인 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과 함께 조국통일의 조치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초에는 력사적인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으며 특히 1980년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그의 10대 시정방안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밖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조국통일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내놓으시고 민족의 앞길을 밝히셨다.

이 구국방안들을 구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정부와 각 정당사회단체들은 민족적 단결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많은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리가 내놓은 이 중대한 제안들에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도와 함께 북과 남사이에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여기에 서로 흩어져 사는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인 문제로부터 경제, 문화, 군사, 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을 완전히 개방하고 전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 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협상과 대화를 거듭 발기하였으며 오직 통일의 일념으로부터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그토록 우리를 반대하던 남조선 당국자들과도 마주앉는 아량을 보였다.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의 하나하나에는 어떻게 하나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의 문을 열며 다시는 남의 희생물로 되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의 숭고한 뜻과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37년동안 남조선 인민들과 애국인사들도 민족이 겪고 있는 분렬의 비운을 통탄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관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통일구국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남조선 인민들과 애국인사들은 일찌기 미군정의 총칼아래 민족분렬이 고정화된 일대 국난이 닥쳐 왔을때 단선단정음모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결연히 나섰으며 통일론의 조차 형벌의 대상으로 되는 엄혹한 파쑈 통치밑에서도 굴함없이 평화통일운동을 과감히 벌려왔다.

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여 해외에 망명한 민주인사들도 이국의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합류하여 왔다.

이 숭고한 애국의 길에서 이름있는 정치인들이 백범 김구선생, 몽양 여운형선생, 죽산 조봉암선생과 김종태동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민주인사들, 열혈청년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여 나선 많은 인사들이 령어의 몸이 되어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이 모든 피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민족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민족 운명이야 어떻게 되던 외세에 추종하여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여 온 소수 남조선 집권자들 때문

이다.

남조선의 집권자들은 력사적으로 통일의 기본장애인 외국군대를 나라안에 붙들어 두고 외세의 침략목적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켜 왔으며 그 대가로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부지하려는 목적을 추구해 왔다.

이로부터 그들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통일제의들을 다 거부하고 남북의 대립과 반목을 끊임없이 조장시켜 왔으며 남조선에서 통일을 주장하여 나선 사람들을 투옥학살하면서 인민들의 의로운 통일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하여 왔다.

원래 5.10단선의 산물인 리○○정권 자체가 민족의 분렬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으며 5.16쿠데타의 산물인 박○○정권도 바야흐로 새국면이 열려가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다.

12.12쿠데타의 사생아인 전○○정권 역시 남조선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민주와 통일의 거센 물결을 막고 2개조선으로의 영구분렬을 추구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최근 남조선 집권자들이 총선거니 시범사업이니 하면서 그 무슨 방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으나 민주주의와 통일을 요구하여 나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총•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은 그들에게서 진실한 통일방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지에 있어서 그들이 때늦게 들고 나온 총선거안이란 정치학 교재에서 옮겨 놓은 한갖 공리 공담이며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이란 남의 본을 따서 2개 국가를 만들자는 영구분렬 방안이다.

이것을 구체화한 20개 항목의 시범사업이란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남북의 합작과 교류를 위하여 력사적으로 제기하여 온 방안들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이 합작과 교류의 수많은 가능성을 외면하고 이처럼 제한된 몇가지만을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남북의 대문을 활짝 열고 통일을

촉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었다는 입내나 피우면서 분렬을 지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놓은 것이다.

력사적 사실은 외세의 비호밑에 권력을 쥐고 민족분렬을 추구하는 자들이야말로 통일문제 해결에서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가 분렬된 이래 남북 쌍방의 접근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아직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방대한 과제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 것은 북과 남사이에 협상문제를 바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협상은 어디까지나 분렬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협상으로 되여야 한다. 시간이나 끌면서 현상을 유지 고착시키려는 분렬지향적인 협상은 분렬을 꾀하는 자들에게 이익으로 될 뿐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러한 의의도 없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치 않는 자들과의 협상은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지난 기간에 남북대화가 보여준 심각한 력사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사실상 협상의 마당에 나설 정치도덕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더우기 10.26사태 이후 남조선에서 급속히 앙양되는 민주와 통일운동의 잔인한 교살자로 등장하여 수많은 동족을 무참히 학살한 살인자에게는 협상의 마당에 나와 앉을 자리가 없다.

혹여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손에 동족의 피가 묻어 있는 살인자와 마주 앉는다는 것은 조국통일이라는 신성한 민족적 위업에 대한 모독으로 되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배반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결과 통일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1.26 일부 담화에서 그에게도 죄과를 씻고 애국의 길에 나설 기회를 주는 관용을 보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도 없다.

그는 지금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는 반공 대결소동을 더욱 강화하고 미제 침략군과 함께 "팀 스피리트 82"와 같은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까지 벌리면서 정세를 긴장시키는데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행동과 그가 입으로 외우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남조선에서 누구도 현 집권자의 반민족적 분렬정책의 수치스러운 동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현 집권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조건에서는 그들 역시 신성한 통일협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남조선의 현 정치 정세하에서 우리가 최소한 택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협상의 길은 민족적 양심을 지닌 북과 남, 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련합회의를 마련하는데 있다.

비록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에 의하여 정치가 추락하고 정계의 표면에는 시세에 편승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이 날뛰고 있으나 우리는 남조선에서 엄연히 살아있는 민족의 량심을 보고 있으며 민족지조를 잃지 않은 수많은 우국의 인사들이 있음을 잘알고 있다.

해외에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여 민주와 통일의 한길에서 헌신하고 있는 투사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 귀중한 민족의 량심과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분렬을 위한 가짜 대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진짜 협상을 마련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당면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 해외 정치인 련합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한다.

련합회의에는 과거 여하에 관계없이 통일구국의 뜻을 둔 개별적 정치인들이 참가하되 그 규모는 해외 인사들을 포함하여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 도합 100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100인 련합회의는 북과 남사이에 쌍무회담이 아니라 모든 인사들이 거

주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남북을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론의하는 다무적 원탁회담으로 될 것이다. 이 련합회의에서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포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들이 기탄없이 다 토의되여야 할 것이다.

련합회의에서는 또한 통일방안과 결부하여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도 협의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련합회의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 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로서 본 성명 부록에 밝힌 인사들에게 100인 련합회의에 참가할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들의 100인 련합회의는 현 조건에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성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통일협상으로 될 것이며 하나의 민족적 리념밑에 우리의 힘과 슬기를 집결시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적 대단결의 훌륭한 마당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 련합회의가 의심할 바 없이 현 단계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조선과 해외의 정치인들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 련합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족적 요청이다.

남조선 집권자들은 정치인들의 회의참가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김대중을 비롯한 수감중에 있는 정치인들을 석방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회복시킬뿐 아니라 그들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죄과를 씻는데 도움으로 된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남조선 정치인들이 놓여 있는 오늘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리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앞에 지닌 사명감에 투철한 남조선의 정치인들이 민족의 진

로를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의 희생정신으로 싸워 나아간다면 민족이 바라마지 않는 통일의 대회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0인 정치인들이 온 겨레의 간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통일구국의 길에 흔연히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1982년 2월 10일

평 양

6.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제의

(1983. 1.18, 북한제정당·사회단체련합성명)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어 왔으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참으로 곡절많은 길을 걸어왔다.

끝없이 지속되는 민족분렬의 비운속에서 통일을 갈망하던 선대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한채 우리 곁을 떠나고 어려운 통일구국의 길에서 수많은 지사들과 애국청년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처럼 피타는 민족의 절규와 크나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서광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있다.

이 참을수 없는 민족적비극의 근원은 결코 우리민족내부에 있는것이 아니다. 몇몇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조선사람으로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통일에 대한 우리인민의 열망은 불보다도 뜨겁다.

조성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이나 대결과 반목도 조선사람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시키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근 40년동안에 걸치는 수난에 찬 민족분렬의 력사와 조국통일을 위한 시련에 찬 애국투쟁의 력사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미제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상륙시킨 첫날부터 남조선에서 군정통치를 실시하고 일제를 대신하여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하였으며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전체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미주구 리○○을 내세워 남조선만의 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시켰다. 1961년에는 특등주구 박○○파쑈도당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4.19 인민봉기이후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른 통일기운을 총칼로 압살하였으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에는 그와 꼭같은 수법으로 전○○살인마를 내세워 광주인민봉기를 잔인무도하게 탄압하고 앙양된 민주화운동과 통일기운을 압살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그 무슨 대화에 대해서 떠들고있으나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느 한때도 그들의 관심사로 되여본 일이 없다. 그들의 안중에는 오직 우리 나라를 영구분렬시켜 남조선을 영원히 자기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있으려는 것밖에 없다.

바로 이 변함없는 침략적목적을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두개 조선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전○○괴뢰도당을 부추켜 북을 반대하는 반공대결에로 내몰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으로 하여금 군국화를 더욱 다그치게 하고 남조선괴뢰와의 결탁을 강화하게 하면서 이른바 미 일 한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하나의 조선에서 더 멀리 떼내여 제놈의 손아귀에 더 철저히 얽매놓으려는 또하나의 엄중한 분렬책동이며 우리 나라와 극동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새로운 엄중한 도전이다.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은 미제는 오늘 더 많은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끌

어들여 남조선땅을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켰으며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사상최대규모의 팀스피리트-83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우리 나라 정세를 전쟁접경의 위험한 국면에로 이끌어가려하고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이 장차 우리 겨레에게 또 어떤 재난을 가져다주겠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은 미국의 한개 주나 그의 전선방위지역이 될수 없다. 남조선은 조선의 뗄수 없는 절반부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바다건너 미일침략자들과 공동운명체가 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북의 혈육들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한겨레이다.

그러한 북과 남을 더 멀리 갈라놓고 남조선을 미일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을 전쟁정책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책동은 즉시 저지되여야 한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계속되는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도 가셔질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조국통일과 결코 량립될수 없다.

진실로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피로 점철된 통일운동사에서 이것을 가장 심각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 교훈에 기초하여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 대처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끝장내는것이야말로 현시기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나서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인정한다.

나라의 통일이 절박하고 평화가 긴요하면 할수록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미제침략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바로 여기에 악순환을 거듭해온 가슴아픈 좌절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온 겨레가 념원하는 자주적평화통일에로 곧바로 전진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으며 우리 나라가 외세의 희생물이 됨이 없이 자주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는 뚜렷한 전망이 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할 이 초미의 과제를 외면하고 그 무슨 통일과 대화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기만이며 공리공담이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 통일 하자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며 두개 조선으로 살자는것이다.

전○○도당이 내들고있는 이른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라는것이 바로 그런것이며 남북대화니 정상회담이니 하는것이 또한 그런것이다.

통일을 바란다면 먼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하며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미군철거부터 주장해야 한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태도는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며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척도이다.

우리는 전○○과 같은 매국역적이 아니고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누구와도 공통된 통일지향과 애국적립장에 기초하여 기꺼이 만나 대화를 나눌것이다.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미군철거를 주장하여나선다면 우리는 그들과도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 만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념원에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거족적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면서 이 절박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한다.

이 련석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수와 비률로 북과 남에 있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해외교포단체대표들 그리고 해내외의 개별적 인사들을 참가시킬수 있을것이다.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성과적소집을 위하여 우선 북과 남의 정당대표들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가지되 여기에는 북에서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남에서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의 실무급대표들이 각각 1명씩 참가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해외교포단체들이 통일구국의 숭고한 념원이 깃든 우리의 애국적제의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조선기독교도련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불교도련맹,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1983년 1월 18일

평　양

7. 3자회담 개최 제의

(1984.1.10 ; 서울당국 및 미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련합회의 편지)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

우리는 1월 10일 현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편지를 서울당국에 보낸

다.

조국이 분렬된 때로부터 거의 40년이 되여가며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도 이미 30년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민족의 념원과 배치되게 긴장상태가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가슴아프게도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지어 남쪽땅은 핵전초기지로까지 전변되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지난날과 같은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되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이 엄중한 사태발전을 누구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하며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온 민족의 힘을 모아 난국타개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현정세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대포를 걸어 놓고 총칼을 맞대고 있는 조건에서는 도저히 대화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여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할 것을 새로이 제

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사이의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미국과 서울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는 이미 쌍방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고 민족앞에 그 리행을 확약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준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여야 하며 여기에서 북과 남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이 각각 자치제를 실시하는 중립적인 련방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울당국에 통일국가창설과 관련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환적인 발기로 된다.

3자회담은 판문점이나 그밖의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서장으로 될 3자회담이 하루빨리 소집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서울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 양

〈미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이 편지를 미합중국정부와 국회 상, 하 양원에 보낸다.

오늘 조선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벌써 서른해가 지났으나 평화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첨예한 국면에로 더욱 더 다가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여 있는 가운데 남쪽에서는 무력증강이 계속되고 대규모 전쟁연습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현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도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터질 수 있을만큼 극도로 긴장되여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다음 일관하게 미국과의 적대적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도를 여러모로 탐구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미 197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직접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동족상잔을 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쌍방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호상불신과 반목만을 조성하고 전쟁위험을 더욱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 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것이며 전세계

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핵전쟁의 길로 계속 달음박질해 나가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돌아서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과 같이 첨예한 대결상태를 지속시켜서는 당신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와 미정부가 다같이 격페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조선반도에 엄중하게 조성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한다.

출로는 오직 대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사이의 대화에 있다고 우리는 깊이 믿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당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자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판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상태가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자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

결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본다.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것이며 불가침 선언에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쌍방의 군대를 감축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7.4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론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민족대회를 열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북과 남의 현존 사회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과 북과 남사이의 통일대화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때에 조선반도에서 항구하고 공정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담보들이 믿음직하게 마련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고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은 완전히 자주적인 엄정중립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된 외국의 자본을 다치지 않고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할 것이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과 리해관계를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영예롭게 손을 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이미 한번 전쟁을 하였다. 우리 두 나라가 한번 싸웠다고 하여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다시 전쟁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의는 변화된 현정세에서 가장 시기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력사적 배경으로 보나 현실적 절박성을 보나 조선문제를 언제까지나 미해결상태로 남겨 둘 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미합중국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발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련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 양

8. LA올림픽에 단일팀구성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1984. 3.30 , 조선올림픽위원회위원장 김유순 대남서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정주영위원장 앞

오는 7월 로스안젤스에서 열리게 되는 제23차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이 대회에 림하는 북과 남의 체육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 유일팀으로 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결과 분렬을 반대하고 단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간절한 민족적념원의 발현이며 우리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국제무대에서 승부를 겨루게 된 첫날부터 쌍방이 힘을 합쳐 단일한 우리 민족의 무궁한 재능과 슬기를 세계에 떨칠것을 열망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것을 귀측에 거듭 제기한바 있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노력은 응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며 국제경기들에서는 혈육끼리 서로 맞서게 되는 가슴아픈 일이 의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기대에 어긋나게 북과 남사이의 대결감정만을 조장하게 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는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한 겨레의 요구가 높아지고있는 오늘 우리는 응당 지난날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이 절절한 민족적여망에 화답해나설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선의 체육인들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갈라져사는 겨레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힘을 합치고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할것을 바라는 일념에서 이번 제23차올림픽경

기대회와 그후 련속 있게 될 아세아 및 세계 선수권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출전하자는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의 부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쌍방 체육대표단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시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것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84년 3월 30일

9.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의

(1985. 4. 19,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회의)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올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8.15광복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40년전 역사의 그날에 우리의 삼천리강산은 북과 남이 따로없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으로 끓어번졌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이 목메여 웨치던 해방의 환호성은 순간으로 사라지고 그날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력사는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해방후 40년은 분렬의 40년이였고 대결의 40년이였으며 재난의 40년이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념원도 아니고 의지도 아닌 이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동포형제들이 통일을 절규하고 통일에 한

생을 바치며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런데도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높아가고있는것은 분렬의 장벽이며 이 분렬의 고통우에 더해가고 있는것은 민족내부의 대결과 전쟁위험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해 초에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조치로서 3자회담을 가질것을 남조선과 미국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3자회담은 실현되지 못하고 정세는 도리여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에 처음으로 구호물자를 주고받은 뜻깊은 사변을 계기로 모처럼 재개되였던 적십자회담과 새 출발을 보였던 경제회담마저 중단사태에 놓여있으며 한때 조성되였던 완화의 기운마저 다시 흐려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대결, 완화와 긴장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이 현실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결과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다 리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력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하고 결국에는 민족의 자멸을 초래하게 될뿐입니다.

우리는 민족끼리 대결하여 긴장을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여 완화와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직 완화와 평화만이 북과 남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할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이 길을 열어나가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완화와 평화에로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우리는 나라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

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사이의 회담을 가질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의 이름으로 귀 국회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의는 3자회담이 마련되기전이라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민족끼리 마주앉아 가능한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립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당국사이의 부총리회담도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으로써는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현실조건에서 쌍방이 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국회회담을 가지는데 있습니다.

특히 북과 남의 각 정당들이 망라되여있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사이의 회담은 온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협의해결하는데서 북과 남의 광범한 의사를 모을수 있는 가장 적중한 대화방식으로 됩니다.

우리는 쌍방 국회회담에서 무엇보다도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회담을 통하여 우선 이런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쌍방당국이 이를 구체화하여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회담에서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남조선측의 어떠한 제안도 함께 토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들이 실천적으로 해결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해소되고 신뢰와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될것이며 북남관계 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국회회담의 개최는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사이의 다각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

놓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며 그의 성과적인 진전을 추동하게 될것입니다.

쌍방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서로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겨레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가게 된다면 북남사이에는 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될것입니다.

쌍방 국회회담은 앞으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북남사이의 합작과 교류에도 밝은 전망을 펼쳐놓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40년동안 쌓여온 불신과 대결의 력사와 결별하고 민족내부의 화목과 평화를 가져올 북남 국회회담이 충분히 열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쌍방은 이미 올해 신년사와 국정연설에서 다같이 북남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립장을 밝혔으며 당국사이의 최고위급회담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마련할수 있는 공동의 기초가 있다는것을 확인하여주고있습니다.

국회회담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을수 있겠으나 우리는 쌍방 국회련석회의를 하든지 또는 국회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표회담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련석회의는 서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귀 국회의원들이 련석하고 귀국회 본회의에 역시 우리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이 련석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국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단구성을 각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정당 출신 의원들을 망라하여 적당한 수로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우리는 국회회담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쌍방의원들이 임명하는 실무대

표들로써 예비접촉을 5월초에 판문점에서 가지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할 절박한 현실앞에서 말로만 화해와 평화를 외울것이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화해와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평화도 통일도 다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같은 혈육인 우리에게는 리념도 제도도 소중하지만 먼저 민족이 귀중하며 우리는 민족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적공동성을 최우위에 놓고 서로 합심하면 능히 같은 민족으로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습니다.

북과 남의 량심있는 정치인들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의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목과 불신과 대결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화해와 신뢰와 평화를 위한 애국의 길을 흔연히 나서야 합니다.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롭고 통일된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함께 수행하여야 할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어떻게 하나 힘을 합쳐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전쟁을 막아야 하며 평화적경제건설을 다그쳐 다같이 잘살아야 하며 분단의 계선을 넘어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민족적화목과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되여야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그날과 잇닿아있는 우리의 애국적인 발기에 적극 호응하여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대행진에 발맞추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7.4의 그날에 밝게 비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공동의 리정표로 세워져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정표를 따라 기어이 온 민족이 함께 누릴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마련함으로써 광복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를 민족력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해로 장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대결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통일독립된 조국의 래일을 기약하여 주는 우리의 새로운 평화제의를 새로 개원되는 귀 국회가 신중히 토의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985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

평 양

10. 남북한 상호군사연습 중지 제의

(1986.1.11. 외교부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였다.

그것은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인민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범위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는 올해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추진시키는데서 보다 큰걸음을 내디디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 3자회담을 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있는 회담들을 잘 추진시키고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지금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획기적인 새로운 제의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올해에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대화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옴으로써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미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며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하면서 마주앉아 대화를 한다는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호상 불신을 심화시키며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5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를 오랜 기간 중단시키고 정세를 격화시켰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언제 가도 완화될수 없을것이며 북과 남의 대화는 또다시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빚어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또다시 북남대화가 중단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대화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긴장상태의 격화를 막기 위한 전환적인 대책을 시급히 취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있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1986년 2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전령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 결정을 내외에 엄숙히 알리면서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발기에 호응하여 1986년 2월 1일부터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것을 제의한다.

군사연습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조선반도에서 하든 그 주변에서 하든 다 대화상대방에 위협으로 된다.

우리는 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우리의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측이 그 어떤 협상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데 대한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평화애호적인 제안이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조선에서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되고 조선반도에는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이 중지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것이며 호상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서도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대화를 진전시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립장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번 공명정대하고 평화애호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올해는 국제평화의 해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이 평화의 해에 지구상의 모든곳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과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것을 원하고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첨예하게 조성되고있는곳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여야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좋은 분위기속에서 북남대화를 잘 진척시켜나갈데 대한 우리의 전환적인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적극 지지협력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86년 1월 11일

평 양

11. 3자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제의

(1986. 6. 17,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및 남조선주둔련합국군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우리 군사당국자들로 하여금 민족과 세계 앞에서 책임적인 완화조치를 시급히 취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아는바와 같이 40여년동안 분렬의 비운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절실한 과업은 없습니다.

겨레의 이 간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었으며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적십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이 교환되여 겨레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는 다시 대화이전의 상태에로 되돌아가고 긴장상태는 일층 격화되여 북남대화들이 일시에 중단되였을 뿐만아니라 정세는 사실상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다달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온 민족을 핵참화에로 몰아넣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에도 남에도 다같이 리로울것이 없다는 점을 나는 귀하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가 잇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온 겨레와 인류는 우리들, 책임있는 군사당국자들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평화발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책을 취하려는 진지한 념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남조선주둔 련합국군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요인으로 되고있는 군사연

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무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밖의 상호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곳을 정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회담개최날자는 7월중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원들로 오는 6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고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면 조선에서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며 북남대화에서도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오 진 우

1986년 6월 9일

〈련합국군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보장하며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귀하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나라의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대화가 진행되고 부분적인 래왕이 실현되여 세상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화와 평화에로 나아가던 이러한 움직임은 순간으로 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나날이 첨예화되여가고있습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전쟁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 병력의 이동과 전진배치가 계속되며 대소규모의 군사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서 쌍방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는 조선전쟁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에 다가서고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조선반도에는 우리들 적대쌍방사이의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전례없이 격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북남대화들이 중단상태에 빠져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이 박두하고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과 함께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하며 평화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시기에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을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줌이 없이 돌이킬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가져다주리라는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우리 조선인민에게 리롭지 못할뿐만아니라 미국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남조선주둔 련합국군총사령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해 내놓은 발기가 매우 시기적절하고도 합리적인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완화에 회피할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있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가질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요인으로 되고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밖의 상호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곳을 정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회담개최날자는 7월중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원들로 오는 6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있는 군사실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면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며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북남대화들을 잘할수 있는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조선과 아세아,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우리의 새로운 평화발기에 귀하가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줄것을 희망합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제1대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오 진 우

1986년 6월 9일

12. 비핵평화지대창설협상 제의

(1986. 6.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평화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은 세계의 영원한 평화가 깃들고 언제나 평화롭게 살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세계인민들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가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반전 비핵 평화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념원과는 다르게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축적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

핵군비증강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평화위업앞에 지닌 자기의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정당한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측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평화적제안들을 수많이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제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늘 조선반도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남조선에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무기를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반입, 배치되였으며 그의 총폭발력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은 극동지역 전체에 전개된 미국핵무기의 절반이상이 집중된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핵무기배치밀도에서 나토보다 4배나 더 높은 세계 제1의 핵기지로 되였다.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있으며 북조선에서 핵작전계획을 짜놓고 핵시험전쟁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려놓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조선경외로 번져가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여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주변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조선반도를 핵무기, 핵기지가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 국제평화의 해에 즈음하여 고조되고 있는 세계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자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둘째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때나 응할것이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에 이 지역에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견지에서 보나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보나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이다.

조선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면 이 지역에서 인류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우게 될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며 인류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항구한 평화가 담보될 것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공화국정부의 평화적제의에 응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조선문제로 하여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전세계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선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 나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반제평화애호단체들과 투쟁조직들, 각국의 평화애호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해주며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1986년 6월 23일

평 양

13.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 제의

(1987.1.11, 정무원총리·인민무력부장 대남편지)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로 신 영 귀하

국방부장관 이 기 백 귀하

귀측에서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새롭게 천명하시였읍니다.

이 획기적인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구국대책으로 됩니다.

현시기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온 겨레의 사활적이익과 관련한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북과 남의 정치, 군사 실권자들의 피

할 수 없는 공동의 의무라고 우리는 간주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위임에 의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것을 귀측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개최시일은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로 하며 회담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과 귀측의 평화의 집으로 하되 첫번째 회담은 통일각에서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대표단은 쌍방이 제기하는 정치, 군사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해결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군참모총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정도의 당국자들과 군실권자들로 구성하며 여기에 5명정도의 수원들을 동행시키는것이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 관련한 예비접촉은 문제토의의 성격으로 보나 그 해결의 절박성으로 보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귀측에서 요구한다면 쌍방에서 각각 2명정도의 실무자들이 만나 대표단의 판문점래왕절차를 협의하고 회담장소를 확인하는 정도의 극히 실무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것입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초우에서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당면한 조치로서는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높일데 대한 문제와 군사분계선비무장

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스위스, 스웨리예의 군사인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정치, 군사 정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열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면 그것은 북과 남의 정치적대결과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완화와 평화의 새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면 좋은 분위기속에서 여러 분야의 북남대화들도 재개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이 근 모
인민무력부장 오 진 우
1987년 1월 10일

14. 다국적 군축협상 개최제의

(1987. 7.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현 시대가 인류앞에 제기하고 있는 가장 엄숙한 과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불안정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

환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이후 여러차례 매우 위험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제 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있은것은 오직 평화를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삼고있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불능한 립장과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여있다.

이러한 대치상태는 날을 따라 더욱 격화되고있다.

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놓여있으며 이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항시적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없이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력증강과 군비전쟁을 중지하며 북과 남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데 대한 문제, 3자회담을 진행하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긴장완화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긴장완화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기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획기적인 발기를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전후 미국과 남조선측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었던 1956년에 8만명의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으며 1986년에는 15만명의 병력을 평화적건설에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합리적인 긴장완화방안들과 실천적조치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과 발기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겉으로는 완화에 대하여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강조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급격히 보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개한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탄두를 발사운반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1988년 올림픽경기의 〈안전개최〉를 구실로 미국태평양함대무력을 남조선연안해역에 배치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데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조선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시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과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감축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등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여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에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국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뽈스카,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예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

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화와 군축에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것으로서 그의 실현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있는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1987년 7월 23일

평 양

15.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

(1987.11.11, 조국전선중앙위・조평통 련합회의 대남편지)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각계의 인사들!

남조선 동포형제자매들!

우리는 한 조국강토에 사는 한 혈육으로서 남조선의 현 정세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민주와 파쑈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오늘의 남조선사태발전은 앞으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운명 뿐아니라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전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엄숙한 시각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련합회의는 〈남조선의 현 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하여〉 토의하고 당신들과 함께 온 겨레의 숙명인 평화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일념에서 이 편지를 보낸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60년대초이래 줄기차게 이어온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은 오늘 전례없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각계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광범한 인사들이 한결같이 민주쟁취와 군사파쑈독재의 종식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으며 민주화의 물결은 온 사회에 차넘치고 있다. 이 거세찬 흐름속에서 어제까지 인민들에게 류혈을 강요하던자들도 오늘은 민주화의 옹호자로 자처해 나서고 있다.

민주화의 추세는 이제 그 누구도 되돌려 세울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민주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물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도 매우 좋은 일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화가 되면 수십년 동안 통일론의 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경색된 분위기를 마스고 조국통일기운을 힘있게 추동할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팽팽한 대결과 긴장상태를 풀고 서로 단합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는 지척에 있지만 모든 권력은 아직도 군사파쑈세력의 손아귀에 들어 있으며 그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의연히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고 있다.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지금도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군사파쑈세력은 앞에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공명선거의 간판을 내들고 있으나 뒤에서는 민주정권의 출현을 무력으로 막겠다고 위협하면서 칼을 벼리고

있다. 지난날의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그들은 지금 또다시 퇴색한 반공의 기발 밑에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민주세력에 대한 새로운 폭압공세를 벌리고 있다. 이것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떻게하나 민주세력을 분렬 와해 시키고 자기들의 집권을 연장해보려는 군사파쑈세력의 최후발악이다.

력사의 흐름을 역전시키려는 이러한 책동이 그대로 허용되고 다시 그들의 집권이 날조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한걸음이면 다가설 민주화의 목표는 멀리 뒤전으로 사라질 것이며 총검과 군화는 또다시 당신들의 수족을 얽어매고 의로운 모든것을 짓밟을 것이다.

광주의 참화와 리한렬의 죽음으로 이어진 원한에 찬 비극의 력사는 필연코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어찌 그 결과가 남조선에만 국한되겠는가. 군사파쑈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남조선내부가 편안할 수 없을 뿐아니라 온 조선땅이 편안할 수 없다. 군사파쑈세력은 인민들의 항거를 압살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들고 온갖 반공모략에 매여달리면서 남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킬 것이며 궁지에 빠지면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에서 출로를 찾는 모험까지도 서슴지 않고 감행할 수 있다.

운명의 마지막시각을 앞두고 분별없이 날뛰는 군사파쑈세력의 위험한 전쟁도발책동은 피로써 마련된 민주화의 희망도 밝아오는 평화통일의 서광도 모든것을 순간에 말살하고말 것이다.

민주화의 길은 평화와 통일의 길이며 파쑈의 길은 긴장격화와 전쟁의 길로 잇닿아 있다.

한걸음의 잘못으로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민주의 제단에 바친 수천수만의 희생우에 마련된 오늘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심사숙고하고 자신의 향방을 바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오늘의 남조선사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북과 남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현정세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발전하는 남조선정세의 요구에 맞게 북과 남이 서로 신뢰와 단결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항의 민족단합방안을 천명한다.

첫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진정한 민주정권이 출현하여야 한다.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튼튼한 담보이며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온 겨레가 그처럼 열망하여마지 않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오늘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간절한 민족적 과제가 없다.

하루밤사이에 민주화의 옹호자로 탈바꿈한 미국이나 군사파쑈세력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총칼로 민주를 교살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며 자진하여 민주주의를 선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세력의 폭력앞에 굴하지도 말고 그들이 내드는 가짜민주화, 가짜문민정치에 기만당하지도 말아야 하며 민주화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벌려 미제의 조종을 받는 군사파쑈통치를 종식시키고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기어코 쟁취하여야 한다.

둘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대결을 반대하고 서로 단결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유일한 길은 북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의 민주주의 력량이 단결하는데 있다.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서로 단결하고 통일하는데 장애로 되여서는 안된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동족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야 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집착하여 대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도모하는데서 가장 긴절한 문제는 반공을 배격하는 것이다.

반공은 파쑈와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자들의 배타주의 사상이며 남조선인민들을 언제까지나 미일의 공산주의 방파제로 희생시키려는 매국자의 반역사상이다.

자주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에 주체를 잃고 외세의 롱락물이 되여 반공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 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오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이 척결하여야할 대상은 용공세력이 아니라 군사파쑈세력과 그를 부추기고 있는 외세이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함께 들고 나가야 할 기치는 반공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대단결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용공세력척결을 떠들면서 민주세력을 공격하고 반공소동으로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군사파쑈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셋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민주정권을 세우는 기초우에서 서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대화가 없이는 북과 남이 서로 접근할 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지난날 북과 남의 대화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남조선인민들의 배격을 받는 군사파쑈세력은 항상 대화를 분렬의 고정화와 집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통일론의를 자기들의 독점물로 간주하여 왔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과연 그들과 더불어 통일과 관련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남조선에 인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권이 서면 북과 남은 지난날의 결실없는 대화의 력사를 청산하고 서로 아무런 부담없이 호상 존중, 호상 리익의 기초 우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화와 접촉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대화와 접촉은 당국자들사이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각이한 분야에서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사이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접촉을 바라는 남조선의 모든 인사들에게 아무때나 왕래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북과 남으로 흩어져사는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사이의 격페 상태를 마스고 신뢰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대화와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게 될것이다.

넷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다가오는 제 24 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성된 복잡한 사태는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제적인 친선과 평화의 제전인 신성한 올림픽경기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리용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더우기 나라의 통일위업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안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는데 악용되여서는 안된다. 올림픽경기를 공동주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바로 이와 같은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에 반공을 하지 않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정권이 서게 되면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민족공동의 통일위업에 부합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민주정권하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하게되면 쌍방이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립장에서 공동주최문제를 신축성있게 협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분렬주의적 목적에 리용되지 않는다면 북남통일팀으로 출전하거나 다른 명의로도 서울에 갈 용의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축전을 북과 남이 공동의 경사로 맞이하려는 마음에서는 남조선인민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서 1989년에 평양에서 열리게 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조선의 청년학생들도 함께 참가하게 되기를 열렬히 희망한다.

제24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으로 성과적으로 마련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근 반세기를 분렬의 비운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 일대 시위로 될 것이며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으로 될 것이다.

다섯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오늘의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며 그것은 남조선내부가 복잡할 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사태가 북과 남의 어느 편에 필요하며 유익한 것이겠는가 전쟁으로 녹아날 것은 조선인민뿐이며 덕을 볼 것은 외세뿐이다. 미군이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들이 사용되면 우리조선민족은 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핵전쟁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은 외세의 리해관계에 따라 민족운명이 좌우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는 외세의 전쟁정책의 희생물이 되지말고 그들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스스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앞으로도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어떠한 동란이 벌어져도 결코 그것을 리용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평화애호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남조선에 민주정권이 서면 그와 지체없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긴급대책으로서 우선 시험적으로 최소한 제 24 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와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는 1988 년부터 1989 년까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잠정조치에는 전연지대에서의 쌍방 무력의 철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의 중지, 지상과 해상의 접촉구역에서 상대방을 향한 총포사격의 무조건 금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의 중지, 중립국감시군에 의한 감시조직,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의 직통전화개설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잠정조치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호상 신뢰를 도모하는 첫 시험으로 될 것이며 장차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훌륭한 디딤돌로 될 것이다.

남조선 정계와 사회 각계의 인사들!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남조선에 진정한 민주정권을 세우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당신들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동시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나라의 평화와 민주적 평화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당신들의 의로운 민족적 자주권 수호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성패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군사파쑈독재를 종식시켜야 하며 우리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의 새 력사의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절감하고 있는 당신들이 긴장과 대결로부터 완화와 단결에로의 력사적인 전환을 위하여 파쑈가 없는 민주화된 땅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강산에서 온 겨레가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련합회의

1987 년 11월 11일 평 양

16.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제의

(1988. 1. 14, 「남조선의 당국과 제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남조선의 당국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

오늘 우리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념원을 안고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을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련합회의를 가지였다.

련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련석회의소집방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정계, 사회계 대표들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앉아 올해에 기어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본 련합회의의 결의를 반영하여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북과 남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의연히 한걸음도 내디디

지 못한채 또 한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민족분렬의 력사에 벌써 마흔세번째의 년륜이 새겨지는 비극적인 현실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해가 더해갈수록 격화되여가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는 누구에게나 민족의 장래와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지금 온 겨레의 관심은 극도로 첨예화된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민족내부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돌려지고 있다.

정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동족끼리 총까지 겨누며 맞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첨예한 대결이 지속될 때 어떤 결과를 빚어내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새해에 들어서 조선반도정세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사태는 남조선내부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의하여 빚어질수도 있고 현 북남사이의 대결이 그 불씨로 될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이 북과 남의 어느쪽에 리익으로 되며 우리 민족의 누구에게 리롭겠는가

승자도 패자도 없을 이 대결과 전쟁에서 참화를 당할 것은 우리 민족뿐이며 덕을 보고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뿐이다.

민족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더 무엇을 기다리며 주저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모든 인사들이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이 땅우에 무겁게 드리운 전쟁의 검은구름을 가시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구국성업에 나서야 할 때이라고 인정한다.

비록 북과 남은 사상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도 동족끼리 서로 원

쑤가 되여 싸우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그것으로 하여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당장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국회회담 방안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일련의 평화제안들을 내놓은바 있다.

우리의 제안들이 실현되면 나라의 평화는 담보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평화발기들이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형편에서 올해에 최소한 북남사이에 당면하게 걸려있는 몇가지 시급한 문제만이라도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시급한 문제로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올림픽공동주최와 비방중상중지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북과 남이 이 최소한의 문제마저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평화와 잇닿아 있는 민족화해의 길로 나가야 하며 평화통일과 이어져 있는 민족단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일은 제한된 몇사람이나 특정인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사가 모아지고 힘이 합쳐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는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정권,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을 반대하며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여할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북에도 리롭고 남에도 리로우며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좁게 치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각계각층이 광

범히 참가할 수 있는 넓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 쌍방의 당국자를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당신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

북남련석회의에서는 올해안으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다국적 군축회의를 마련하는 문제, 제정된 올림픽참가신청기일에 관계없이 북남공동주최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올해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해로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들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련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날자는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위하여 오는 2월 19일 판문점에서 예비회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예비회의에는 북과 남에서 각각 당국과 정당 단체의 위임을 받은 5～7명의 대표를 참가시키되 당국대표는 부장급, 정당, 단체 대표는 부책임자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의 피줄과 유구한 력사와 문화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존재하고 래일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누구나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입장에 서고 진실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롭게 살려는 뜻을 가진다면 민족앞에 나선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건설적인 제의에 호응하지 못할 리유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가 열리게 되면 올해안으로 반드시 민족적 화해와 단합

의 새 력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남조선의 당국과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이 우리의 제의를 신중히 대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정당 사회단체련합회의

1988년 1월 13일

평 양

17.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1988. 7. 2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대남서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북과 남은 머지않아 조선정전이 실현된지 서른다섯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전이 되던 그때 우리 겨레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이처럼 오랜 세월 지속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결과 긴장이 끝없이 격화되여온 지난 35년동안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보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사이 온 강토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태가 조성된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으며 온 민족을 멸살시킬 핵전쟁위험이 밀려온 때도 한두차례가 아니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결과 분쟁이 가셔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도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한번 대결이 멎은적이 없고 긴장이 해소된적이 없으며 화합과 단합이 실현된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때이상의 재부를 서로 대결에 소모하며 너무도 오랜 세

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대결을 가시기 위한 발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적었던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완화와 평화우에 오늘 더해가고 있는것은 대결과 긴장이며 쌓이는것은 전쟁, 핵전쟁위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동서해에 떠도는 항공모함전단이 무엇에 소용되고 곳곳에 산적되여있는 핵무기가 무엇에 필요하며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연습이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결과 전쟁은 남에도 북에도 리로울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올림픽경기에도 좋을것이 없고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해가 될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을 막아야 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전쟁의 위험에서 오늘 벗어나지 않으면 핵참화가 휩쓴 래일에는 후회도 할수 없고 평화도 볼수 없으며 통일이란 말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류도 좋고 교역도 필요하지만 보다 긴급한것은 긴장의 완화이고 대결의 해소이며 전쟁의 방지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벼리며 대포질을 하는 오늘의 대결상태를 그대로 두고 말로나 비방중상을 그만둔다고 하여 불신이 가셔질것도 없고 신뢰가 회복될것도 없습니다.

더우기 속에 칼을 품고 원쑤처럼 지내고있는 북남사이의 근본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서로 교류와 교역도 할수없고 화합과 단합도 이룰수 없으며 협력관계도 가질수 없습니다.

온 겨레는 한시바삐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것을 바라는데 완화와 화해의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교류나 교역으로 한정

없이 세월이나 끌자고 해서야 언제 겨레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통일의 기쁨을 가져다주겠습니까.

칼을 버리고 대포질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교류나 교역을 하여도 북과 남은 여전히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남처럼 살게 될뿐 언제 가도 화목한 민족공동체로 될수 없습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통감하고 한자리에 마주앉아 완화와 평화를 위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놓은 북남련석회의제안에는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절절한 념원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북남련석회의가 완화와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협상마당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이 회합이 소집되기전이라도 북남사이에 불가침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담으로서 이미 우리측에서 제의한바 있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토의할것을 예견한 북남국회회담이 가장 적절한 회담으로 된다고 봅니다.

북남국회회담에 대해 말한다면 북과 남은 1985년 6월에 국회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두차례의 예비접촉을 가지였으나 중도에 예비접촉자체가 결렬되여 본회담까지 들어가지 못한바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무엇보다도 이 회담을 열것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국회회담의 개최야말로 현시기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북과 남의 정치인

들이 민족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대사입니다.

더우기 귀측에서 올해에 국회가 새로 선거되고 그 구성이 달라졌으며 우리도 그사이에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구성된 사실은 쌍방이 국회회담을 가질수 있는 새로운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고있습니다.

북남국회회담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할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새 국회들이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예비접촉을 거침이 없이 직접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귀 국회의원들의 련석회의를 가지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련석회의는 긴장완화문제를 토의하는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귀측 국회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고 역시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귀 국회에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국회련석회의를 가지는데는 어려울것도 없고 복잡할것도 없습니다.

국회련석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토의하며 그리고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유익한것이라면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침문제의 토의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의 기초로 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이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국회련석회의에서 토의하려는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이 회의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도 참가하면 더 좋을것이라고 봅니다.

국회련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되 그 운영방식은 쌍방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회의를 평양에서 할 때는 우리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를 맡고 서울에서 할 때는 귀 국회의장이 사회를 맡는 식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회의에서의 토론은 상정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며 의결방법은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가 더 많더라도 공명정대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측 대의원수를 귀측 의원수에 대등하게 하고 투표와 거수의 방법을 배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좋을것입니다.

쌍방 국회의원들이 호상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국회의원의 일반적 특전을 부여받도록 하는 문제도 고려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제1차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오는 8월안으로 평양에서 가질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북남국회련석회의가 소집되여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완화와 평화를 위해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국회련석회의의 소집은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사이의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며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오고가면서 련석회의를 하게되면 정치인들의 교류도 저절로 실현되고 각계인사들의 래왕도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며 북과 남의 협력과 교역의 길도 트이게 될것입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수백수천명씩 한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지며 복잡한 국제문제들을 풀고있는데 하물며 하나의 피줄을 잇고 같은 말을 하는 동포들끼리 아무리 많이 모인들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주앉아야 합니다. 마주앉으면 긴장도 해소할수 있고 신뢰와 화해도 도모할수 있으며 평화통일의 넓은 문도 열수 있습니다.

남조선국회의원들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완화와 평화와 통일을 기약하여주는 북남국회련석회의 마당에 흔연히 나와야 할것

입니다.

우리는 귀 국회가 애국충정에 넘치고 통일구국의 의지가 담겨져있는 우리의 북남국회련석회의제의를 신중히 대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 설 회 의

1988년 7월 20일

평 양

〈북남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

북남국회련석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북과 남사이에 있을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3.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무장간섭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협조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5. 북과 남은 서로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그에 병행하여 조선반도의 지역안에 주둔해있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6. 북과 남은 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고 완충지대안에서 무장충돌

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담보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중립국감시군을 두도록 한다.

7. 북남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 협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북남국회련석회의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쌍방당국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는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발표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북남국회련석회의

1988년 월 일

18.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988. 11. 16, 정무원총리 이근모 대남서한)

대한민국 국무총리 리현재귀하

지난 11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하여 확인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평화보장대책을 신중히 토의하였습니다.

련합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의 일치한 찬동밑에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예견하는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확정하고 이것을 귀측과 미국정부에 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위임에 의하여 귀하에게 련합회의에서 확정된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사본과 함께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정세는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있으며 이러한 념원을 반영하여 오래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여러 지역의 분쟁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여가고있습니다.

세계에 류례없는 가장 처절한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근 40년동안이나 평화도 전쟁도 아닌 극히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들은 오늘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평화를 갈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한것은 평화에 대한 온 겨레의 념원과 완화를 지향하는 현정세발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입니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예견되여있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자면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쌍방사이에 오래동안 루적되여온 오해와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오해와 불신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대화를 하여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비록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것은 결코 우리 민족이 영원히 갈라져살 근거로는 될수없으며 또한 그것으로 하여 같은 민족끼리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총포를 맞대고살 까닭은 없는것입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피줄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서로 지난날의 대결상태에서 벗어나 화해의 길로 나가고있는 오늘 우리는 마땅히 민족내부의 이러한 비극적이며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근원은 물론 외세에 있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여하에 달려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망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현시점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 결정에 따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것을 귀당국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대표단은 각각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여 7~9명정도의 실권있는 고위급정치군사대표들로 구성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문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우리는 첫 회담을 오는 12월중순경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회담에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내놓은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방안이 토의되여야 할것이며 이밖에도 정세완화에 기여하는것이라면 어떠한 문제들도 폭넓게 협의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기하고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다시금 제의하는것은 오늘의 변천된 정세를 고려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데 기초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은 현재 준비하고있는 국회회담을 진척시키고 여러갈래의 대화들을 계속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그것은 특히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는데 훌륭한 교량적 역할을 놀게 될것입니다.

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첫 돌파구를 마련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측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것을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리 근 모

1988 년 11월 16일

평 양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 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 단계 (1989 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 도 30 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 단계 (1990 년말까지) 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 년말까지 3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 단계 (1989 년말까지) 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 도 30 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 단계 (1990 년말까지) 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 단계 (1991 년말까지) 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륙전대병력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페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여야 한다.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

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코, 스위스, 스웨리예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방송을 중지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③ 북과 남은 정당,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래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련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3)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수 있다.

19.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남북체육회담개최 제의

(1988. 12. 21, 조선 올림픽위원회위원장 김유순 대남서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귀하

귀하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1990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는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아세아지역 나라들사이에 평화와 친선과 체육기술의 증진을 위하여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무어 공동으로 출전하게 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유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한 문제는 비단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것이 아닙니다.

우리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더우기 우리측의 진지하고 거듭되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체육회담이 열렸고 어떤 때에는 유일팀구성문제토의에서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팀구성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들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유일팀구성문제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평화와 친선의 리념밑에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세상사람들앞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서로 승벽내기를 하면서 대결하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제무대에서 동족끼리 서로 대결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끝장내야 하며 그러자면 유일팀을 구성하여 당면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출전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제 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하나의 팀을 무어 공동으로 출전하게 되면 북남체육인들사이의 단합과 뉴대를 강화할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1990년 9월에 열리게 되는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1989년 2월하순경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것을 희망합니다.

경기개막의 날까지는 아직 시간도 있고 내외정세도 우리들의 접촉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

쌍방이 단합과 통일의 립장에서 서로 마주앉아 격의없이 진지하게 토의한다면 반드시 북남유일팀 구성문제를 성사시켜나갈수 있을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88년 12월 21일

20.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1989. 1. 30, 4당총재 및 김수환, 문익환, 백기완 앞으로 대남서한)

민주정의당 총재 로○○ 귀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89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갈 방도를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수있는 지도급인사들로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것을 제안하시였습니다.

나는 귀하에게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을 다시금 전하면서 이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귀하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지금 북과 남, 해외에서는 겨레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으며 주변정세도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발전되여가고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통일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때이며 북과 남의 지도급인사들이 통일위업실현에서 선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책임적인 시기입니다.

우리측이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한것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 민족앞에 지니고있는 중대한 임무를 다하기 위한 일념에서 출발한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도급인사들이 이러한 공통된 민족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한자리에 모여앉는다면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하더라도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훌륭한 방도를 모색할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하고있습니다.

40여년동안이나 민족분단의 비운을 통탄해오면서도 언제 한번 만나서 통일문제를 가지고 론하지 못한 북과 남의 지도급인사들이 이런 책임적인 시각에마저 당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한 민족대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조선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으로 될것이며 민족과 후대들 앞에도 떳떳하지 못한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남조선의 공당을 대표하는 지도적 정치인으로서 민족의 절실한 통일념원과 현 정세의 추이에 부합되는 우리의 새로운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에 응당한 호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 우리의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에 이의를 표시하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의 정치인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기억하고있으며 또한 오늘 남조선에서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론의가 커다란 공감을 받고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는것이 결코 시기상조하지 않으며 충분히 성숙된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평양으로 오는 길은 어느 외국을 방문하는 길처럼 멀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 가까운 길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귀하에게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련방제통일방도를 협의할데 대한 우리측의 새로운 협상제의를 다시한번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회

허 담

1989년 1월 30일

21. 남북대화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5개항제의

(1989.3.27, 제정당·단체들의 련합성명문)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온 겨레의 열망이 비상히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27일 평양에서는 공화국북반부의 정당, 단체들의 련합회의가 진행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최근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대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있고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나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북남대화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의 의정을 상정토의하고 제 정당, 단체들의 련합성명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련합성명은 다음과 같다.

*　　　*　　　*

안팎의 정세가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가운데 최근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대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다.

북과 남에서는 각계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것을 요구하여나서고있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수 있는 여러가지 유익한 발기들을 내놓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북남사이에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외에 민간급에서도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앞으로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사이의 대화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벌어질것이 예견되고있다.

우리는 이것이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열망과 애국의지를 반영한것이라 인정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환영한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특정한 계급계층이나 당국만이 할 일이 아니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룩하여야 할 거족적인 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면 여기에 당국자들뿐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그들이 서로 만나 통일에 유익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조선당국은 《대화창구일원화》라는 명목밑에 북과 대화를 하려는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의 노력을 공공연히 탄압하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에 간섭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인민들의 애국열의를 적극 고무하고 도와줄대신 오히려 총칼로 압살하려는것은 도저히 민족적 량심을 지닌 사람들의 온당한 처사라고 볼수없다.

지난해에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거사를 폭력으로 봉쇄한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날에 와서도 인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의 대화노력을 가로막아나서는것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사이의 민간급 대화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그 어떤 〈분렬〉이나〈혼란〉을 빚어내는것이 아니라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방도이다.

북과 남의 인민들사이에는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고 대결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인민들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 쉽게 의사가 소통되고 뜻을 합칠수 있으며 나아가서 대결의 분위기를 단합의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당국사이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용이하게 풀수 있다.

인민들사이의 대화의 문이 열리는것은 곧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는것이며 통일의 문이 열리는것이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로골적으로 〈두개 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대화를 대결과 분렬의 고정화에 리용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통일의 앞길을 성과적으로 열어나가자면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을 위한 대화에 더욱 광범히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활발한 대화노력을 받아들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념원으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민간급 대화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1.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북남대화를 쌍방당국사이에도 하고 민간급에서도 폭넓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과 신앙, 정견과 소속의 차이나 재산과 직업, 과거의 여하는 북남사이의 접촉과 대화에 장애로 되지 말아야 한다.

2. 북남대화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민족공동의 리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여야한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거나 《두개 조선》을 위한 대화는 배격되어야 한다.

3. 조선인민은 통일의 주체로서 누구나 통일문제를 놓고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할 권리를 가진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간급의 자률적인 대화제의를 장려하고 받아들여 남조선과 해외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녀성, 종교인, 민족자본가 및 그 단체들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시킨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간급의 경제합작, 공동개발, 공동연구, 공동출연, 공동대외진출제안을 장려하여 받아들인다.

4. 남조선과 해외의 개별적 인사들이 민족공동의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아무때나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는것을 허용하며 환영한다.

5. 민간급 대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민간급 대화를 위한 제의는 판문점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서면교환, 공개방송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현한다.

민간급 대화는 판문점에서도 할수 있고 평양과 서울에서도 할수 있으며 제3국에서도 할수 있다.

접촉과 대화를 위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는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의 래왕과 신변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며 모든 편의를 보장한다.

조선로동당 조선기자동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학생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기독교도련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건축가동맹
조선자연보호련맹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의학협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1989 년 3 월 27 일

평 양

22. 남북노동자대표회담 제의

(1989,3.31,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공개서한)

우리의 형제인 남조선로동자들!

우리는 머지않아 5.1절을 맞이하게 된다.

5.1절은 전세계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시위하는 국제적 명절인 동시에 북남로동자들의 공동의 명절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계급적 형제인 당신들,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이 공개서한을 보낸다.

돌이켜보면 우리들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한 혈육이고 동포이면서도 나라와 민족이 분렬되어 40여년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에서 살고있다.

민족의 분렬은 우리들에게 전세계로동자들의 전통적 명절인 5.1절조차 함께 기념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다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당하는 이불행과 고통은 결코 우리들에게 차례진 숙명이 아니다.

최근 〈전국로동운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로동단체들이 5.1 절을 로동절로 선포하고 이날에 각종 기념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한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북의 로동자들도 남의 로동자들도 다같이 기념하게 될 뜻깊은 5월의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남녘의 로동자들에게로 달려가고있으며 이날을 당신들과 한자리에 기념하고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끓어번지고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장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우리 로동자들의 마음에는 장벽이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마음과 뜻도 하나이고 지향과 목표도 하나이다.

우리의 심장은 언제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공통된 의지와 자각으로 맥박치고있다.

우리 로동자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로동으로 사회의 모든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새력사의 장을 열어나가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 로동계급이라는 말보다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울리는 말은 없다.

사회적 진보와 변혁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려온 우리 로동계급은 마땅히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길에서도 주역이 되여야 한다.

우리들이 5.1절을 계기로 자리를 같이 한다면 통일에 대한 하나의 지향과 념원으로 결합된 조선로동계급의 굳은 련대감과 억센 힘을 온 민족앞에 과시

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 북남로동자들의 력사적 상봉은 분렬된 겨레의 아픈 마음에 통일의 희망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며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게 할것이다.

우리 로동자들은 서로 오가며 만나야 한다. 만나서 함께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혈육의 정으로 녹이고 온 겨레가 함께 살아갈 통일의 집을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로동자들에게는 남달리 힘센 주먹이있고 단결의 무기가 있거늘 제힘으로 열고 넓혀서라도 가야 할 상봉의 길, 통일의 길을 우리 어찌 오가지 않으며 분렬의 장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민족분렬주의자들이 총칼로 막아선 길을 우리 로동계급이 투쟁으로 열고 앞장서 찾아오고 찾아가자. 서로 만나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통일에 힘을 합치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당신들, 남조선의 〈전국로동운동단체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제의한다.

첫째로, 다가오는 5.1절에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진행하되 평양행사에는 남측《전국로동운동단체협의회》가 파견하는 큰 규모의 남조선로동자대표들이 참가하며 서울행사에는 우리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파견하는 많은 수의 북측 로동자대표들이 참가한다.

둘째로, 5.1절에 즈음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북남로동자대표들의 참가하에 련합모임을 진행한다.

셋째로,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4월 1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5명의 북남로동자대표들이 참가하는 실무접촉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제의에 당신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노동자들의 력사적 상봉이 순조롭게 실현되여 좋은 결과를 맺도록 모든 조건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의 각 당, 각 파, 각계 인사들이 북남로동자들의 5.1절 공동기념행사와 련합모임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23. 남북역사학자회담 제의

(1989.5.24, 북한력사학자 공개서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영석·한국력사연구회 회장 안병욱·서울대학교 교수, 박사 김원룡귀하

우리는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랑스러운 력사를 옹호고수하는데서 력사가들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는 숭고한 뜻에서 이 서한을 보냅니다.

귀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풍습을 지켜오면서 민족사를 빛내여 왔습니다.

원시말기에 조선사람의 형질이 이 땅에 태를 묻기 시작한 조선민족은 고대에서부터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오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민족은 기원전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린 자랑스러운 애국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민족의 력사를 옹호 고수하는것은 우리 력사학자들의 민족적 의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를 심히 왜곡한 교재들이 합법적으로 출판 보급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북반부력사가들은 의분을 억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미국고등학교들에서 교재로 사용되고있는 〈세계력사에 대한 인류의 견해〉라는 책의 동양부문에는 조선민족은 인종적으로 기원전에 조선반도에 이주하여 원주민들을 지배하여온 이웃나라 종족과의 혼혈족이며 조선은 자체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속해있었으며 이웃나라의 사상과 문자, 종교를 모방해왔다고 외곡서술하고있습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이 책에서 일본은 고대로부터 조선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기원 200년경부터 조선의 남부를 점령하여 700년동안이나 통치하였다고 하면서 허황한 임나경영설을 설교하고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의 력사를 저들의 비위에 맞게 제멋대로 외곡날조하는데 버릇된 제국주의어용사가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혹심한 력사위조행위이며 우리 력사와 우리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력사에 대한 이러한 외곡날조행위가 다른 민족을 렬등시하고 멸시하는 미제국주의의 민족배타적인 침략적 본성으로부터 나온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미국의 일부 사가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 어용사가들마저 임나경영설에 대한 의혹을 표시하고있는 때에 조선력사를 꺼리낌없이 외곡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선사람이 예로부터 혼혈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될 필요가 없으며 예로부터 남의 통치와 영향밑에서 살아왔기때문에 오늘도 외세의 지배를 받는것이 응당하다는 강도적 론리를 세움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려는데 진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귀중히 여기며 민족적 량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미국사가들의 란폭한 위조행위에 대하여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력사가들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력사를 외곡하고 위조해나섰을 때 그에 항거하여 싸웠고 36년간에 걸치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우리의 민족사를 옹호고수하였으며 우리 북반부에서는 지난 40여년 동안 력사가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력사가 주체적 립장에서 깊이 연구되여 훌륭히 종합체계화되였읍니다.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발전시켜온 우리의 민족사가 오늘 미국에서 심히 외곡 위조되고있는것을 우리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의 민족사가들은 우리의 력사가 절름발이력사, 타률적 력사로 외곡되고 우리민족의 후진민족, 렬등민족으로 모독당하고있는 사태를 보고만있지 말아야 하며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신성한 우리 민족력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외곡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립장으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에서 각각 3～5명씩의 력사학자들이 6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나 〈통일각〉 혹은 〈평화의 집〉에서 만나 최근 미국에서 감행되고있는 조선력사위조행위를 규탄하는 공동항의문작성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할것을 제의하는바입니다.

우리는 귀하들이 북남사가들의 회담을 가질데 대한 우리의 발기의 취지를 옳게 리해하고 이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하면서

조선력사학회 회장 교수, 박사 전영률·조선사회과학원 원사, 교수, 박사 김석형·김일성종합대학원사, 교수, 박사 박시형

1989년 5월 24일

평 양

24. 제2차 고방단·예술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1989.5.31, 조선적십자회중앙위 손성필위원장 서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민족분렬의 비운을 안은채 1980년대의 마지막해를 보내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오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것은 더이상 지체시킬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일찌기 1970년대초에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줄 숭고한 사명을 안고 열렸던 쌍방 적십자회담은 그동안 귀측 당국의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로 말미암아 중단과 재개의 순탄치못한 사태를 거듭하면서 응당한 결실을 가져오지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오늘의 형편에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우리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들과 남조선의 〈전민련〉 고문인 문익환목사일행 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이 다같이 인도주의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북과 남이 리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한 사실은 우리 북남적십자단체들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조성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적십자단체들이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가능성을 잘 리용하여 흩어진 겨레들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의 우리 적십자단체들은 이미 1985년에 공동의 노력으로 나라가 갈라진후 처음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마련하여주고 예술단을 교환함

으로써 온 겨레에 커다란 기쁨을 준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도 북과 남으로 헤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있는 가족, 친척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국해방 44돐이 되는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에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쌍방이 각각 2~3명이 참가하는 적십자실무대표접촉을 가질것을 귀측에 제의합니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제의에 귀측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1989년 5월 31일

평 양

25. 남북종교인회담 제의

(1989.6.2, 북한종교인협의회공개서한)

한국종교인협의회 앞

북과 남이 반목과 대결을 피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는것은 잠시도 지체할수없는 민족사의 요청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반목과 대결을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언제가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할것이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와 영구분렬의 치욕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오래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와 민족들사이에도 대결상태를 가시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고있는 지금에 와서 한 피줄을 나눈 우리 겨레가 서로 원수처럼 되여 매양 전쟁의 위험속에 살아가고있는것은 민족최대의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랑과 화목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땅에 평화와 통일이 깃들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있는 우리 종교인들이 더는 이 통탄할 현실을 대안의 화재시하고있을수만은 없습니다.

나라의 통일은 전민족적인 위업인만큼 당국자나 그 어떤 특정인만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우리 종교인들도 이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여야 할것입니다.

근 반세기동안이나 분렬로 하여 당하는 민족의 재앙과 곤욕을 수수방관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에 분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신앙에 득도한 이 나라의 참종교인이라 하지 않을것입니다.

참종교인의 본연의 자세는 애국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량심있는 조선의 종교인들은 지난날 수난당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종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언제나 함께 심고하고 그것을 타개하기위해 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쳐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종교인들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통일구국의 길에 나섬으로써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에 헌신하고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종교인들은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정진하고있습니다.

지난 2월에 남조선의 여러 종단 종교인들이 서울에서 민족평화를 위한 종교인대회를 열고 민족화해 종교인선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여 발표한것도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공헌하려는 애국의지의 발로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천명된 남북종교인들의 교류와 접촉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찬의를 표시하는바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종교인들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는것이 우리 북남종교인들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 위업에 큰 도움으로 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귀협의회에 북남종교인회담을 가질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는 북남종교인들의 만남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고대하면서 북남종교인회담을 6월하순경에 하는것이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는것이 좋으며 평양과 서울로 정하는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회담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토의할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북남종교인들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북남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회담대표단은 쌍방 종교인협의회에 망라되여있는 종단의 수를 고려하여 각각 7명 정도로 구성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귀 협의회가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제 땅에서 가지게 될 쌍방 종교인들의 력사적인 회담제의에 반드시 호응해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종교인협의회

1989 년 6 월 2 일

평　양

26. 민족통일협상회의 개최 제의

(1989.9.28 ,외교부장 겸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보고)

동지들 !

오늘 우리는 온민족의 통일열망이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전환되어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환경속에서 구국통일대책을 협의하기위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아는바와같이 오늘 해내외에서 급격히 앙양되고 있는 통일기운은 온 민족의 힘과 지혜를 합쳐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조선의 전민련고문인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민간급 통일대화의 첫문을 열어놓은데 이어 전대협대표인 임수경학생이 사선을 넘어 축전에 참가하고 문규현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과하여 돌아간 애국적 장거는 북과 남을 하나로 이으려는 민족의 막을 수 없는 통일열망과 조국통일의지를 세계앞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였습니다.

사실상 임수경학생이 평양축전에 참가하여 북반부 청년학생들과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다시만날날을 약속하며 분단의 장벽을 넘어간것은 오직 하나의 조선만이 있고 누구도 내나라 내땅을 갈라놓을 수 없으며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만사람에게 생동하게 보여준 하나의 화폭이였으며 두개의 조선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분렬주의자들에 대한 엄숙한 경종이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통일로선과 두개조선 로선사이의 대결은 하나의 조선을 지향하는 인민들에 의하여 이미 역사의 심판이 내려졌으며 하나의 조선으로의 통일은 온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로되고 있습니다.

북과남의 각계각층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려는 기운이 급격히 태동하고 있

는것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서 주목할만한 커다란 변화입니다.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각계각층이 북과남을 오가면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품고 겨레의 통일의지를 직접확인하며 통일문제 해결에 동참 하려하고 있는것은 이제와서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정치인들과 민주인사들,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인 박사, 학자, 종교인들, 심지어는 기업가들까지 북과의 래왕과 접촉을 요구하면서 통일의 문을 두드리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조선의 이름있는 각계인사들이 련이어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고 서로의 통일의지와 공동의 노력을 확인한것은 사실상 북과남의 인민들 사이에는 적대시하고 대결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른바 민족의 이질화란 한갖 허상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과남의 혈육들이 서로 만나 민족의 활로를 함께 열어나가려는 지향은 오늘 몇몇인사들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북과남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족적 요구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은 '오라 백두에서, 가자 한라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고 부르고 화답하면서 북남학생회담을 마련하기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였으며, 그들의 이 소원은 드디어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전대협대표를 통하여 훌륭한 열매를 맺게되였습니다.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여러 민주인사들, 학자들과 교수들, 작가 예술인들과 기자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및 종교단체들, 모든 계층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와의 접촉과 대화를 요구해 나서고 있습니다.

남남처럼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끊어진 혈맥을 하나로 이으려는 민족의 념원은 그 어떤 법률적, 제도적 구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통일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에 대한 운동은 감상적인 념원이나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도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높은단계에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이 거족적인 통일운동은 북과남을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이 절대로 영원한 장벽으로 될수없으며 온 겨레가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날이 결코 멀지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의지와 거대한 힘을 목적 지향성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마련할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통일정세 발전의 추이를 예견성있게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올해 신년사에서 어떻게 하나 빠른시일안에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또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합리적인 방도에 대하여 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룩하는것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해야 앙양된 통일열의와 민족의 거대한 힘을 헛되이 함이 없이 통일운동을 합목적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겨올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연방국가를 창립하는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0년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

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체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할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남이 서로 대치되어있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제도를 그대로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공명정대한 구국통일방안입니다.

북과남의 두제도를 단일화한다는 구실밑에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끝없이 지속시키는것은 민족의 통일념원을 외면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조건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사실상 통일자체를 거부하는것입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의 실정과 우리민족의 리익에 맞게 가장 빨리 순조롭게 풀어나갈수있는 길은 오직 련방제방식 이외에 다른길이 없습니다.

최근 나라의 자주적 평화적통일을 위한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통일론의가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에서도 여러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이 련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 당국도 늦게나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북과남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은 물론 서로 차이점들도 많으며,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남의 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이 제각기 자기의 통일방안을 시야비야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해야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접수될수 있는 하나의 통일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이러한 공동작업이 없이 제각기 자기가 내놓은 방안을 주장할 내기나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가도

통일문제 해결에서 서로 보조를 같이할 수 없을것이며, 통일을 향하여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마련해야할 이 중대한 력사적 림무는 바로 우리들, 북과남의 정치인들에게 부과되어있습니다.

북과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자기들앞에 부과된 숭고한 림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국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절박하게 제기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찾는데 모든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통일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남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으며 당면하게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도 북과남의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협상회의는 북과 남의 구별없이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다무적 원탁회의 방식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족통일 협상회의는 통일대화에 적극 참여하려는 각정당단체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북과남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모두 60명정도의 대표들이 참가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에서는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들이 내놓은 조국통일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조국통일 방도에 관한 민족의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며 이밖에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될수있는

다른 건설적인 제안들도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위하여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가 성과적으로 소집되어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이룩되게되면 그것은 우리민족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될것이며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 발표이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 전도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주고 북과남의 모든 애국 력량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게될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당면하여 북과남의 여러방면의 대화들도 성과적으로 추진되게될것이며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의 길도 활짝 열리게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과남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앉아야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0여년동안 북과남의 정치인들은 다같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언제 한번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한일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학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한창 배울나이에 있는 학생들까지 통일을 위하여 서로 만나자고 하고 70고령의 노인과 20대의 젊은 세대까지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북을 오가는 이때에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북과남의 정치인들이 무엇때문에 현실을 외면한채 서로 담을 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북과남의 정치인들은 민족의 중대사를 앞에두고 서로 마주앉지 못할 아무런 리유가 없습니다.

북과남의 정치인들이 지체없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조국통일방도를 공동으로 마련해야할 절박성에 비추어 민족통일 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새 제안이 담긴 편지를 본 연석회의의 이름으로 곧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보낼것을 제의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과 정당단체인사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데대한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기꺼이 응해나서야할것입니다.

북과남의 정치인들이 다같이 민족적 립장에서서 함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면 아무리 견해차이가 크고 통일방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하여도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조국통일의 새전기를 마련해야할 이 중대한 싯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40여년간 외세에 의하여 조장되어온 모든 대결관념과 적대감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단합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우리민족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확신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립장에서 다른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것이며 통일에 도움이되는것이라면 누구의것이든 폭넓게 수용할것입니다.

우리민족은 일제식민지 통치시기보다 더 오랜 40여년간을 분렬의 비극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이 비극을 절대로 반세기이상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분렬의 50년이며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1995년을 반드시 통일성업을 완성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해야합니다.

〈남조선당국과 정당단체들에 보내는 편지〉

우리는 머지않아 1980년대의 마지막해를 보내고 민족의 분단45년이되는 90년대의 첫해를 맞이하게됩니다.

그동안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대는 바뀌고 력사와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통일은 아직도 민족의 비원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반세기를 헤아릴수 없는 불행속에 살아온 우리가 이제 또 얼마나 더 분렬을 지속시켜야 하겠습니까

날이갈수록 더해가는 분렬의 비운을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가시지 못하고 의연히 북과남이 불신과 반목속에서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면 그것은 참으로 력사의 한을 남기는 죄악으로될것이며 누구에게서도 동정을 받을수없는 자해행위로 민족의 수치로될 것입니다.

세계가 자주를 지향하고 모든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때에 오랜세월 하나의 강토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며 인류문명의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우리민족이 아직도 외세가 강요하는 예속과 분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대의 낙오자로 산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우리민족은 결코 자기의 넋을버리고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남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원하지않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잘아는 바와같이 1970년대에 북과남이 합의하고 세계앞에 천명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온민족의 간절한 통일념원과 자주적인 통일노력에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주적 통일의지의 뚜렷한 표시였습니다.

우리민족의 이 숭고한 자주통일의지는 오늘 북과남에서 급격히 앙양되고있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통하여 현실로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의조선, 하나의 민족을 절규한 겨레의 함성은 자주적인 통일국가창조를

지향하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며 북과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확산되고있는 활발한 통일론의와 서로 접촉하고 래왕하려는 대중적요구는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민족의 막을수 없는 대진군입니다.

이 거족적인 통일운동 앞에서는 군사분계선이 결코 북과남을 가로막는 영원한 장벽이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자신의 힘으로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온겨레의 견결한 의지와 거대한 저력을 통일의 광장으로 이끌어갈수있는 공동의 구국통일방도를 마련하는 문제가 매우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0년도에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남이 각각 현존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련방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할데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최근시기 통일론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정당 단체들이 련방제통일방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당국도 늦게나마 통일방안을 내놓은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제각기 통일방안을 내놓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서로 보충하고 완성하여 민족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정립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업이 바로 우리들 북과남의 정치인들에게 부과되여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남의 당국과 각당 각파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기위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단체들에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에는 북과남의 당국과 주요정당 단체대표들이 참가하되 그 규모는 북과남이 같은 수로하여 60명정도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해내외 개별적인 각계인사들도 참가할수 있을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에서는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내놓은 조국통일방도들을 광범히 협의하고 조국통일방도에 관한 민족공동의 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며 그 밖에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될수있는 다른 건설적인 제안들도 함께 토의할수있을 것입니다.

협상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되 첫회의는 1990년 2월 20일 평양에서 진행하며 회의형식은 북과남의 구별없이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다무적 원탁회의 방식으로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협상회의 테두리 안에서는 북과남의 최고 당국자들이 아무때나 만나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와 관련되는 제반문제들을 협의할수있을 것입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위하여 우리는 오는 11월부터 명년 1월까지를 예비회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을 통하여 회의준비사업을 추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북과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들이 진정으로 민족적 입장에서서 함께 통일을 지향해나간다면 아무리 견해차이가 크고 통일방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하여도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수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할 이 중대한 싯점에서 정치인들은 마땅히 상대방을 누르고 먹으려는 심리를 버려야 하며 상대방과 대결하고 경쟁하려는 적대감에서 벗어나야하며 상대방의것은 덮어놓고 부정하려는 편견을 일소하여야 합니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립장에서 다른 통일방안들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상회의가 성과적으로 개최되어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게되면 온겨레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게될것입니다.

북과남의 정치인들은 지난 40여년동안 다같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오면서도 언제한번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지 못한 과거의 아쉬움을 돌이켜보며 대망의 통일위업을 내일로 불러오는 벅찬현실에 과감히 뛰어들어 온 겨레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같이하여야 할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에사는 우리정치인들의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 있고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을 우리기성세대의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정당단체들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우리의 성의있는 협상회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에 적극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화국북반부 당국, 정당, 단체련석회의

1989년 9월 28일

평 양

Ⅱ. 分野別 南北會談 關聯 北韓論調

남북한총리회담을 위한 실무 대표접촉 (1980. 2 - 1980. 8)

1. 접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글, 1980.4.3)

4월 1일 판문점에서 북과 남의 총리접촉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대표들의 제5차접촉이 있었다.

이미 장소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이 락착된 조건에서 이번 접촉은 의제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총리접촉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접촉이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내외의 이목은 특별히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접촉을 주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번 접촉은 아무러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그들은 접촉벽두부터 실무접촉의 기본사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른바 〈무장인원침투〉니 〈무장선박침투〉니하는 괴이한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함부로 헐뜯으면서 일방적으로 기본문제토의를 거부하였다.

초보적인 도의도 없는 그들의 행동은 접촉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남측이 들고나온 그 무슨 〈무장침투사건〉이라는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상이 드러난바와 같이 우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것이며 남조선내부에서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꾸며진 자작극인것이다.

우리는 공식성명 등을 통하여 그들이 들고 나온 〈사건〉의 진상을 까밝히고 그것이 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조작된 날조극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미 바닥이 드러난 조작극을 가지고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 인위적인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실무대표들의 접촉장소에까지 들고나와 소란을 피우는것은 쌍방접촉에 대한 그들의 진의도를 의심케 한다.

남측은 엉뚱한 모략〈사건〉을 들고나와 회의분위기를 흐리게 하고는 도리여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사실 회의분위기가 흐려진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접촉과 대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시종일관 주장하여왔으며 실지 행동으로 이를 구현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 쌍방접촉시초부터 매일과 같이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니 〈적화야욕〉이니 뭐니하면서 우리를 헐뜯고있다.

우리에 대한 이러한 비방중상에는 지어 남측의 고위당국자들까지도 끼여들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미국과 함께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쌍방접촉이 이루어진후에만도 그들은 〈매젝스 80〉, 〈방패 80〉, 〈독수리작전〉등의 군사연습을 진행한데 뒤이어 지금은 〈팀 스피리트 80〉이라는 최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리고있다.

이처럼 대화의 막뒤에서 대화일방을 반대하는 반공모략선전과 전쟁연습을 쉴새없이 감행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제 와서는 날조극까지 꾸며내여 우리에 대한 불신과 대결의식을 공공연히 고취하고있다.

이러한 반공대결정책이 대화와 량립될수 없으며 평화와 평화통일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측의 이러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립장은 실무대표들의 접촉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총리접촉장소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그들은 총리접촉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하자는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의 〈환경〉이니 〈능률〉이니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제3국에 가서 하자는 불합리한 주장

을 고집하였으며 합의를 지연시켰다.

장소문제로 인한 실무접촉의 교착상태는 오직 우리측의 아량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에 의해서만 타개될수 있었다.

그들은 총리접촉의 의제문제를 가지고도 총리접촉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회의는 새로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이 모든것은 남측이 구태의연한 반공대결로선에 매달려 대화와 접촉에 부당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림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념원을 담아 진행되고있는 북과 남의 새로운 접촉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공대결로선을 버려야 한다.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이 제도, 사상,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합작하고 단결하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합작, 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과정이며 또한 근본방도이다.

남북이 서로 합작하고 단결하기 위해서는 접촉하며 대화해야 한다.

북과 남의 총리접촉은 빨리 실현되면 될수록 좋은것이며 따라서 그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대표들의 접촉도 결속을 보아야 할것이다.

남측은 접촉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립장과 옳은 자세를 가지고 접촉에 림해야 한다.

2. 남측은 접촉앞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글, 1980.5.24)

5월 22일 판문점에서 북과 남의 총리접촉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대표들의 제8차 접촉이 있었다.

지금까지 실무접촉에서는 총리접촉을 위한 절차문제를 토의하는데서 장소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남은 의제문제만 합의하면 총리접촉을 할수 있는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안팎의 여론은 실무접촉에서 의제문제에 대하여 빨리 합의에 도달하고 총리들이 만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토의에 들어가게 될것을 바라면서 이번 접촉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북과 남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실무대표접촉앞에 난관을 조성하여 총리접촉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5월 17일 남조선통치자들은 갑자기 우리를 걸고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반파쑈민주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하여나섰으며 온 남조선땅을 파쑈폭압의 도가니속에 밀어넣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도 〈특별담화〉라는데서 그 누구의 〈대남적화책동이 격증〉되였다느니 〈남침의 결정적시기를 노린다〉느니하면서 남조선에서의 이번 폭압조치가 북으로부터의 〈위협〉때문에 취하여진듯이 터무니없는 허위날조를 일삼고 우리를 비방중상하였다.

이것은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안팎의 여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적인것이다. 이런 사태가 방임되면 북과 남의 접촉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접촉의 전진을 기대할수 없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남측에 의하여 접촉앞에 조성된 이 난관을 제거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로부터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남측이 우리를 걸고들어 남조선에서 새로운 〈비상계엄령〉을 실시하고 파쑈광풍을 일으키고있는 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까밝혔다.

이것은 이번 접촉을 성과적으로 결속짓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려는 우리측의 성실한 의도와 성의있는 노력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통치자들이 떠들고있는 〈남침위협〉설은 순전한 허위모략선전이다. 그들은 저들에게 그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남침위협〉에 대하여 념불처럼 외우며 우리를 걸고든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으며 실제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10월 26일사태후 남조선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수습되기를 바라면서 북과 남이 합작, 단결, 통일로써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갈것을 제의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로서 지난 1월에 북과 남의 정치인들의 다각적인 접촉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접촉도 우리의 그와 같은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우리에게 〈남침〉 의사가 없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명백한 일이다.

남측이 떠드는 〈남침위협〉설에 대해서는 남측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거듭 극력 부인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남으로부터 오고 있다. 남측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다른편으로는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거듭 벌리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와 군사적대결을 하겠다는것으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접촉과 군사적대결로선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마치 〈공산분자〉들이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에〈침투〉하였다느니 뭐니하고 류포시키고있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랑설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자체의 내부요인에 의한것이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으며 수입할수도 없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필연적으로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것이며 반항이 있는데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기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선것은 〈유신체제〉밑에서 모든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빼앗기고 더는 그대로 살수 없게 되였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의 대중적반파쑈민주화투쟁은 어디까지나 남조선내부요인에 의한것이며 남조선사태의 책임은 다름아닌 남조선집권자들에게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기 잘못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배격을 받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적자유와 삶의 권리 그리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진행하고있으며 이를 지지하는것은 숭고한 민족적의무에서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지지할 대신에 탄압하는것이야말로 반민족적이고 반인민적인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걸고 남조선에서 민주력량에 대한 파쑈적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에게 과연 우리와 접촉할 의사가 있는가,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회의에서 우리측이 남측이 진정으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면 이제라도 반공대결정책을 버리고 합작, 단결,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하며 우리가 제기한 합리적인 의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요구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이날 우리측의 발언이 〈내정간섭〉이라느니 〈선동〉이라느니 뭐니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비방중상하였다.

우리와 하등 상관없는 일을 우리와 관련시키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겨씌우려고 하기때문에 우리측은 그 부당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발언한것인데 이에 대하여 〈내정간섭〉이요 〈선동〉이요 뭐요하는것은 말문이 막힌자들이 부리는 생트집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과 남의 실무접촉을 성과적으로 결속짓고 쌍방총리접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접촉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며 남측이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하는 도발행위들이 중지되어야 한다.

남측은 〈남침〉이니 〈적화〉니하는 구실밑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요구하여나선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총칼로 탄압하는 행위를 그만두며 우리를 걸고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부당하게 체포투옥한 모든 사람들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남측이 이렇게 하여야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쌍방실무대표접촉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을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박한 념원이다. 이것을 외면하면 민족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3. 암초부터 제거해야 한다

(로동신문 론평, 1980.6.26)

24일 판문점에서는 북과 남의 총리접촉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대표들의 제9차접촉이 있었다.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고 대화와 접촉

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요구들에 대하여 밝혔다.

특히 우리측은 쌍방 실무대표접촉앞에 가로놓인 현실적인 장애부터 제거하지 않고서는 접촉의 성과적전진을 바랄수 없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 즉 우리를 걸고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군정통치를 철페하며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구금한 사람들을 석방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주장은 실무대표접촉의 배후에서 남조선파쑈분자들이 실시하고있는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파쑈통치와 이로 인하여 지금 남조선에 빚어지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에 기초하고있다.

또한 그것은 실무대표접촉을 결속짓고 총리접촉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지름길을 밝히고있다.

우리측이 정당하게 주장한바와 같이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며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접촉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또 다하고있다.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화에 대한 립장과 자세부터 똑바로 가져야 한다. 다시말하여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림해야 한다.

그래야만 호상존중과 신뢰, 민족적 화목과 단결 등 대화의 진전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할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대화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대화,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화의 이러한 사명과 요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벌어지고있다.

전○○을 두목으로 하는 군사파쑈분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이라는 허구를 내걸고 남조선전역에 새로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많은 괴뢰군경

들과 땅크, 장갑차들을 동원하여 광주에서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야만적인 류혈참극을 빚어냈다.

또한 군사파쑈도당은 이른바 〈안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그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여 공공연히 군정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전○○일당의 이러한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적인 군사파쑈통치와 폭압만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남녘땅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고 파쑈와 독재가 살판치는 암흑천지로 화하고있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우리가 편지를 보낸 당사자들이 또한 체포투옥되였거나 언금되였다.

뿐만아니라 그 무슨 〈간첩사건〉이니 뭐니하는 모략자작극들이 련이어 조작되고있다.

전○○일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정통치를 실시해도 그리고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애국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해도 우리를 걸고들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헐뜯으며 우리에 대한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소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신〉통치때보다도 더 험악하고 긴장한 분위기가 지배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쌍방 실무대표들의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더우기 군정통치의 실시로 남조선에 현실적으로 총리도 존재하지 않는 형편에서 쌍방 총리접촉의 의제문제를 토의한다는것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항구를 떠난 배를 목적지로 무사히 가닿게 하려면 암초가 없어야 한다.

쌍방 실무대표접촉을 순조롭게 진척시켜 북과 남의 총리접촉을 실현하자면 군사파쑈분자들이 우리를 걸고 선포한 〈비상계엄령〉, 우리를 걸고 실시하는 군정통치, 우리를 걸고 인민을 탄압하는 파쑈행위, 우리를 걸고 벌리는 반공소

동과 전쟁준비 등 대화앞에 가로놓여있는 암초들이 없어야 한다.

남조선통치배들이 진심으로 쌍방 실무대표들의 접촉을 추진시켜 총리접촉을 마련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있다면 우선 이러한 장애부터 제거해야한다.

접촉마당에서는 이른바 〈대화〉니 〈평화통일〉이니하는 사탕발림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뒤에 돌아앉아서는 이와 배치되게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반대하고 불신과 대결을 조성하는것은 통일대화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뒤에서는 북을 반대하여 칼을 벼리면서 마주앉아서 접촉의 추진이요 뭐요하는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의 몸에서는 화약냄새, 피비린 냄새가 풍기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려는 교활한 량면술책을 버려야 하며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군정통치를 철폐하며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체포투옥한 사람들을 석방하여야 하며 반공소동과 남북대결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일 군사파쑈분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걸고 반공소동과 파쑈폭압만행을 일삼는다면 그로부터 산생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남 북 체 육 회 담

(1984. 4 ~1984. 5)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변인 성명

(1984. 4. 10)

제 23차올림픽경기대회와 그 이후의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출전할데 대한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에 의하여 지난 9일에 마련된 북남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의 제 1차회담은 남조선측의 부당한 태도로 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류산되고말았다.

우리측은 북과 남이 국제경기들에 유일팀으로 나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와 체육인들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회담에서도 모든 성의를 다하였으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은 애초부터 이번 회담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그들은 회담이 시작되기 불과 몇시간전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에 우리 체육인들을 비방중상하는 내용의 삐라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도발적인 삐라들을 뿌려 회담시작전부터 분위기를 흐려놓았으며 회담장안에서는 회담시작부터 초보적인 상식과 례의도덕에도 어긋나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를 걸고드는 정치적도발을 감행해나섰다.

그들은 이번 체육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랑군폭발사건과 신상옥, 최은희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에게 테로니 랍치니 하는 당치 않은 딱지를 씌우려 하였는가 하면 그 무슨 사죄에 대해 떠들어대였다.

더우기 남조선측의 한 대표라는자는 미리 준비해가지고나온 장문의 원고를 통해 우리의 사회제도와 정치체제까지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을 서슴치않고 늘어놓았다.

유일팀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체육회담장에 나와 정치선전을 일삼으며 상대측을 모독하고 남북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는 남조선측의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스포츠의 리념과 민족적단결의 념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도전행위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올림픽위원회가 당국의 사촉밑에 모처럼 마련된 체육회담을

처음부터 파탄시키려는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꾸며낸 음모책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측은 회담에서 감행한 남조선측의 정치적도발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것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답할 대신 비방중상으로 일관된 정치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도저히 첫 회담을 진행할수 없게 만들었다.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의 첫 회담이 아무런 결실없이 끝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측에 그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후 성명이란것을 통하여 자기측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정치발언을 합리화하여나섰으며 아무런 태도변경도 보여주지 않았다.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와 그 이후의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출전하기 위하여 북남체육회담을 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의 발기이며 이러한 우리의 립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측이 체육회담장을 정치선전무대로 리용하면서 우리를 걸고들며 우리의 사회제도와 정치체제까지 모독하는 도전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한 도저히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없다고 인정한다.

유일팀구성을 위한 북남체육회담의 금후 전망은 전적으로 남조선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남조선측이 진실로 체육인의 립장에 서서 체육회담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지 않고 유일팀구성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려는 성의를 보인다면 언제나 그들과 회담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한다.

1984 년 4 월 10 일

평 양

2. 남조선측은 성실한 립장을 가지고 대답해야 한다.

(로동신문 론평, 1984. 5.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 일 남조선의 올림픽위원장에게 체육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표명하여 편지를 보내였다.

지금 내외여론과 세계체육계는 우리의 성의있는 립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편지에서 남조선측에 체육회담을 할 의사가 있고 민족앞에 유일팀을 내놓을 생각이 있다면 우리와 관련이 없고 체육회담과도 인연이 없는 사건들을 거듭 들고나와 우리를 비방중상하면서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치발언들을 철회한다는것과 다시는 체육회담을 반공, 반공화국 모략선전의 무대로 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우리측에 명백히 담보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회담에서 남조선측은 체육회담장을 하나의 정치적란동장소로 만듦으로써 문제토의가 이루어질수조차 없게 하였다. 그들은 첫 회담에 나오자부터 우리와 상관이 없고 체육회담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버마사건이요, 신상옥, 최은희문제요 하는것을 들고나와 체육회담을 정치화하려 하였다.

그들은 2차회담에서도 저들의 그릇된 자세를 버리지 않고 1차회담때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그에 대한 시인사죄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떠드는 한편 나중에는 우리의 존엄있는 정치체제까지 걸고드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반공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은자들만이 할수 있는 반민족적란동이다.

그들이 뻔뻔스럽게도 버마사건과 같은 저들의 자작극을 들고나와 남을 보고 시인사죄를 하라고 하며 이것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것은 회담을 파탄시키려는것이라고밖에 달리볼수 없다.

우리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편지에서 남조선측에 이러한 그릇된 자세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담보할데 대하여 요구한것은 어떻게 하나 체육회담을 진전시켜 겨레가 념원하는 민족유일팀을 내놓으려는 진지하고 성실한 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의 립장은 체육회담을 하자는것이고 민족유일팀을 내오자는 것이다.

지난 두차례의 회담과정으로 보아 회담이 성사되자면 최소한 남조선측에 지금까지의 부당한 립장에서 벗어나 회담자세를 바로 가질데 대한 담보를 우리측에 주어야 한다. 이것은 겨레의 요구이고 공정한 내외여론의 요구이다. 남조선측은 이에 대답해야 할 회피할수 없는 의무를 지고있다.

남조선측이 우리측이 요구한 담보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체육회담을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민족유일팀을 내올것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만약 남조선측이 우리가 요구하는 담보를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리해될수 없다. 남조선측은 회담을 파탄시킨데 대해 응당 책임지게 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

(1984. 6.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 23 차 로스안젤스올림픽경기대회에 가장 우수한 선수들을 파견하며 올림픽경기대회를 성대한 축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왔다.

특히 우리는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공동으로 출전할데 대한 온 겨레와 우리 체육인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북남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을 발기하고 그의 성과적진전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반공, 반사회주의 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응당하게도 많은 나라들이 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대회최종신청날자가 다가온 오늘까지도 사태는 개선되지 않고있다.

신성한 올림픽운동에 정치를 개입시키는것은 명백히 올림픽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선수들의 신변안전이 담보될수 없다고 인정한다.

특히 미국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의연히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우리 선수들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조성된 조건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우리 선수단의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 참가문제를 다시 검토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에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의 현상태에 대해서도 신중히 토의하였다.

오늘 북남체육회담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제의에 마지못해 응해나와서는 회담벽두부터 우리와 관련이 없을뿐아니라 체육회담과도 인연이 없는 정치문제들을 들고나와 도발을 일삼으면서 회담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체육회담을 정치화하려는 남조선측의 부당한 립장과 행위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되였던 체육회담은 세번씩이나 공전을 거듭하였으며 올림픽경기가 박두한 오늘까지도 유일팀구성을 위한 토의에서는 한걸음의 전진도 없다.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에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북과 남이 별개의 팀으로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에 나간다는것은 온 민족의 념원과도 배치되며 80 여만 미주지역동포들의 기대에도 어긋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이상의 제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기초우에서 제 23 차올림픽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올림픽의 고상한 리념은 존중되여야하며 그 헌장은 철저히 준수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마땅히 올림픽경기대회가 사상과 신앙, 정치적견해와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 선수들이 그 어떠한 정치적압력도 정신적, 육체적구속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곳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금후 올림픽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올림픽헌장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나라 민족올림픽위원회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조선의 북과 남이 민족유일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들에 나가자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이번에는 비록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였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온 겨레와 체육인들의 기대에 맞게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국제경기들에 민족유일팀으로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1984 년 6 월 2 일

평 양

수재물자 인도·인수를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984. 9)

1. 조선적십자회 실무접촉대표단장 성명

(1984. 9. 19)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8일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에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토의하는 실무대표접촉이 있었다.

근 40년동안의 민족분단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이러한 접촉을 가지게 된것은 참으로 뜻깊은 사변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측은 남조선수재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려는 동포애적인 념원으로부터 이번 접촉에서 구호물자의 수송 장소와 방도문제, 구호물자의 전달방법문제, 구호물자수송인원들과 적십자관계자들의 래왕절차 및 신변안전 문제 자동차와 배의 안전한 운행보장문제, 전신전화편의보장문제 등 5개항목의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남조선측도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주최문제와 시일문제, 물자의 운반수단과 인도인수장소문제, 통신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접촉에서는 쌍방이 제기한 실무절차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토의가 거듭된 결과 구호물자를 빠른 시일안으로 전달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해상과 륙로를 통하여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문제, 해상으로는 인천항과 북평항을 구호물자수송장소로 정할데 대한 문제, 구호물자의 인계인수주체로는 쌍방적십자단체들이 될데 대한 문제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접촉에서는 구호물자수송장소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서 남조선측의 부당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애당초 이번 접촉자체가 큰물피해를 입고 한시바삐 구제를 바라는 수재민들을 돕는 적십자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한 숭고한 사업인것만큼 문제토의에서 별 난관이 없이 한번의 접촉으로 결속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접촉과정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문제토의가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측은 처음에 해상수송만을 주장하면서 인천항만 리용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구호물자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배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도 배합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조선측은

결국 륙로수송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수재민들이 가장 많이 집결되여있는 서울이 아니라 판문점에까지만 실어다줄것을 요구하였다.

구호물자수송을 륙로로 하는데 동의하고서도 판문점에까지만 한정시키려는 남조선측의 이러한 립장은 사실상 자동차를 통한 륙로수송을 반대하는것이며 동시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구호물자를 전달하는데 합의하고서도 그것을 실제상 부정하는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는것이다.

피해지역현지까지 구호물자를 직접 실어다주는것은 한피줄을 이은 혈육들사이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할 응당한 도리이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여있는 구호물자취급에 관한 국제적십자의 일반 원칙과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은 우리의 동포애적립장과 적십자인도주의정신과는 상반되게 수송장소를 서울로 한다면 쌀 한알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재민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상대방의 성의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비록 우리의 동포애적립장에 리해를 표시하지 않고 성의를 성의로 대하지 않아도 인내성과 아량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서 문제토의를 진전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날 접촉에서는 남조선측의 완고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구호물자수송장소를 비롯한 나머지 실무절차문제들에서 더 이상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쌍방접촉에서는 립장상 차이도 있을수 있고 의견상 차이도 있을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협의를 진지하게 한다면 능히 합의에 도달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측은 지금 의견상이를 구실로 쌍방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려 하고있다.

18일 접촉이 끝난후 남조선측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측이 판문점까지 운반할데 대한 자기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21일접촉제의에 응하지 않을것이라고 공식표명하였다.

지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는 18일 성명에서 우리측이 마치 이번 접촉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것처럼 사실을 외곡하면서 접촉이 결렬된듯이 말하였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자기측의 주장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하

여 사실을 날조하여 상대측을 비방하고 쌍방접촉마저 계속하지 않으려는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수 없다.

이것은 대화와 접촉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례의에도 어긋나는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구호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그들의 당초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행동이다.

남조선측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있는 수십만 리재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적십자본연의 인도주의적정신을 저버리지 말아야하며 더우기 이번 접촉이 오랜 민족분렬력사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의미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이번 접촉은 구호물자의 인도인수장소문제와 같은것으로 하여 결렬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나 쌍방접촉에서 일방이 접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한 문제토의를 계속할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제물자를 보내주는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측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는데서 신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불편한 점도있지만 어떻게 하나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념원으로부터 남조선측이 요구하는 인천, 북평, 판문점에 구제물자를 조속히 실어갈 것이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남조선측에 따로 통지할것이다.

2.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담화

(1984 . 10. 3)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낼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결정과 북, 남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우리의 구호물자를 남조선측에 전달하는 사업은 지금 내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판문점에서는 예정된 구호물자전달사업이 이미 끝났으며 인천항, 북평항에서도 거의 끝나가고있다.

인천에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우리측 선박들의 첫 진은 지금 해상분계선을 넘어 귀항중에 있다.

우리의 동포애적인 조치가 이번에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게 된것은 남조선의 수재민들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민족적인 견지에서도 더없이 기쁜일이다.

근 40여년간의 랭엄한 민족분렬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동포애의 뜨거운 정이 오고간 이 감격적인 사변을 두고 지금 온 나라가 환희에 휩싸여 있으며 세계인민들도 한결같이 기뻐하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구호물자를 마련해 보내는데 온갖 성의를 다하고 열렬한 성원을 보내준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개성, 남포, 원산, 해주, 흥남시민들을 비롯한 각계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

아울러 구호물자전달사업에서 우리측 일군들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남조선측의 적십자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구호물자들이 남조선측에 가닿은 이 시점에서 그 귀중한 물자들이 하루빨리 수재민들에게 분배되여 겨울을 앞둔 그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물론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념원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그 의의는 결코 인도적인 구제사업의 범위에 국한되는것이라고만 볼수 없다.

북과 남의 겨레들이 수십년에 걸친 격폐상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참다운 동포애의 정을 주고받게 된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는 고무적인 사태발전이다.

지금 세계인민들은 금후 조선반도 정세의 향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의 뜻깊은 인도주의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합작, 단결, 통일을 지향하는 새 력사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이 중대한 시점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 긍정적인 현 사태발전을 적극 추동하여 하루빨리 북과 남의 민족적뉴대를 회복하고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전진적인 자세에 등을 돌리고 오늘에 와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의 선의를 선전이니 평화공세니 하는 낡은 곡조로 비방하면서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이미 세상에 명백히 밝혀진것처럼 우리의 이번 인도주의적발기는 빈말로 하는 선전도 아니며 딴 속심에서 나온 평화공세도 아니다.

우리는 한피줄을 나눈 혈육앞에서 거만한 시혜자로 나설 생각도 없다.

우리에게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직 재난당한 혈육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동포애의 정이 있을뿐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편견을 털어버리고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들이 이미 내디딘 귀중한 첫걸음을 통일을 향한 거족적인 대행진에로 이어나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번의 력사적인 사변이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험난한 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전환적계기로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이와 같은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우선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의 직통전화를 이번 구호물자전달기간뿐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직통전화를 통하여 서로 련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측과 협의를 진행해나갈것이다.

북과 남사이는 인도주의적문제뿐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발맞추어 경제분야에서도 자원을 공동개발하고 호상협조와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쌍방간의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체육회담도 재개하고 문화분야에서의 합작과 교류도 조속히 실현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뉴대를 강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게 될것이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될것이다.

누구도 단일한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을수 없으며 하나로 잇닿은 동포애의 정을 끊어놓을수는 없는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운을 끝장내고 하나의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이 꼭 오리라고 믿는다.

3. 우리는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로동신문 사설,1984. 10. 6)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인도사업이 끝났다.

남조선측은 우리가 신고간 5만석의 쌀과 50만메터의 천, 10만톤의 시멘트와 14종 759지함의 의약품에 대한 인수를 확인하는 증서를 우리측에 넘겨주었다.

국제적십자련맹대표단과 세계보건기구대표단 성원들이 구호물자에 대한 검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지에서 또한 물자인도인수사업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남조선에 보낸 구호물자는 남조선측이 최종집계하여 발표한 리재민수에 비추어볼 때 5인가족으로 계산하여 가구당 쌀은 약 250키로그람(5가마니), 천은 17메터 차례지는것으로 되며 시멘트는 약 3만동의 살림집을 신축할 수 있는 량이다. 의약품도 수해지역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우리의 구호물자는 결코 적은량이 아니다. 그것은 리재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것이다.

우리가 보낸 구호물자가 남조선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된 조건에서 이제 남은 문제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재민들의 손에 가닿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것뿐이다.

구호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해지역까지 물자를 직접 수송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실현될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이것은 남조선측이 해야 할 일로 남아있게 되였다.

지금 남조선의 여러 수해지역에서는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수많은 리재민들이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측이 인도받은 구호물자가 전량 리재민들의 고통을 가시는데 기여하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강구할것을 요구한다.

남조선측이 우리 인민의 지성이 깃든 구호물자가 최단기간내에 리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것은 리재민들과 인도주의앞에 지닌 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구호물자전달사업은 순탄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구호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는 그 실현에 난관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민족내부에 불신감을 조장시키기 위한 계기로 리용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리재민들을 구호하겠다는것이 위장평화공세라고 하였으며 수해현장까지 직접 구호물자를 수송하겠다는 우리의 제의가 정치선전을 위한것이며 남진시도를 드러낸것이라고 비방하였다.

그들은 구호물자를 실은 우리의 선박과 차량의 출발을 앞두고도 있지도 않는 간첩사건을 날조하고 우리를 비방하면서 호전되여가는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

우리의 구호조치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취해졌다.

우리 인민은 국토의 인공적인 분렬로 말미암아 북과 남으로 헤어져사는 겨레의 혈육의 정이 이어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분렬주의자들이 조성해온 장애를 극복하고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구호물자인도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자기앞에 부과된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력사는 근 40년의 분단사에 처음으로 되는 이 획기적사변에 대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구호조치는 흩어져사는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베풀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동포애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가 남조선리재민들에게 적지 않은량의 구호물자를 짧은 기간에 마련하여 보낼수 있은것은 또한 리재민들을 도우려는 뜨거운 혈육의 정과 함께 북반부에 위력한 경제적잠재력이 있기때문이다.

실로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조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덕성과 위대한 동포애,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나라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되지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수재민구호사업을 통하여 동포들사이에 혈육의 정을 나눌수 있은것은 끊어진 민족의 뉴대가 다시 이어지기를 열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경사이다.

우리 인민은 그것이 남북으로 헤여진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적 화목과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구호사업이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전환점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직통전화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한편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 체육회담의 재개, 문화분야에서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뉴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될것이다.

북과 남이 불신과 오해를 풀고 신뢰와 리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우리는 모든것을 다할 용의가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며 주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조치는 실현되였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력사적과업은 의연히 그대로 남아있다.

겨레들의 고통을 가시는 사업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문제의 해결과 따로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도주의문제도 나라의 통일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리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주의사업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어져야한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이 숭고한 위업은 어느 한 계층이나 당파의 리해관계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거족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갈라진 조국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비록 사상과 리념, 제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북과 남이 력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공동의 조국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선포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공통점을 찾고 힘을 합친다면 능히 분렬의 장벽을 마스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합작과 단결로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 것을 주장하였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은 분렬이 지속되는 과정에 북과 남사이에 쌓이고 덧쌓인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하는 기초우에서만 가능하며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

를 해소하여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있는것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을뿐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이 근본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의한대로 우리와 미국, 남조선당국이 3자회담을 가지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평화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어야 남북으로 갈라져사는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릴수 있다.

오늘에 와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는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바로 3자회담이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3자회담이 실현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가 마련되면 북과 남은 통일대화를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원칙에 따라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게 될것이다.

남조선리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이번 구호사업은 혈육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심정과 숭고한 인도주의 민족의 뜨거운 성원과 정의와 인도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실현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분렬의 장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남북겨레사이에 오고가는 혈육의 정은 가로막을수 없으며 인민들이 자기 힘을 믿고 굳게 단결하면 우리앞에 가로놓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수 있으며 한겨레사이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북과 남의 전체 애국력량이 하나로 굳게 단합한다면 우리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어떠한 방해책동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다.

력사적으로 한가지 말과 글자를 가지고 같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계속 갈라진채 산다는것은 더는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이번의 뜻깊은 사변을 계기로 삼천리강토우에 외세가 없고 분렬의 고통이 없는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남 북 경 제 회 담

(1984. 11～1985. 11)

1.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방안

(해설, 1984.11.19)

15일 판문점에서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할데 대한 첫 북남경제회담이 진행되였다.

우리측의 주동적인 발기와 성의있는 노력으로 마련된 이번 회담은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조치가 실현된후 북남관계에서 발생한 또하나의 특기할 사변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은 경제분야에서의 합작과 교류를 지향하여 북과 남의 대표들이, 마주앉게 된데 대하여 큰 관심을 표시하고 이번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있다.

그동안 북과 남사이에는 교착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차례의 접촉과 대화가 거듭되였지만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향하여 쌍방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 40년만에 마련된 북남경제회담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것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남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적 뉴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고 단결하여 북남관계를 개선발전시키며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고 나라의 통일위업 촉진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다.

북남경제회담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도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 출발하여 대화에 림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경제분야에서 북남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방안은 이러한 립장을 구현한것이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경제합작과 교류를 원활히 해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함께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합작에서 지하자원을 공동으로개발리용하며 어업과 농업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자교류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원자재와 완제품, 농수산물을 유무상통하되 원자재는 원자재와 교류하고 완제품은 완제품과 교류하며 농수산물은 농수산물과 교류할데 대한 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제시한 방안은 하루빨리 북과 남사이에 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립장을 반영한것으로 북과 남의 경제적 신뢰와 남측의 실정을 다같이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이며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북과 남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강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남경제합작과 교류와 관련한 우리측의 방안은 전체 조선인민과 공정한 내외여론의 지지와 공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교역이 아니라 단일민족 내부에서의 합작과 교류인만큼 그것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 데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 현실적으로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을 실현하여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끊어진 경제적 련계를 회복하며 분렬로인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리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또한 북과 남이 합작을 실현해야 나라의 풍부한 물적 인적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합쳐 과학과 기술,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도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참으로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방안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수 있게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물자교역만으로는 북과 남으로 끊어진 경제적 련계를 다시 이을수 없다. 그것은 경제분야에서 북과 남의 분렬을 고착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북남경제회담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남경제회담의 막이 오른 이후에도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비방하며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반공선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공선전은 대화의 전진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을것이다. 북남경제회담의 성과적 전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리라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경제회담을 성공에로 이끌며 북과 남사이에 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2.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를 포괄적으로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한 정당한 제안

(로동신문 론평, 1985.5.20)

제2차 북남경제회담이 17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지난해 11월 15일에 북과 남의 경제인들이 판문점에서 첫선을 보인후 남측의 대결과 전쟁 소동으로 반년동안이나 중단되였다가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다시 열리게 된것으로 하여 회담은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북남국회회담이 하루빨리 열려 북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가 도모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여 평화통일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될것을 바라며 경

제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있다.

북남경제회담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은 민족의 이 크나큰 기대와 절절한 요청에 부합되게 경제회담을 잘하여 반드시 민족앞에 귀중한 선물을 내놓으려는 립장에서 대화에 림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북남경제교류와 협력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대책으로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은 바로 이러한 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조선이 경제적으로 합작하여 우리에게 많은것은 남조선에 주고 남조선에 많은것은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남북조선의 경제는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끊어졌던 경제적뉴대를 잇고 나라의 통일위업촉진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이날 제2차 북남경제회담에서 우리측은 북과 남사이에 경제합작과 교류문제를 능률적으로 협의해결하며 북남사이의 경제문제를 통일적으로 지휘조절할수 있는 높은 급의 권위있는 협상 및 리행기구로서 쌍방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시급히 발족시킬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은 이날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세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원만히 추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합작과 교류의 방향과 방법도 명백히 밝혔다.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을 관통하고 있는것은 높은 급의 권위있는 공동기구를 하루빨리 내오고 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제합작과 교류의 판을 크게 벌리자는 것이다.

우리측이 제기한 새로운 제안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과 교류를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진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경제

문제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폭넓은 규모에서 빨리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이며 끊어진 경제적뉴대를 잇고 북남관계 전반을 개선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어야 할 북남경제합작과 교류의 근본사명과 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제안이다.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내오는것은 그 구성과 기능, 운영의 합리성으로 보나 경제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처리할수 있는 책임적인 인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내올데 대한 현실적 요구로 보나 현시기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우리측이 내놓은 북과 남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합작과 교류의 방향과 방법도 분렬된 우리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진취적인 발기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내오고 경제합작과 교류를 폭넓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데 대한 우리측의 방안은 전체 조선인민과 공정한 내외여론의 일치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교역이 아니라 단일 민족안에서의 합작과 교류인만큼 그것은 민족적뉴대를 회복하고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조성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장벽을 마스고 경제합작과 교류문제를 포괄적으로 통이 크게 벌려 민족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높은 급의 권위있는 협의체를 내와야 한다.

참으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내오고 합작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게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권위있는 경제협의체를 내오고 경제합작과 교류를 원

활히해 나갈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을 접수하는것을 회피하고 순차와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상품교류문제나 토의하자는 남측립장의 불합리성을 밝히고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내와야 할 필요성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의 기대속에 속개된 북남경제회담을 성공에로 이끌며 북남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남쌍방의 경제인들이 호상리해와 협조의 분위기속에서 상정된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해결하여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회담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

(민주조선 글, 1985.6.23)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제 3차 북남경제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남측이 제 2차회담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에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쌍방간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해서와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북남경제회담에서 이룩된 일보의 전진으로 된다.

이번 회담에서 이미 우리측이 제 2차 북남경제회담에서 제기한 전진적인 제안에 남측이 동의해나선것은 북남경제 합작과 교류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일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측 제안의 정당성을 확증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합작과 교류를 널리 실현하여야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분야에 걸

쳐 민족적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과 교류는 다른 나라들과 가지는 경제관계와는 달리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끊어진 경제적 관계를 회복하며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지난해 11월 우리 민족의 근 40년간의 분단력사에서 처음으로 북남경제회담이 마련된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립장과 주동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경제회담을 귀중히 여기고 하루빨리 성공에로 이끌어 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1차회담에서 경제합작과 교류를 원활히 해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을 제기하고 이에 기초하여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제2차 북남경제회담에서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올해에 경제회담을 잘하여 민족앞에 귀중한 선물을 내놓으려는 열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남경제 합작과 교류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대책으로서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시급히 발족시킬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이 제2차 북남경제회담에서 제기한 새로운 제안은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경제문제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폭넓은 규모에서 빨리 해결할수 있게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이며 끊어진 경제적뉴대를 잇고 북남관계를 개선발전시키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 실질적인 보탬을 주어야 할 북남경제 합작과 교류를 근본사명과 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제안이다.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내오고 경제합작과 교류를 폭넓고 통이 크게 벌려

나갈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은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공정한 여론의 일치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소극적인 교류 일면만 주장하고 합작을 차요시하며 경제협의체를 내와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순차와 단계만을 주장하던 남측도 이번 북남경제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에 동의해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의 정당성과 견인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북남경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협의에서는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북과 남이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처리할수 있는 인원들로 구성할데 대한 문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가 경제협력 및 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며 그 실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 구성과 기능, 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 문제들을 밝히였다.

우리측이 내놓은 합의서 초안에 밝혀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들이 실천에 옮겨지면 북남경제 합작과 교류가 성과적으로 진척될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민족적뉴대를 회복하고 조국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북과 남의 경제인들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기초하여 호상 리해와 협조의 분위기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 해결함으로써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4. 북남경제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해설, 1985.11.16)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서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첫 북남경제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

이기간 4차례에 걸치는 북남경제회담이 진행됐고 거기서는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담의 진전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북남경제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서 좋은 결실을 맺게되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내외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에 비추어놓고 볼때 북남경제회담은 아직 원만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화에 림하는 남조선측의 부당한 립장과 자세와 관련되여 있습니다.

아시는것처럼 북과 남이 합작하고 단결해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를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측은 회담의제를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로 할것과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데서 쌍방이 지켜야할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어업과 농업분야에서 합작하고 물자교류도 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들은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하루빨리 실현해서 그것이 조국통일의 디딤돌로 되게하려는 우리의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남조선측의 실정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이며 북과 남의 경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하는 정당

한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측은 의정문제에서 북과 남사이의 물자교역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로 갈라놓고 물자교역부터 하고 앞으로 경제협력도 해보자고하면서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집해나섰습니다.

물자교역만으로는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련계를 다시 이룰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경제분야에서도 북과 남의 분렬을 고착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가 하면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그무슨 순차니, 단계니 뭐니 하는것을 운운하면서 상품교류만을 주장해나섰습니다.

남조선측의 부당한 대화자세는 제 4 차 북남경제회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연탄을 팔아주고 경의선을 연결할데 대한 문제를 들고나와 내외여론의 이목을 끌어보려고 획책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제 3 차 북남경제회담에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된 이상 거기에서 응당 토의결정되여야 할 문제인데 남측은 그것을 들고나와 회담앞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회담을 예정대로 진척시킬수 없게했던것입니다.

남조선측이 진실로 북남경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과 자세로 대화에 림했더라면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는 벌써 오래전에 작성되여 발표됐을것입니다.

북남경제회담이 응당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것은 또한 남조선괴뢰도당이 대화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킨데 있는것입니다.

아시는것처럼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척되자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와 함께 대화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미제와 전○○괴뢰도당은 지난해 11 월

판문점총격사건을 일으킨데이어 올해초에는 또다시 우리를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85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 갔습니다.

놈들의 이러한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경제회담은 반년동안이나 지연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북남경제회담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면서 남조선측이 그릇된 대화자세와 립장을 버리고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뉴대를 다시 잇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북남경제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립장으로 림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측은 내외인민들의 이 응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5. 립장과 자세문제이다

(로동신문 론평, 1985.11.21)

제5차 북남경제회담이 20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쌍방의 합의서초안에서 차이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토의를 끝냄으로써 실무자들이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올해안으로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립장으로부터 문제토의에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남측이 우리의 성의에 성의로 대하지 않고 문제토의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이날 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전진을 보지 못하였다.

경제회담이 시작되여 1년이 지나도록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토의를 새해로 넘기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날 남측은 거래방식과 결제운영문제 등 실무자급에서도 간단히 토의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포함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들고나와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였으며 이것을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응당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질질 끌면서 문제토의를 지연시켰다.

례컨대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북과 남이 40년만에 처음으로 경제관계를 맺게되는 조건에서 경제협력과 상품교류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원칙을 한개 조항으로 명기하는것이 필요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북과 남이 경제관계를 맺는데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존중하는것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빼자고 우기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이였다.

또한 교류품목을 구체적인 토의도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합의서에 밝히는것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것을 찍어넣자고 함으로써 문제토의를 지연시켰다.

이날 남측이 취한 회담자세는 한마디로 말하여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하루빨리 내옴으로써 북남겨레들에게 기쁨을 주자는것이 아니며 북과 남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이 크고 폭넓게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에도 이바지하는 립장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일당이 앞장서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있으며 그 수급졸개들이 또한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북과 남이 화합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두개 조선을 설교하고있다.

이날 회담에서 남측이 취한 태도는 대결과 분렬만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민족적자세의 표현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남측이 북남경제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존중할데 대한 문제를 명기하는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인것도 합의서초안끝에 쌍방대표단을 호칭함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처럼 표기하고있는것도 그들의 이런 자세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남측은 쌍방의 경제관계를 통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옳은 립장을 가지고 회담을 대해야 할것이며 상대방의 성의에 성의로 대하는 성근한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림해야 할것이다.

남 북 적 십 자 회 담

(1985. 5 ~ 1985. 12)

1.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

(로동신문 글, 1985.5.28)

오늘부터 서울에서 제8차 북남적십자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제7차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12년만에 열리는 본회담이다.

오래동안 중단되였던 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것은 좋은 일이며 환영할 만한것이지만 거기에는 응당 되새겨야 할 교훈도 없지 않다.

국토의 인공적분렬로 말미암아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발전시키며 민족통일의 길을 개척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북과 남사이의 뉴대회복을 위한 일련의 현실적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가 1971년 8월 6일 남조선측에 제기한 폭넓은 협상방침은 북남대화를 마련하는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북남적십자회담은 북과 남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념원으로부터 발기되였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의 래왕과 호상방문, 서신거래, 상봉과 재결합을 예견한 우리의 인도주의적이며 동포애적인 발기와 그의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1971년 9월 판문점에서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비회담을 거쳐 1972년 8월부터 본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회담에서 우리는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 사이의 상봉과 재결합문제가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적십자인도주의정신이 철저히 구현되는 원칙에서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수 있으며 나아가서 적십자인도주의사업이 조국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도 이바지할수 있다.

적십자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제의는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발기일뿐아니라 남측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훌륭한 발기였다.

남측은 우리의 제의에 동의하였으며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적십자회담은 7차회담을 고비로 중단되였다.

회담에서는 일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지만 실천된것은 없고 회담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동포애,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인도주의가 강조되였지만 회담장밖에서는 다른 현상이 빚어졌다.

쌍방적십자단체 대표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인도주의문제를 론의하고 있을 때 남조선방송과 출판물들에서는 대화있는 대결과 그를 위한 실력배양, 국군현대화와 총력안보등의 구호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공선전이 거듭되고 거리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우리와의 대화촉진,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가해졌다.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조치는 적십자인도주의사업과는 물론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도 배치되는것이였다.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사태발전은 마침내 적십자회담을 더는 이어갈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12년전에 있은 일이라고만 볼수 없다.

류사한 사태가 오늘도 남조선에서 계속되고있다.

남측은 말로는 서로 반목하지 말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행동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며 북남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길로 나가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조치를 계기로 다시 열리게된 적십자회담에 역시 그러한 자세로 림하였다.

그들은 적십자회담을 이어가기 위한 예비접촉이 있은 직후인 지난해 11월

판문점회의장구역에서 총격사건을 일으켰다.

북과 남사이에 회담이 마련된 조건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는것과 같은 엄중한 사건을 일으킨것은 사실상 회담자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것이였지만 우리는 회담을 구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모든것을 참고 회담장에 다시 나가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후 다시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팀스피리트 85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모처럼 마련된 적십자회담을 6개월이나 중단시켰다. 합동군사연습이 끝난후에도 남조선에서 멸공 85를 비롯한 회담일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이 거듭되였다.

적십자단체들의 접촉이 마련된 후 오늘까지 남조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남조선측이 과연 우리와의 회담을 통하여 흩어져 사는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통일문제해결에도 기여하려는 의사가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한다.

대화는 대화분위기가 원만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북남대화는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더욱 그러하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대방에 의심을 품게 하는 언동을 일삼는것은 대화를 위한 자세라고 볼수 없다. 지금까지 북과 남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진행되였으나 그 어느 하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은 북남대결을 추구해온 남조선측의 부당한 립장에 그 원인이 있다.

북과 남이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발전시키며 통일문제해결의 평화적국면을 개척하는것은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 요구는 쌍방이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반목과 대결을 종식시키며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대국적립장에 서는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남조선측이 적십자회담의 성과적진전을 위하여 대결자세를 버리고 진지한 립장에서 회담에 림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인도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안

(로동신문 론평, 1985.5.30)

북남적십자회담 제 8차회의가 2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7차회담이후 중단되였다가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2년만에 다시 열린것으로하여 회담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들과 전세계인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회담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은 적십자회담을 성공에로 이끌어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립장에서 대화에 림하였다.

첫날회의에서 인도적문제해결의 폭을 넓히면서 상정된 모든 문제들을 통이 크게 신속히 풀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은 바로 이러한 립장을 구현하고있다.

이날 우리측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바 있는 5가지 문제를 통털어 일괄토의하며 5가지 의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가장 선결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로 되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하는 문제를 남측에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의제 1항부터 5항까지를 일괄토의할것과 자유래왕절차, 자유래왕자의 범위, 자유래왕에 대한 편의 및 안전보장등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에 의하여 가족, 친척, 친우들의 래왕이 실현되고 또 앞으로 보다 더 광범한 래왕이 실현된다면 남북사이의 리해가 더 깊어지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공통점을 더 많이 찾게 될것입니다.》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을 관통하고있는것은 지난날의 진부한 방식을 버리고 인

도적문제해결의 폭을 넓히면서 상정된 문제들을 통이 크게 신속히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5가지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무엇보다도 온 겨레와 특히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절박한 념원을 가장 빨리 실현시킬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제안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본의 아니게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이 수없이 많다. 40년전 헤여질 때 청춘기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환갑, 진갑을 지내고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제나라, 제땅 그 어디나 자유로이 오가며 친혈육들을 만나 회포를 나눌 그날을 고대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회담들에서처럼 의제를 순차에 따라 한조항씩 내려가면서 토의한다면 시간이 무한정 걸릴뿐아니라 어느 한 의제토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다른 의제는 론의도 해볼수없게 되며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써는 세월을 끌뿐 언제 가도 흩어진 겨레의 념원을 풀어줄수 없다.

종전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의제들을 통털어서 일괄토의하는것은 합의된 사항들을 단시일안에 해결하고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로 된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또 5가지 의제에 포함되여있는 인도적문제들을 동시에 다같이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인 제안이다.

지금 북과 남으로 흩어져사는 가족, 친지들은 북남사이에 장벽이 터지고 래왕의 길이 열리면 자기의 혈육들을 찾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상봉도 하며 성묘방문도 하고 필요하면 재결합도 할수있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풀어줄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바로 그들이 북과 남으로 자유로이 래왕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우리의 이번 제안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도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제안이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기때문에 말도 같을뿐아니라 흩어진 가족, 친척들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을 찾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며 인도주의회담이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 더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국해방 40돐을 맞이하는 올해 8월에 쌍방 적십자단체 위원장(총재)들이 각기 적십자회원들로 구성된 100명정도의 예술단을 대동하고 상대측지역을 호상 방문하여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자는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의 이 제의가 실현되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며 적십자인도주의회담의 분위기를 한층 좋게 돋구어주고 회담자체를 성공시켜나가는데 긍정적작용을 하게 될것이다.

참으로 우리측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은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그리고 폭넓게 덜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가장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기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미 상정된 5가지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측의 새롭고도 획기적인 제안은 전체 조선인민과 공정한 내외여론의 일치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측의 거듭되는 주장과 꾸준한 해설에 따라 남측은 2일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5가지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겨레들이 겪고있는 가슴아픈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는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인도주의적사업으로, 분렬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첫째가는 민족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모두는 북남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효률적으로 진척되여 빠른 시일안에 성공하게 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우리는 온 민족의 이러한 념원을 반영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십자회담의 성과적진전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할것이며 성스러운 인도주의 공동위업의 수행을 위하여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대결은 겨레에게 더 큰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고 인도주의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밖에 빚어낼것이 없다.

우리는 남조선측이 인도적문제뿐아니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립장에 서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있다.

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 311호

(1985.6.4)

서울에서 있은 북남적십자회담 제 8차회의가 끝나고 회담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돌아온후 남조선에서는 이번 회담과 관련하여 우리를 헐뜯는 반공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어용언론을 동원하여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흩어진 겨레의 재결합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대남적화 전략에 따라 반미·반정부 기운을 조성시키고 3자회담과 북남국회회담을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는 보았으나 그것이 실현되려는지는 미지수라느니 뭐니하는 여론을 퍼뜨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 적십자회 대표단이 서울을 떠나온 이튿날인 지난 5월 31일에는 4백여명의 월남자들로 이른바 호국운동협의회라는 것을 무어놓고 반공정신으로 굳게 뭉치자며 악에 받쳐 고아대며 반공·반공화국 소동을 벌렸다.

이것은 12년만에 다시 열린 북남적십자회담 제 8차회의의 성과를 흐리게 만

들고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신뢰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 배치되게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마주 앉아서는 좋다고 합의하고 돌아앉아서는 시비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실치 못한 태도이다.

진정으로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려 한다면 마땅히 회담에서 합의를 본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회담이 끝나자 반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을 내놓고 갈라진 혈육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공화국에로 쏠리는 민심을 돌려세워 보려는 술책이며 올해에 더욱 세차게 전개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반미·반파쑈투쟁으로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이다.

사태는 남조선측이 내외여론이 두려워 회담장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이행할 생각이 없어 다시 뒤집어 엎으려는 불순한 기도를 품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남조선측은 우리와의 대화에서나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중하고 성실해야 할 것이다.

1985년 6월 4일

평 양

4. 자유래왕을 실현하여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

(로동신문 론평, 1985.8.27)

오늘부터 평양에서는 온 겨레의 관심속에 북남적십자회담 제9차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8차회의에서 토의한 기본문제 즉 의제토의를 계속하게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있은 북남적십자회담 제 8 차회의에서 우리측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바 있는 5가지 문제를 통털어 함께 토의할것과 5가지 의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방도로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자유롭게 래왕하도록 하자는것을 남측에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이와 관련하여 자유래왕절차와 자유래왕자의 범위, 자유래왕에 대한 편의 및 안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의 이 새로운 제안은 북남적십자회담 제 2 차회의에서 토의합의한 원칙 즉 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7.4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인도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합의사항에 전적으로 부합될뿐아니라 국제적십자원칙에도 맞는다.

5가지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기본방도로 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온 겨레와 특히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절박한 념원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제안이다.

북남으로 흩어진 겨레는 실지 고통받고있는 당사자인만큼 적십자회담에서는 응당 그들의 절박한 요구와 의사에 맞게 모든것이 토의되고 합의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은 장장 4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젊은 나이에 헤여진 남편과 안해들의 머리엔 어언 흰서리가 내려앉았고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이날이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다. 그들은 생전에 제고향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그리운 가족, 친척들과 만나 회포를 나눌 그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시기처럼 의제를 순차에 따라 한조항씩 토의한다면 시간이 무제한 걸릴뿐아니라 어느 한 의제토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다른 의제는 론의조차 해볼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회담을 세월없

이 무한정 끌게 되며 따라서 언제 가도 흩어진 겨레의 절박한 념원을 풀어줄수 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의제토의를 종전의 진부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5가지 의제를 통털어서 일괄토의하는것은 합의된 사항들을 단시일안에 해결하고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줄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도로 되는것이다.

지난 1970년대초에 북남적십자회담 제3차회담부터 쌍방이 의제 제1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결렬된채로 12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낸 심각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의제를 일괄토의하면서 자유래왕을 기본방도로 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은 5가지 의제에 포함되여있는 인도적문제들을 동시에 다같이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제안이다.

지금 북남으로 흩어져사는 가족과 친지들은 북과 남사이에 장벽이 터지고 자유래왕의 길이 열리면 자기 혈육들을 찾고 그자리에서 방문도 상봉도 하며 필요하면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수 있는 최선의 방도가 바로 자유래왕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으로 흩어져사는 가족, 친척들은 북남사이에 자유래왕의 길이 열리면 서신거래도 할수 있고 자기의 혈육을 찾기도 하고 상봉도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으로 자유로이 오고가며 혈육을 찾을수 있는 통로만 열리면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와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가 다같이 직접 실현될것이며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현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들도 원만히 마련될수 있는것이다.

의제를 일괄토의하면서 자유래왕을 기본방도로 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은 우

리 나라의 구체적 실상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인 제안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본의아니게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이 수없이 많다.

북남적십자단체들이 회담에서 다루고있는 인도적문제는 몇천명이나 몇만명밖에 안되는 다른 나라의 리산가족문제와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수자를 안고있다.

남측에서 이야기되고있는데 의하면 북남으로 갈라진 가족이 1천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난 시기 남조선적십자사측이 주장한대로 문서교환방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찾자고 하면 1년에 10만명씩 찾는다고 해도 100년이 걸려야 하며 100만명씩 찾는다고 해도 10년이 걸려야 할것이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한가지 말을 쓰는 단일민족이기때문에 그누구보다도 흩어진 가족, 친척들 자신이 직접 제발로 다니면서 자기의 혈육들을 찾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만큼 적십자단체들의 방조밑에 당사자들이 북과 남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가족, 친척들을 찾게 하면 우선 믿음성이 있어 좋고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정력과 시간도 절약할수 있게 되는 등 여러모로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다.

참으로 의제토의와 관련하여 내놓은 우리측의 제안은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그리고 폭넓게 덜어주려는 애국애족의 일념과 인도주의정신으로 충만된 가장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발기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난번 8차회의에서 제기되는 의제를 1항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토의하자고 하던 남측도 이미 합의한 5가지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그 방도로서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립장을 밝혔던것이다.

4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절박한 념원을 실현하는 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사업으로, 분렬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절박한 민족적과제로 나서

고있다.

북남적십자단체들의 회담에서 다같이 협력하여 도달해야 할 목표는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고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쌍방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데로 나서야 하며 평화지향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립장과 자세를 지켜야 한다.

자기의 민족적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은 온 민족의 기대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북남적십자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과 남 쌍방적십자단체들이 호상 리해와 단결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효률적으로 진전시켜 상정된 모든 문제들을 단시일안에 토의해결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민족적, 인도주의적 사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민족앞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있다.

5.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

(로동신문 론평, 1985.8.29)

북남적십자 제9차회담 둘째날회의에서 우리측은 남조선적십자사대표단이 27일 집단체조 빛나는 조선 관람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장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이 5만명 집단체조출연자들과 10여만 관중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응당한것이다.

남측적십자사대표단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조직된 집단체조관람을 중도에서 포기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불손한 행동이며 초보적인 례

절도 없는 오만무례한 행동이다. 이것은 상대측 지역에 가서 초청측의 안내에 따르도록된 합의사항에도 위반된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에 대한 혈육의 정을 안고 집단체조를 성의껏 준비하고 출연한 5만명 학생소년들과 경기장에 들어서는 남측일행을 우렁찬 박수를 보내며 뜨겁게 맞이했던 10여만 관중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성의를 짓밟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분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남측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력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등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나 자기들의 잘못을 변명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의 제도의 차이가 그런 후과를 빚어냈다고 하면서 쌍방에 다 책임이 있는듯이 말했는가 하면 정치성이니 합의위반이니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하였으며 지어는 소년들이 군사훈련을 하는것을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도발을 걸려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비틀어진 소리이다.

40년간에 걸치는 분단의 지속은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를 가져왔다. 쌍방적십자단체들은 그것을 초월하여 회담을 시작하였다. 남측도 첫날 회담에서 스스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도주의적립장에서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자고 몇번이나 말하였다. 더우기 집단체조에는 남측의 제도를 비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제도의 차이를 운운하는것은 몰상식한 행동을 저들이 하고 그 책임을 나누어지자고 해서 고안해낸 생억지이다.

남측은 집단체조배경대에 나오는 글발이나 집단체조를 하는 학생들이 들고나온 공화국기발등을 례로 들면서 이른바 정치성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 역시 황당한 소리이다.

남측이 트집잡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내용의 글발들은 개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양에 오기까지 도처에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남측은 벌써 돌아섰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남측은 적십자사업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상대측이 성의껏 준비한 관람행사장에서 퇴장한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인도주의 사업에 정치를 개입시킨 자가당착의 행동이다.

더우기 분개하게 하는것은 남측의 일부 사람들이 조국광복을 가져온 조선애국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한 장면을 두고 소년들의 군사훈련을 보여주었다고 하며 시비한것이다.

남측은 조선애국자들의 영광스러운 투쟁을 보여주는 장면을 왜 그토록 못마땅해하며 걸고들려하는가. 이번 집단체조는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준비한 것이지 남조선적십자사대표단을 위해서 일부로 준비한것이 아니다. 일부러 트집을 걸어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며 역선전으로 사태를 오도하려는자들만이 그것을 시비할수 있다.

회담장안팎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아 남측은 회담을 성사시켜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트집을 잡고 회담앞에 장애를 가로지르기 위해온것 같다.

남측은 말로는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래왕도 하고 고향마을에도 가게 하자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이 빈말공부이고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밖에 볼수 없다.

체육경기장안에서 진행되는 집단체조 하나를 보고도 놀라서 펄쩍 뛰며 중도에 퇴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자유래왕을 실현할수 있고 고향마을에 가게 할수 있으며 겨레의 고통을 폭넓게 덜어줄수 있다는 기대를 걸겠는가.

남측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응당 사죄해야 한다. 남측은 제 9 차회담에서 다음회담날자를 정한외에 겨레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아무런 합의도 이룩할수 없게 하고 회담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데 대해 또한 책임져야 한다.

6. 우리의 제안에 왜 등을 돌려 대는가

(로동신문 론평, 1985.12.5)

3일 서울에서 열렸던 북남적십자회담 제10차 회의가 4일에 끝났다.

회담은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어떤 합의도 이룩하지 못하고 다음 회담날자만을 정한채 막을 내렸다.

이렇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배신행위와 불온당한 대화 자세이다.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측은 제8차 회담에서 의제 일괄토의, 자유래왕 문제가 합의된 조건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자유래왕에 관한 합의서안과 자유래왕 이외의 기타 방도에 관한 제안, 쌍방 대표단이 평양과 서울을 비행기로 오고갈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5개 의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인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하는 문제부터 토의할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의 이 정당한 제안에 호응해나설대신 9차회담에서 내놓았던 3개안의 문구나 일부 수정하여 다시 들고나와 그것을 토의하자고 고집해 나섰다.

남측 제안의 문제점은 남측이 자유래왕을 한두개 부분적조항에만 적용함으로써 자유래왕을 기본방도로 하여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덜어줄데 대한 쌍방의 합의사항에서 후퇴한데 있으며, 의제 4항, 5항에 대한 토의를 공동위원회에 넘김으로써 본회담 대표들의 책임을 회피한데 있으며, 자유래왕만 실현되면 스스로 해결될 고향방문교환과 같은 소극적인 문제를 들고나와 기본문제에 복잡성을 조성한데 있다.

놀라운것은 남측이 제8차 회담때 그 회담장에서의 제의대로 자유래왕을 포

괄적인 방도로 하는데 동의하고서도 그런 합의를 한 일이 없다고 한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자유래왕을 기본방도로 하여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폭넓게 덜어줄데 대한 8차회담 합의사항을 뒤집어엎는 행동이며 대화 대방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40년간의 분렬의 아픔을 안고 자유래왕이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흩어진 겨레의 념원을 짓밟는 행동이다.

우리측이 회담에서 거듭 강조한 바와같이 자유래왕을 실현하는 문제는 흩어진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며 중핵적인 방도이다.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한지맥으로 잇닿은 제나라 제땅 가까운 곳에 혈육을 두고 있으며, 흩어진 가족이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철저히 발을 붙이고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며, 제나라 제땅을 자유로이 오가며 혈육들을 스스로 찾을데 대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의 의사와 념원을 가장 충분히 반영한 제안이다.

우리는 자유래왕에 관한 합의서안과 자유래왕 이외의 기타방도에 대한 제안을 통해 남측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자유래왕을 기본방도로 할데 대한 우리측 제안은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다시말하여 자유래왕이라는 방도를 통하여 5개 의제를 다 해결함으로써 겨레의 고통을 폭넓게 덜어주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위업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정당한 제안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고 지어 8차 회담에서의 합의사항마저 교묘한 방법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막은 남측의 회담자세를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남측은 고향방문과 같은 소극적인 사업으로 민심이나 낚아보려하면서 북과 남의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풀어주려 하지않고 있으며, 회담이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것을 방해하려 하고있다.

그들이 적십자대표단의 래왕을 비행기편으로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남측이 외우는 인도주의는 가짜이며, 그들이 겨레의 고통을 운운하는것도 가짜이다.

우리는 서울에 도착한후 이번회담이 진전될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손님으로간 우리일행을 서울 주민들이 길가에서 환영하는것조차 가로막았으며, 우리가 든 여관 호텔에는 우리의 체제와 제도를 헐뜯는 출판물들을 가져다 놓았다.

지어 텔레비죤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여 우리를 힘으로 제압할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영화와 극을 방영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회담분위기를 흐리게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다.

사실들은 남측이 권력에 추종하여 집권자들의 장기집권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측이 적십자인도주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발벗고 나서며 쌍방 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신의를 가지고 대화에 림할때만이 적십자회담에서의 문제토의는 진전을 가져올수 있을것이다.

제 1 차 고방단및예술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1985. 7 ~1985. 8)

1. 문제를 풀자는 립장인가

(로동신문 론평, 1985. 7.21)

판문점에서 북남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북과 남의 겨레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가.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측은 지난 15일에 있은 첫 실무접촉에서 방문단의 명칭과 구성, 체류기간, 교환 시기 및 방법 문제, 예술단교환문제와 고향방문단 문제, 편의 및 안전 보장문제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제안은 그 공명정대성, 현실성으로 하여 내외의 일치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의 제안 그대로 합의하면 된다는것이 일반의 여론이다.

그러나 남측은 말로는 방문단교환을 실현시키자고 하면서도 행동은 달리하고 있다.

우선 남측의 제안자체가 온당한것이 못된다. 그들은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규모를 정하는데서 우리가 제안한 예술단의 규모는 작게 하고 저들이 제안한 고향방문단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하였다. 이것은 쌍방회담에서 지켜야할 공정성의 원칙을 떠난 일방적인것으로서 문제를 합의하자는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들은 또한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문제와 관련하여 제 8차 본회담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왔다.

원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문제는 본회담 의제토론과정에서 스스로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 8차 본회담에서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상

정적인 사업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의 수석대표와 차석대표자신이 방문지를 평양과 서울로 정하자고 제기하였다. 그런데 남측이 본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떠나 실무접촉에서 문제를 달리 제기하는것은 온당한것이 못된다.

남측은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교환시기도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8월로 할데 대한 합의를 위반하고 타당한 리유없이 9월로 미루자고 하였으며 예술단 교환공연, 고향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일련의 제한조건을 내놓았다.

쌍방적십자단체 책임자들이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을 대동하고 8월에 상대측지역을 방문하는것은 조국해방 40돐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9월말로 넘겨 행차후 나발이 되게 할뿐만아니라 예술단이 공연소개도 할수 없게 하고 40년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이 의사소통을 하는것까지 단속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는가.

우리는 남측의 제안을 쌍방회담에서의 공정성과 신의를 떠난 부당한 제안이며 국제관례와 일반상식, 지어 적십자인도주의마저 줴버린 몰상식한 제안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다.

그런데 남측은 자기의 부당한 제안을 철회하려하지 않을뿐아니라 본회담에서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문제를 합의한바가 없다고 하면서 그 토의에 시간을 끌려하고있다.

남측은 지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 우리가 종합적인 새로운 의견을 내놓으며 성의를 보일때 지난 접촉에서 읽은 발언원고를 다시 읽으며 빈소리나 하는 추태까지 벌리고있다.

남측의 립장과 대화자세로 보아 남측은 교환방문을 성사시키자는 립장이 아니다.

쌍방회담에서 공정성을 줴버리며 어제 본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를 오늘 실권도 없는 실무대표가 뒤집어엎으며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중대한 문제

를 토의하는 회담장에 아무런 연구도 없이 나와 심심풀이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대화자세를 어떻게 문제를 풀려는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보건대 남측은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문제를 놓고 흩어진 겨레에서 점수를 따보려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갈라진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는것은 제쳐놓고라도 최근 대구에서는 당국자들의 박해와 무관심으로 북에 고향을 둔 수많은 사람들이 무권리와 굶주림에 고통겪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측은 인도주의옷을 쉽게 입을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측에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연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접촉에 나오라고 하였다.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실현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리게 될것이다.

2. 북적대변인, 3차실무접촉 종료후 기자회견

(보도, 1985. 8.22)

북남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제3차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되였읍니다. 조국해방 40돐에 즈음하여 북남적십자단체책임자들이 인솔하는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상대측지역 호상방문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제3차실무접촉이 오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3명의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남측에서 3명의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실무접촉은 비공개로 진행되였습니다. 실무접촉이 끝난 다음 우리측 대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박영수대변인은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읍니다.

그는 오늘 3차실무접촉에서는 이미 쌍방이 제기한 안들에 대한 토의를 결

속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 2차접촉에서 우리측은 조국해방 40돐 분위기를 한층 돋굴수있게 하기위해서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규모를 적어도 300명정도로 하자고 제의했으나 남측이 그 규모를 대폭 줄이자고 요구한 사실에 언급한 다음 남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향방문단의 구성과 방문지 문제토의에 언급하면서 남측이 지난번 실무접촉들에서는 제3차 북남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과 어긋나게 방문지문제를 가지고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했다고 하면서 오늘 접촉에서는 평양과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로만 방문단을 구성하자고 고집해 나섬으로써 합의서 채택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측의 아량있는 설복으로하여 고향방문단은 평양과 서울에 고향을둔 인원을 위주로 하면서 기타 대상들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방문지는 제3차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평양과 서울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술단의 공연문제에 언급하면서 남측이 공연내용등의 여러가지 제한, 통제조건들을 제기했으나 그러한 주장들이 적십자단체가 지니고있는 사명으로 보나 또 그가 수행하여야할 기능으로 보나 부당하다는것이 인정되여 철회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술단 및 방문단 교환문제는 이미 3차회담에서 그 선이 그어진 것으로서 한 두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합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였으나 남측이 적십자단체의 본분을 벗어나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이번 실무접촉을 한달이상이나 끌어왔다고 하면서 이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단장의 위임에 의하여 북남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제3차실무접촉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3. 남측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로동신문 론평, 1985. 8.23)

22일에 진행된 제3차 북남적십자실무대표접촉에서 북남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을 실현하는 문제가 합의되였다.

방문단은 쌍방적십자단체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예술단 50명, 고향방문단 50명, 기자단 30명, 수행일군 20명, 총 151명으로 구성하게 되였다. 방문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로, 상대측지역 체류기간은 3박4일로 하되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사이에 쌍방이 동시에 상대측지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문제가 늦게나마 합의된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환방문이 실현되면 그것은 나라가 분렬된후 처음 되는 일로서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며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교환방문사업과 관련한 합의사항은 북남겨레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점들도 없지 않다.

교환방문실현이 한달나마 지연되였으며 예술단의 공연포스터도 붙이지 못하고 텔레비죤방영도 하지 못하는 등 일련의 제한들이 가해지게 된것이 바로 그것이다.

명백히 하건대 이렇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부당한 립장과 불성실한 대화자세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쌍방적십자단체 책임자가 인솔하는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하며 방문단구성도 크게 하고 상대측지역에서의 활동에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을 공정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교환방문문제와 관련하여 북남적십자 8차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것만큼 한 두차례의 접촉으로 곧 구체적인 합의를 볼것이라고 예견하고 문제토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와는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방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호상성의 원칙을 집어던지고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들은 또한 8차회담에서 흩어진 겨레들의 고향방문문제는 본회담에서 자유래왕을 실현하는 문제가 합의되면 자연히 풀리는것만큼 이번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로 하자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권도 없는 하찮은 실무대표가 나와 그것을 뒤집어엎음으로써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지어 그들은 예술단의 공연프로도 소개하지 말며 고향방문단이 친척들과 만나 살림형편도 마음대로 이야기할수 없게 하는 등 남조선과 같은 파쑈사회에서만 통하는 질서를 고향방문사업에까지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날 실무회담에서도 남측은 고향방문단 성원들은 서울과 평양에 사는 사람들로만 국한시키자고 고집하였다.

교환방문사업이 예정보다 늦게나마 실현될수 있게 된것은 이러한 남측의 주장을 설득시키고 필요한 양보도 하면서 합의에 도달하게 한 우리의 성실하고 아량있는 노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이번 실무대표들의 접촉과정은 남측이 적십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립장의 반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대화의 막뒤에서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우리를 걸고 인민탄압을 강화하고 대화분위기를 흐리게하는 등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들은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남측은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하여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사업이 늦어지고 의의가 약화되였으며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준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남측은 우리와 성실하게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려는 립장이라면 쌍방회담에서 공정성과 호상성을 무시하며 어제 합의하고 오늘 뒤집어엎는 식의 부당한 대화자세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남북국회회담예비회담

(1985. 7～1985. 9)

1. 어째서 긴장완화 문제를 외면하는가

(로동신문 론평, 1985. 7.25)

7월 23일 판문점에서 막을 올린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첫 예비접촉은 조선에서 누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누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

보도된바와 같이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북남국회회담의 형식과 그것을 소집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밝힘과 함께 이 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우선 토의해야 하며 그밖에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할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지난 6월 1일부 회답편지에서처럼 무슨 국회의 기능 문제를 운운하면서 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섰으며 본래의 주장대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나 내오자고 하였다.

남측의 이러한 태도로 하여 이날 예비접촉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의제문제 토의에서 아무러한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북과 남의 전체인민들은 분렬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정치인들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의제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채 끝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다.

이번 접촉이 첫 접촉에 불과한만큼 물론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남측이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고 하면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그토록 반대해나선것은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불가침문제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한 중대하고도 긴밀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사람이라면 더우기 북과 남의 정치인이라면 이 초미의 문제에서 도피적인 태도를 취할수 없다.

한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40년간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사람의 어깨우에 지워진 통일의 력사적과제를 놓고 볼때도 이 문제는 결코 도외시할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도로 찾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북과 남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자면 서로 불가침을 담보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상대방이 침략한다는 의구심부터 없애야 한다.

이 문제 토의를 회피하는것은 결국 평화를 외면할뿐아니라 통일문제도 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것이다.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뛰여넘어 통일헌법 제정문제나 론의하자고 하는것은 사실은 대화간판을 걸어 놓고 시간을 끌면서 통일하지 않으려는 립장을 드러낸것으로밖에 달리는 해석할수 없다.

더우기 남측이 남조선의 현행 헌법을 북과 남을 포괄하는 통일헌법이라고 하면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도 남조선의 식민지파쑈통치제도를 전조선에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숨어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제반 사태들은 남측의 분렬주의적립장을 더욱 확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적으로 선포한 가운데 매일과 같이 반공, 반공화국 대결소동이 벌어지고있으며 민주와 통일을 주장하고 외세를 배격하는 애국력량에 대한 무지막지한 폭압선풍이 일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추종하여 무력을 증강하고 신형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을뿐아니라 무력을 분계선전역에 전진배치하고 특공대무력을 늘이며 지어 북침용땅굴까지 파는 등 전쟁준비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일이다.

남측은 또한 통일에 대해서 말은 하고있지만 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제안 하나 내놓은것이 없다. 있다면 통일의 너울을 씌운 분렬안뿐이다.

최근에도 그들은 남조선이 유엔에 단독 가입 하는것이 저들의 정책이라고 함으로써 분렬주의적정체를 드러내놓았다.

남측이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중요시하는것은 이러한 분렬주의적립장을 대화마당에 옮겨놓은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당한 립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회권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연 남조선국회권능이 민족적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를 외면하도록 되여있단말인가.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해야하는것은 국회의 기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자기의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보아도 민족이 바라는 긴장 완화문제를 외면할 근거란 있을수 없다.

분단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남측은 조선반도를 평화를 위협하는 교두보로 남겨두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계속 추구한다면 안에서 밖에서도 그 누구의 환영도 받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2. 긴장완화는 가장 선차적인 과제

(로동신문 론설, 1985. 9.25)

오늘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이것이 북남대화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 리롭지 못할뿐아니라 그 전망에 해로울뿐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자주적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마음놓고 대화를 할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풀고 전쟁의 위험을 가셔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에서 평화를 보장할수 있으며 분렬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현실적제안들을 내놓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지난해에만도 우리는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실제적조치로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날카롭게 대치되였던 북과 남사이에 완화의 새 기운을 조성하여나갔다.

우리는 올해에 들어와서 또다시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평화적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정전후 30여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첨예한 대결상태를 완화의 국면으로 바꾸고 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적립장에서 출발한 우리의 이 평화적발기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제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긴장상태는 의연히 격화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공소동, 전쟁책동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에 최신살륙무기로 장비된 4만여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을 전개한것으로도 부족하여 침략무력을 계속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다른 한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이 나라의 평화통일과 북남대화에 부정적영향만을 미친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지난 1970년대초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던 북남대화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중단된것은 바로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증대가 그 원인이였으며 지난해에 마련되였던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몇달동안 중단상태에 빠졌던것도 역시 남측이 미국과 함께 대화상대방을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5와 같은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켰기때문이다.

이것은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는 환경에서는 결코 대화가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궁극에 가서는 파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있다.

대결을 끝장내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당면하여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 등 북남대화를 성공에로 이끌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간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긴장격화와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다 리로울것이 없으며 세계인민들에게도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줄뿐이다.

더우기 그것이 신성한 조국땅을 외세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긴장격화와 전쟁의 길은 민족자멸의 길이며 완화와 평화만이 조선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할수 있는 길이다.

북과 남은 민족끼리 대결하여 긴장을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다같이 힘을 합쳐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전쟁의 문어구에 들어선 우리 민족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은 3자회담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이 마련될 때에 비로소 공고하고 완전한 평화의 담보로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3자회담이 실현될 때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으며 그 누가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수는 없다.

비록 3자회담이 아니고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공고화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하여도 북과 남은 평화에 한걸음이라도 접근할수 있는것이라면 그 가능성을 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것을 제기한것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이 실현되기전이라도 나라의 평화문제를 가능한한 북과 남사이에 할수 있는데까지 풀어나가자는 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북남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하게 되면 북남당국은 그것을 구체화하여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수 있

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북과 남사이에 있을수 있는 무력충돌과 모든 불행한 사태들을 미리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금 진행되고있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고위급 정치회담을 마련하는데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주게 될것이다.

남측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북남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는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남측은 북남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는것을 반대하면서 그 무슨 통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나 내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긴장완화와 평화를 외면할뿐아니라 통일문제도 풀지 않겠다는것과 같은것이다.

분단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에게는 긴장완화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는 지체없이 취해져야 한다.

인민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방해하는자들에게 타격을 가할것이다.

3. 긴장완화를 외면하는 것은 대결을 위해서이다

(로동신문 론평, 1985. 9. 27)

25일 판문점에서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두번째 예비접촉이 있었으나

역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채 끝났다.

보도된바와 같이 이날 남측은 지난번 접촉때처럼 우리측이 내놓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의제로 하는것을 반대하면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를 의제로 할데 대한 본래의 립장만을 고집하였다.

남측은 우리가 새로운 타개책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를 단일의제로 설정할것을 제의하였으나 이 절충안마저 이런저런 구실을 붙이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연구해보겠다는것으로 의제문제토의를 회피하였다.

예비접촉에서 취한 남측의 이러한 무성의한 립장과 자세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강구할데 대한 근본문제에는 열의가 없고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긴장완화요 뭐요 하는것이 순수빈말이고 대결정책, 전쟁정책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드러내보여주고 있다.

오늘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의 대화가 진행되고있으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며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있다.

이것은 북에도 남에도 다 리로울것이 없으며 세계인민들에게도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줄뿐이다.

더우기 그것이 신성한 조국땅을 외세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 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특히 당장 핵전쟁위험이 커져 민족의 생사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남조선괴뢰들이 긴장완화문제를 토의하는것을 회피하는것은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측은 국회회담에서 불가침문제를 토의할수 없다는 근거로서 국회기능이요, 복잡성이요 하는것을 들고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회담에 림하는 그들의 근본립장에 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처음부터 그 무슨 내부사정을 내세우면서 국회회담을 열고 긴장완화문제를 협의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대답을 끌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예비접촉에 나와서도 우리의 제안은 반대하면서 다른것을 토의하자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양보하여 쌍방의 안을 다 토의하자고 해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며 우리가 쌍방의 견해와 립장을 다같이 고려한 절충안을 내놓아도 대답을 회피하는데 과연 이것을 긴장완화를 해결하자는 립장이라고 볼수 있는가

그들은 국회회담에서 통일헌법 제정문제나 론의하자고 하는데 오늘처럼 긴장감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토의하는 그자체가 어울리지 않을뿐아니라 설사 토의한다해도 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측이 당국자회담에서는 불가침문제를 토의할수 있는듯이 말하는데 그것 역시 현실을 떠난 공리공담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이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는 당국자들이 마주앉기도 어렵거니와 마주앉는다고 하여도 문제를 풀수 없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국회회담에서 토의하는것을 반대하고있는것은 결국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립장이 아니며 말로는 불가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실지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대화간판을 걸어놓고 대결정책, 전쟁정책만을 추구하려는 전○○괴뢰도당의 반민족적립장은 다시한번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적으로 선포한 가운데 매일과 같이 반공, 반공화국 대결소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미제의 대아세아전략에 추종하여 무력을 증강하고 신형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지어 무력을 분계선전연에 전진배치하고 특공부대를 늘이는 등 전쟁준비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괴뢰들은 긴장완화요 평화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기만이다.

분단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에게는 긴장완화니 평화니 하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

말로만 긴장완화와 평화를 외우고 그 막뒤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괴뢰들은 내외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로 잔 느 남 북 체 육 회 담

(1985. 10~1987. 7)

1. 올림픽 공동주최안은 실현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론설, 1985. 10. 21)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수많은 쁠럭불가담 나라 및 제3세계나라들은 물론 프랑스, 이딸리아 등 서방나라들까지도 우리의 공동주최안을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것은 올림픽 공동주최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표시이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을 의연히 반대하고있다.

지난 8일과 9일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있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조선의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의 공동회의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채 끝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우리의 공동주최안은 올림픽운동앞에 조성된 사태와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신중하게 고려한데 기초하여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내놓은 가장 적중하고 현실적인 제안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주최안은 올림픽운동의 위기를 타개하고 그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올림픽의 기본리념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국 체육인사들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며 세계평화위업에 기여하는것이다.

그런데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에서 벌리려 함으로써 신성한 올림픽운동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그것은 서울이 올림픽운동의 분렬과 파멸을 야기시킬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있는곳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존권마저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악정을 더이상 감수할수 없어 반외세, 반정부 투쟁에 떨쳐일어나 싸우고있다. 총칼이 란무하고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이러한곳에서 세계 각국의 체육선수들이 마음놓고 한자리에 모여 친선과 단결,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올림픽경기를 할수 없다는것은 불을보듯 명백한 일이다.

더우기 사회주의나라들과 수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 및 제3세계나라들은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결국 서울에서만 올림픽경기를 벌리는 경우 수많은 나라 체육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보고에서 1988년 올림픽경기의 조직이 수많은 문제성을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이 100% 존재한다고 한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위기는 우리의 공동주최안이 실현됨으로써만 극복될수 있다.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평화적조국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단결하고 합작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접촉하고 대화를 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하며 온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금 온 민족은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전되여 그것이 평화통일의 길로 이어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 해보려고 이른바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안 이요,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안 이요 분렬안을 들고 유엔무대를 분주히 싸다니고있다.

그들은 전례없이 악랄한 반공대결소동으로 민족안에 반목과 불신, 대결을 고취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 나라의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고있다.

이것은 괴뢰들이 말로는 대화요, 통일이요 하지만 실제상은 그 간판뒤에서 무한정 시간을 끌면서 두개 조선 조작에 유리한 구멍을 뚫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만일 서울에서만 올림픽경기가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그것은 괴뢰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키질하는 결과밖에 더가져올것이 없다.

제 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분렬된 우리나라의 현실적요구와 온 민족의 통일지향, 그리고 우리에게 올림픽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할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것을 고려한것이다.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여 올림픽경기를 북과 남에서 절반씩 나누어 진행하면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자극하는 편향도 없게 될것이고 북남유일팀구성문제도 쉽게 풀려 북남체육인들과 각국의 체육선수들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경기를 벌림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여러갈래의 대화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통일의 필수적전제인 민족적단합과 단결을 이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공동주최안은 올림픽운동의 견지로 보나 민족적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유익한것으로서 올림픽운동의 리념을 귀중히 여기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이것을 반대하는자들이 있다면 오직 신성한 올림픽운동을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삼으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뿐이다.

우리의 공동주최안에 대한 태도는 그가 올림픽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분렬주의세력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올림픽운동의 분렬을 방지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올림픽공동주최안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1986. 3. 15)

최근 남조선에서는 민주와 파쑈간의 대결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를 걸고 내부위기를 수습해보려는 정치모략이 감행되고있다.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는 요즘 군부대와 행정 각 부, 처 그리고 도, 시, 군을 돌아다니면서 올해의 아세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북의 방해공작과 기습공격, 해상침투 등 무력도발이 예상되므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들과 외국인들을 만나서도 그 무슨 북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력설하면서 우리를 함부로 비난해나섰다.

이를 되받아 남조선의 문화공보부장관과 치안본부장 등 다른 고위당국자들도 같은 곡조로 우리를 헐뜯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무총리란자는 해외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남침위협이 박두한것처럼 우리를 비방중상해나서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국주의자들도 이른바 북의 위협에 대하여 전례없이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얼마전에 미국무장관 슐쯔는 남조선이 〈북으로부터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해있다〉고 기만선전을 늘어놓았으며 미국방장관 와인버거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립씨도 88년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허튼소리를 하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이 광란적인 소동은 필리핀사태와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1,000만명서명운동을 계기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을 억누르고 식민지파쑈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비렬한 정치모략행위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거기에 상관할 의사가 없으며 무력으로 개입할 생각은 더우기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미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으며 실지행동으로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이전 독재자가 사살되고 정치적공백기가 생겼을 때에도 남침한것이 아니라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갈것을 진지하게 호소하였으며 북남대화를 주동적으로 발기하였다.

최근에도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아끼고 성공시켜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며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주동적조치를 취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성실한 립장은 그때마다 세상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오늘 우리가 마치 남조선에 그 어떤 혼란을 조성하려 하는것처럼 거짓여론을 류포시키고있는것은 그들자신이 남을 헐뜯고 인민들을 기만하며 모략선전에 매여달리지 않고서는 저들의 권력을

지탱할수 없는 매우 불안한 처지에 빠져있기때문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이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전쟁위기를 조성하고있는 살벌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주고있으며 그들의 운명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경기대회와 올림픽경기대회를 내들고 우리를 헐뜯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일으키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유치하고 저속한 모략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88년 올림픽경기대회를 파탄시키기 위한 북의 무력도발이 예상된다면 무엇때문에 올림픽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야 한다는 세계의 목소리를 그처럼 집요하게 반대해나서는것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른바 무력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은 응당히 공동주최안을 받아들여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공동주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것자체가 북으로부터의 무력도발이 없다는것을 그대로 확증하여주는것이다.

사실상 남조선은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하루도 화약내가 가실 날이 없고 외세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인하여 정치적혼란상태가 잠시도 가라앉는 때가 없는 불안정한곳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정계, 사회계, 체육계에서는 서울을 올림픽경기대회장소로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사실상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구원할뿐아니라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것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자기의 민족적위업에 충실하며 나아가서 평화와 친선, 단결을 리념으로 하는 올림픽운동에도 성실성을 다하고있는 우리를 남조선당국자들이 감히 헐뜯으면서 모략선전을 일삼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안중에 없고 올림픽운동의 건전한 발전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줄뿐이다.

애당초 남조선당국자들이 88년 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에 유치한것자체가 저들의 더러운 몸값을 올리고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며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을 독립국가인듯이 가장하여 나라의 현 분렬상태를 고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서울올림픽경기대회를 견결히 반대하면서 올림픽공동주최를 주장하고있다.

지난날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이 꾸며냈던 모든 반공모략사건들과 남침위협소동이 거짓이였던것처럼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벌이는 그 무슨 파괴니 도발이니 하는 모략선전도 어디에서나 통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남조선에 그 어떤 사태가 조성된다 하여도 그에 상관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하여 운운하기전에 세상사람들의 요구대로 올림픽공동주최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팀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파쑈통치배들이 가지고있는 악습으로 보나 요즘 벌리고있는 무분별한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보나 그들이 앞으로 우리와 결부시켜 그 어떤 충격적인 모략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민탄압을 합리화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한편으로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

고 다른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정치선전을 일삼으면서 파쑈와 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계속 분별없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린다면 그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86년 3월 15일

평　　양

3.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국제체육경기장소로 적합치 않다

(로동신문 론설, 1986. 3. 31)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와 사회계, 체육계에서는 정치적혼란상태가 잠시도 가라앉지 않는 불안한 서울이 아세아경기와 올림픽경기 장소로 예정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은 사실상 올림픽경기대회를 할만한곳이 못됩니다.〉

올림픽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세계 여러 민족들사이에 평화와 화목,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리념으로 하는 국제적인 체육축전이다.

체육 활동과 교류를 통하여 친선과 화목, 협조를 도모하자면 체육경기가 우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체육인들과 관람객들의 사상과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및 법률적 제한조치가 없어야 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교류할수있도록 민주주의가 보장되고있는곳에서 진행되여야한다.

그런데 남조선은 식민지파쑈통치가 실시되고 반공이 국시로 선포되여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갈라놓고 부당한 정치적박해를 가하며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진보적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불순분자, 용공분자, 간첩으로 몰아 탄압학살하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이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화적시위군중을 땅크와 장갑차로 깔아뭉개여 거리를 피바다에 잠근 광주대학살참변이 보여주는것처럼 군사파쑈분자들과 경찰특무들이 살판치고있는 남조선은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는 류혈의 땅으로 되였다.

남조선은 42만여명의 괴뢰안전기획부 요원들과 특무들, 23만여명의 괴뢰군보안사령부 헌병대원들을 포함하여 100여만이상에 달하는 폭압력량이 항시적으로 인민탄압에 동원되고있는 살인공포의 지대이다.

교형리들의 파쑈적만행에 의해 600여개나 되는 감옥마다에는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수십만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차고넘쳐 잔인한 고문과 악행을 당하며 신음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12만 6,00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체포련행되고 21만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올해에 들어와 지난 2월 첫 열흘동안에만도 1만 1,5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검거되였다.

민주와 파쑈, 애국과 매국사이의 대립이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있다.

남조선의 신민당이 직선제개헌을 위한 1,000만명서명운동을 발기한후 이 운동은 지금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물론 종교인,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운동으로 번져가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지난 3월 9일에 서울과 인천에서 수백명의 종교인들이 시위를 벌린데 이어 11월에는 서울에서 신민당 총재와 상임고문을 선두로 한 수천명의 신민당원들이 서명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리고 23일에는 부산에서 4만여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헌법개정서명운동을 위한 부산시지부결성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렸다. 파쑈 헌법의 철페와 독재타도를 부르짖는 시위투쟁은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방에로 급격히 번져갈 추세에 있다.

재야정치세력과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망라한 이 대중적시위투쟁은 학생투쟁과 로동쟁의와 밀접히 결합되고있다. 이것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으로서 1960년의 4.19인민봉기와 이전 독재자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1979년 10월의 부산, 마산민주항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독재기세가 높아가고 최근 필리핀의 마르코스독재정권이 종말을 고하게 된데서 불안을 느낀 미제와 전○○일당은 지금 리성마저 잃어버리고 파쑈적폭압선풍을 일으키고있다.

전○○일당은 새해에 들어와 남조선전역에 특별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수많은 경찰병력을 폭압에 동원한것으로도 부족하여 얼마전에는 괴뢰수도경비사령부 관할부대병력과 수도기갑사단 병력까지 서울중심거리들에 투입하여 폭압공세를 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천앞바다에 군함들을 대기시켜놓고 24시간 주야로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독재자를 적극 비호해나서고있다.

미제의 비호밑에 감행되는 전○○역도와 그의 민정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책동과 그것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남조선정국의 형세를 놓고볼 때 아세아경기가 진행된다는 올해로부터 현 독재의 임기가 끝나게되는 1988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치적 동란과 혼란이 계속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들이 아세아경기와 올림픽을 코에 걸고 탄압을 일삼는 조건에서 남조선에서 국제체육경기를 하는것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있

다.

남조선의 정치적기류상태를 놓고 내외에서는 전○○일당이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설도 나돌고 남조선의 지배층과 민중간의 결전의 해로 될 1988 년에 남조선정치에 장치된 시한탄이 폭발될것이라는 여론도 나돌고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곳에서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숭고한 리념으로 하는 국제체육경기대회를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경기대회를 서울에서 하는것을 반대배격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아세아경기 및 올림픽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를 걸고 벌리는 모략소동은 국제경기를 서울에서 하는것을 반대배격하는 세계 사회계와 체육계의 움직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일으키는 발작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의 민주화를 희생시키는 아세아경기나 올림픽경기는 환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서울에서 하는것을 결사반대하고있다.

최근에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련합조직인 전국학생총련합은 성명에서 1988 년 올림픽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의 리성과 량심은 남조선인민들의 이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며 아세아경기와 올림픽을 장기집권책동에 악용하고있는 전○○일당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인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4. 올림픽공동주최안은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위한 정당한 제안

(평방, 1986. 6.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올림픽 경기 대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며, 동시에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

하기위하여 제 24차 올림픽 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외에서 제 24차 올림픽 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의 실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올림픽 공동 주최안이 올림픽 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할 뿐아니라, 조선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위한 정당한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조선은 끊임없는 전쟁 연습 소동으로해서 매우 불안하고 파쇼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져, 정치적 혼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곳으로서 올림픽 경기대회를 할만한 곳이 못됩니다.

남조선은 체육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서울이 제 24차 올림픽 경기 대회 장소로 정해진것은 우리나라를 영구히 분열 시키려는 미제와 전○○ 일당의 두개 조선 정책의 산물입니다.

만일 분열된 우리나라의 일방인 남조선에서만 올림픽 경기대회를 하게되면 두개 조선을 하게되어 우리나라를 영구히 분열시키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을 부추겨주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민족적 반목과 대립은 더욱 조장되고 영구 분렬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 단결을 목적으로하는 올림픽 운동의 숭고한 리념에 부합되지 않는것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를 반대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대로 제 24차 올림픽 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북과남의 선수들이 유일팀을 구성해서 경기에 출전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기술을 보여줄 수

있고 더 좋은 경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유일팀을 구성해서 경기에 출전하면,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더욱 과시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체육과 예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 걸친 폭넓은 합작과 교류의 문을 여는데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하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때에만 끊어졌던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제 24 차 올림픽 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올림픽 운동의 리념을 귀중히 여기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제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올림픽 운동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서울 올림픽의 단독 강행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올림픽 운동을 두개조선 조작과 장기 집권야망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버리고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응해 나서야 합니다.

5. 조선 올림픽위원회 김득준부위원장 담화

(1986. 6. 21)

세계의 많은 체육애호가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 6월 10일과 11일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1988년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제3차 공동회의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의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 대표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한가지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우리 대표들은 올림픽운동에 조성된 위기를 막고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통하여 조선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념원에서 처음부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림하였으며 문제토의에서 온갖 성의를 다 보이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경기종목을 북과 남이 공정하게 배당하고 우리측에서 하는 경기에 대하여서는 경기대회명칭도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 평양이라고 부르며 평양조직위원회도 내올데 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부합되는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의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 내놓은것도 아니며 국제올림픽위원회측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우리의 제의는 남조선측의 전면적인 거부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효과적으로 토의되지조차 못하였다.

남조선측은 경기대회종목할당에서 1～2개의 경기종목만을 우리측에 주는것을 고려하여 보겠다는 립장을 보이면서 공동주최가 아니라 서울단독개최를 고집하

였다.

그들은 경기대회의 개막식과 폐막식도 서울에서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서울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가 참가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기본문제에서 합의된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은 제 3차 로잔느공동회의에서 우리에게 선심을 써서 크게 양보하여 진전이나 있은듯이 말하고있다.

그들이 양보하여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한두개경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마저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주관하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도시에서 하게되는 경기를 남조선의 지방도시에서 하는것처럼 보이게 만들자는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주최안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상상도 못할 언어도단이다.

우리가 한두개정도의 경기나 우리측 지역에서 하자고 해서 올림픽공동주최안을 제기한것은 아니다.

우리는 제 24차 올림픽경기대회장소로 서울이 선정된것과 관련하여 조성된 올림픽운동의 위기를 막고 모두가 참가할수 있는 순조로운 올림픽경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최안을 제기하였다.

더우기 우리는 올림픽경기대회를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나라의 통일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최안을 제기하였다.

우리의 정당한 제안은 세계의 많은 체육애호가들과 인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측은 이러한 세계여론과 저희들자체가 안고있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

점들을 놓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그들은 제 24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절대로 리용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의 공동주최안과 그에 대한 세계여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주최가 실현되자면 그에 맞게 경기대회명칭과 경기종목할당, 조직위원회구성, 경기대회 개막식과 폐막식 조직과 같은 근본문제에 대한 우리의 초보적인 요구가 실현되여야 한다.

이 기회에 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측도 공동주최와 관련한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나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국가 정부들과 광범한 체육애호가들이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해주리라고 확신한다.

1986년 6월 21일

평 양

6. 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불순한 행위

(로동신문 론설, 1986. 7. 25)

지금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체육계, 사회계에서는 제 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운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하루빨리 우리의 공동주최안이 실현되여 올림픽경기대회가 순조롭게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만도 여러 나라 정부들과 민족올림픽위원회들 그리고 체육계, 정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이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우리의 올림픽공동주최안을 적극 지지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립장은 올림픽의 숭고한 리념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념원과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에 맞게 제 24 차 올림픽경기대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며 올림픽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려는 지극히 정당한 립장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세계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공동주최안협의에 나서기는 했으나 의연히 서울에서의 단독개최음모를 실현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지난번 로잔느회담과 그후의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들은 우리가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다만 몇개 종목만을 떼맡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립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마치도 공동주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올림픽경기의 서울단독개최를 그대로 내밀려는 교활한 수작으로서 올림픽의 공동주최를 요구하는 세계사회여론에 대한 우롱이다.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자세로하여 제 24 차 올림픽경기에는 의연히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진행하는 문제는 단순한 체육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문제입니다.〉

원래 올림픽은 건전한 스포츠를 통하여 인민들사이의 리해와 화목,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평화적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리념으로 삼고 있는 국제적인 체육축전이다. 그러므로 올림픽은 정치에 롱락되여도 안되며 또한 정치의 개입을 허용해도 안된다. 올림픽은 마땅히 자기의 숭고한 리념에 맞게 경기들이 조직되고 운영되여야 한다. 특히 올림픽경기장소를 옳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림픽의 조직운영에서 정치가 가장 심하게 개입될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장소선택문제이다. 올림픽장소로는 분렬되어 있는 나라에서

일방이 타방을 반대하여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이 선택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지역이 올림픽장소로 선택되면 그것은 불피코 말썽을 일으키기마련이다.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장소로 남조선이 선정됨으로써 올림픽력사에 일찌기 없는 심각한 정치적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이러한 원칙과 어긋나게 올림픽에 정치를 개입시켜 장소문제를 가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올림픽경기의 서울개최를 통하여 노리는 정치적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들은 이 경기대회를 무엇보다도 저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전쟁준비책동을 합리화하는데 리용하려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실현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서울에서의 올림픽개최를 통하여 남조선에 독립국가의 외피를 씌우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올림픽을 걸어 남조선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미일반동들을 끼고 유엔가입과 교차승인, 교차접촉을 위한 막후교섭을 분주하게 벌리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지난해 유엔총회를 전후하여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짜고들어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 책동과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 소동을 일으킨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례였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올림픽이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전망을 열어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올림픽을 두개 조선조

작음모를 실현하는데 유효하게 써먹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올림픽경기대회를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올림픽을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유지강화하고 전○○역도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외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올림픽경기대회날자가 다가옴에 따라 그 무슨 올림픽분위기조성이니 안보와 질서의 유지니 하는 간판을 내걸고 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제와 일본반동들은 전○○괴뢰도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남조선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무사히 치르도록 각 방면으로 되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데 대하여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은 올림픽을 걸어 전○○괴뢰도당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분렬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반공과 친미, 친일을 국시로 삼고 있는 파쑈독재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흉악한 술책인 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저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평화와 안보의 미명밑에 합리화하고 그 막뒤에서 북침을 위한 책동을 일층 강화하려고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유지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할 구실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제 24 차 올림픽경기대회장소를 이러한 목적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남침위협에 대처한다는 허황한 간판밑에 무력증강책동과 각종 전쟁연습들이 급격히 강화되고 반공, 반공화국 소동과 남북대결소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세아경기대회와 올림픽경기대회 날자가 다가옴에 따라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방

해공작과 무력도발이 예상된다느니 앞으로 1～2년이 고비라느니 뭐니 하면서 경계태세와 림전태세의 강화, 반공의식의 확립에 대하여 떠벌이며 전쟁준비 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 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은 땅벌, 비호, 방패, 을지등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리면서 이것을 올림픽과 결부시켜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제는 올림픽경기를 무력으로 담보하겠다는 당황한 소리까지 공공연히 줴치면서 미제침략군의 무력증강과 괴뢰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이 남조선내부에서 정치사회적위기가 심화되여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우리와 결부시켜 북침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개최되는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결국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그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찬성하고 묵인해주는 것으로 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미제와 괴뢰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부추겨주는 것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것은 단순한 체육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념원을 침해하고 유린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증대시키고 이 지역의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올림픽경기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서도 그렇고 올림픽을 위기에서 구원하려 해도 그렇고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그의 숭고한 리념에 맞게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에서 조직진행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공동주최안이 지체없이 실현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올림픽경기를 통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이루어보려는 교활한 술책을 그만두고 우리의 공동주최안에 응해나서야 한다.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1988. 8 ~1989. 12)

1. 또다시 지연전술인가

(로동신문 글, 1988. 8. 20)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19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있었다.

원래 우리는 국회련석회의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현안문제의 긴박성으로 보아 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을 거침이 없이 직접 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안했지만 남측이 굳이 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을 고집하므로 이날의 상봉이 마련되였다.

판문점에서 북남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그러하지만 이날에도 상봉은 기자들사이에 먼저 벌어졌다.

상봉시간보다 훨씬 앞당겨 판문점에 나간 우리 기자들은 판문점앞마당에 나가 남측 기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각〉으로 갔다.

이날 상봉이 련석회의준비를 위해 마련된것이지만 판문점은 북과 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로 붐비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상봉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대결과 전쟁 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대화가 중단된 후 2년여의 세월이 흘러서야 마련되였기때문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 올림픽공동주최문제 등 련석회의 주요의제로 상정된 문제들도 내외의 눈길을 모았다.

북과 남의 기자들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8. 15에 새 세대 청년들을 앞세우고 학생회담취재를 나올줄 알았는데 그때 왜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기자들이 남측 기자들에게 한말이다.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상봉을 하고 체육대회를 가지는것마저 두려워하며 총칼로 가로막는 사람들의 승인하에 나온 남측사람들이 오늘 상봉에서 완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련석회의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만큼 성의를 보일지 의심스럽다고 통짜로 들이대는 기자들도 있었다.

남측의 대부분 기자들은 이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얼굴을 붉혔다. 군부파쑈집단의 손아귀에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본의아니게 당하는 부끄러움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였다.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은 정각 10시에 시작되였다.

우리측 전금철단장은 판문점이라면 전쟁을 상징하고 분렬을 상징하는곳이지만 나라를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이곳에 각을 짓고 〈통일각〉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하면서 오늘의 상봉에서는 지난 8.15 학생회담이 류산되어 겨레에게 실망을 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발언을 통해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 올림픽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대해 강조한 다음 북남국회련석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내외기자들은 우리측이 합의서초안까지 내놓은것으로 보아 국회련석회의를 마련하려는 북의 성의를 알수 있다고 하면서 남측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것이며 따라서 상봉도 오늘로 끝날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남측은 기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첫 발언에서부터 문제토의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면서 불성실하게 나왔다.

상봉에서 남측은 우선 회담형식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국회련석회의대신 〈국회대표회담〉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해나섰다. 쌍방의 국회의원들이 다 참가하는 련석회의를 하면 회담운영에서 〈효률성, 능률성, 생산성〉을 보장

할수 없고 〈군중대회〉로 되고만다는것이 그들의 론거였다.

회담형식을 국회련석회의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측이 7월 20일 편지에서 국회련석회의를 할데 대해 발기한후 여러차례 주고받은 편지에서 남측이 다른 의견을 말한것도 없고 남측 정당들도 찬동한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된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그런데 남측은 예상외로 그것을 뒤집어엎고 〈국회대표회담〉을 해야 한다는것을 완고하게 고집하여 나섰다.

우리측이 또한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최대한 집대성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나 불가침문제, 올림픽문제가 온 겨레의 리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으로 보나 이 문제는 국회련석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것,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립장과 자세만 가지면 아무런 복잡성도 있을수 없다는 등 납득이 가게 설명하였으나 남측은 고집불통이였다.

남측은 〈세계관례에 련석회의가 없다〉느니 뭐니 하는 말까지 하며 련석회의를 기피하려다가 내부문제를 해결하는데 세계관례가 무슨 소용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와 같은 통일문제를 안고있는 나라가 있는가고 들이대자 말문이 막혀 쩔쩔매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본 내외기자들속에서는 국회련석회의소집 전도와 관련하여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리 기자들은 남측사람들은 무엇때문에 〈련석회의〉라는 말만 나와도 펄쩍뛰느냐, 각계각층이 대화에 참가하는것이 그렇게도 두려우냐고 남측기자들에게 들이대자 그들은 상봉장소안의 자기측 대표들을 가리키며 저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이런 광경을 보고있던 남측에서 온 한 외신기자는 남조선에서는 〈국회〉안에서도 각 당, 각 파의 말이 다르고 〈국회〉에서 합의되였다는것도 인민의 의사와 다른것이 많다면서 복잡성이요 뭐요 하는것은 당국자들이 민족의 의사와 다른것을 추구할 때 쓰는 말이라고 넌지시 퉁겨주었다.

그렇다. 남측이 련석회의를 반대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다른 것을 추구하기때문이며 인민대중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회의형식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의제문제토의에 들어갔으나 여기에서도 진전을 본것은 없다.

우리는 상봉에서 북남국회련석회의 의제를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와 제 24 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로 할것을 제기하였다.

우리측 전금철단장은 우리가 두가지 의제를 제기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남관계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로 될수 있는중핵적인 문제이며 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도 남측은 의제문제에서도 불성실한 립장을 취하면서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남측은 우선 불가침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로가 아니라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 올림픽문제도 우리측의 의견에는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서울올림픽경기에 참가하는 문제로 일방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고는 인적·물적 교류문제, 기존 회담재개문제, 〈정상회담〉소집문제 등을 추가하면서 그것이 보다 긴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회담장밖의 기자들속에서는 저 사람들이 로○○의 분렬주의적인 〈 7.7 선언〉과 주제넘은 8.15 〈경축사〉를 팔아먹으러 온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왔다.

남측이 그나마 내놓았다는 의제들은 다 꼬리에 권고하는 문제, 촉구하는 문제라는 말들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문제들을 권고나 하고 국회로서는 불가침문제도 포함하여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이날의 상봉을 총괄하면 우리가 북남국회련석회의를 하루빨리 소집하고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겨레의 리익과 나라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실제적으로 풀자고 하는 립장에 서있었다면 남측은 말로는 〈통일〉이요, 〈신뢰〉요 하였으나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에 서있지 않았다.

남측은 마지 못해 대화에 응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던 지난 시기의 대화를 되풀이하려 한다는것이 회담장을 지켜보면서 기자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2차 상봉날자는 20일로 합의되였다.

다음번 상봉에서는 남측이 이러한 그릇된 자세를 시정하여야할 것이다.

2. 역시 하자는 립장이 아니다

(로동신문 글, 1988. 8. 21)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두번째 날에도 문제토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공전을 계속할것인가, 내외의 관심은 여기에 모아졌을것이다.

북과 남의 누구에게도 리로울 것이 없는 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쌍방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가 더 미룰수 없는 문제로 되고있고 올림픽개막도 이제 한달 못되게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을 내외가 주시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이날 상봉에서도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날 상봉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있었다. 상봉시작 30분전에 먼저 남측지역에 나간 우리 기자들은 남측에서 나온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두번째

상봉전도도 결코 밝지 못하다는것을 간파하였다.

우리기자들이 전날에 우리가 내놓은 합의서초안을 남측에서 많이 연구했겠는데 상봉결과가 좋을것 같은가고 묻자 그들은 한결같이 〈평양구경하긴 틀린것 같아요〉라고 하며 도리질을 하였다.

남측 기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며 실망을 표시하는가는 상봉이 시작되면서 곧 알려졌다.

문제토의에 앞서 환담을 할 때에는 남측도 상봉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군사분계선을 날려보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말에 동의한다고 하였지만 행동은 달리하였다.

남측은 첫 발언에서 첫날 상봉에서 우리측이 요구한 문제를 일부 받아들이는척하면서 〈수정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기본 립장과 자세에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례컨대 회담형식문제에서 그들은 우리의 국회련석회의제안에 응하여 상봉에 나오고서도 련석회의소집을 끝내 반대하였다. 그들이 〈국회대표회담〉이란 말을 〈국회회담〉이라는 말로 바꾸어 가지고 나왔지만 몇몇 제한된 소수 대표들의 회담을 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어제의 주장과 아무것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사실상 그것은 국회련석회의를 회피하기 위한 오그랑수였다.

또한 남측이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자기들이 제기한 5가지 의제의 일부 조항들을 바꾸어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도 본질상 기존립장을 되풀이한데 지나지 않았다.

실례로 남측은 〈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를 〈남북불가침문제〉로 바꾸어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정에 드러난데 의하면 일단 본 회의에 들어가 〈국회의 권능〉문제에 걸어 우리가 주장하는 불가침에 관한 선언발표

를 거부하고 당국에 그것을 권고나 하는것으로 그치자는 본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또 그들이 의제에 〈제 24 차 올림픽경기대회 문제〉라는것을 걸었으나 그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공동주최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 아니라 〈시간촉박〉을 구실로 공동주최는 슬그머니 백지화하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참가를 실현시켜보려는 심산에서 나온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측의 이른바 〈수정안〉은 〈양보〉를 하는척하면서 교묘하게 본래의 기도를 관철하기 위한것이고 문제토의에 적극성을 보이는척하면서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기 위한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하기에 내외기자들속에서는 〈남측이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다더니 오히려 요술을 피웠군〉이라고 하며 남측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우리 기자들이 보건대 결국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자세는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는 그들의 근본립장과 관련되는것이였다.

상봉장소에서 우리측이 거듭 해설한바와 같이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립장에 선다면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문제토의에서 복잡성이란 있을수 없다. 남측이 〈복잡성, 효률성〉을 운운하며 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북과 남의 절대다수 정치인들과 딴꿈을 꾸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자세를 상봉장소에서 그대로 옮겨놓은것이였다.

남측의 이러한 립장은 상봉과정의 여러 기회에 드러났다.

례컨대 남측의 한 대표는 남조선에서는 이른바 〈6 공화국〉의 하나의 〈헌법〉하에서도 〈국회〉에서 일이 잘 안되는데 서로 다른 헌법하에 있는 두 국회를 합쳐 련석회의를 하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식의 론리를 펴다가 민족공동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통일 3 대원칙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남조선

〈헌법〉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느냐 하는 우리측의 반박에 부딪쳐 쩔쩔매다가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날 우리측은 8월 26일에 북남국회련석회의를 평양에서 꼭 소집하려는 일념에서 남측이 고집하는 교류와 교역 문제도 포용한 신축성있는 새 제안을 내놓고 문제토의에서의 진전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으나 남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려고만 하였다.

그것은 〈민정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표단 단장을 제껴놓고 〈긴급제의〉를 한다고 하면서 북남국회련석회의와는 별도로 북남국회대표자회담을 열고 올림픽문제만 따로 토의하자고 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날 다른 당의 대표라는 사람들도 중뿔나게 나서서 단장이 할소리를 제가하면서 회담분위기에 혼잡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두고 외신기자들은 남측에서는 단장이 없이 회담을 하는것 같다고 말하였다.

올림픽문제가 일정에 올랐을때는 이런 장면도 있었다.

우리측은 올림픽공동주최가 좋은가, 남조선단독개최가 좋은가고 남측에 따지고 들었다. 이에 대하여 남측은 공동주최가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월등하게 좋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이 실현안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려하였으며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여 〈국회회담〉에서 론의해도 실현될수 없다는 주장만 하였다.

남측이 우리와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할 의사만 있다면야 그것을 실현하는데 장애될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상봉은 우리측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적 립장에 섰다면 남측은 분렬의 현상고착과 대결심리에서 출발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케이비에스〉기자가 상봉이 결렬되였다는 보도를 날려 상봉장소안 팎에서 문제가 되고 남측에서 사과하고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어느 한 기자의 실수가 아니라 남측의 일관한 대결자세에 기인한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한 외신기자는 상봉전반과정을 보고 〈남측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 인것 같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라면 무엇때문에 북의 정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딴소리만 하겠는가〉고 하였다.

사실 그렇다. 첫번째 상봉을 보고 서둘러 평가를 내리지 않았지만 오늘 두번째 상봉까지 본이상 명백한 결론을 내릴수 있다.

남측은 입으로는 문제토의에 열의가 있는듯이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 딴판이다. 그들은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여 북과 남사이에 평화와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려 하는것이 아니라 량면술책과 지연전술을 쓰며 련석회의실현에 장애를 가로지르고 있다.

민족은 남측이 이러한 그릇된 자세를 바로잡을것을 촉구하고 있다.

3. 문제토의를 원점에로 후퇴시킨 불성실한 행동

(로동신문 글, 1988.8.23)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세번째 상봉이 2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있었다.

북과 남이 한번 만나면 북남국회련석회의소집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이 쉽게 합의되고 또 련석회의도 곧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었으나 상봉이 예상치 않았던 난관에 부딪쳐 같은 취재길을 두번, 세번 가게되는 우리 기자들의 마음은 밝지 못했다.

이날 상봉도 북과 남에서 온 내외기자들이 붐비는 가운데 10시에 시작되였다.

우리측 전금철단장은 기본발언에서 지난 두차례의 상봉에서 표현된 쌍방의 립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괄하고 남측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에 맞게 해결하려는 립장에 섰다면 우리가 제의한 국회련석회의형식과 우리가 2차상봉에서 남측의 주장도 포용하여 새롭게 제기한 의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단장은 남측 수석대표가 상봉에 나오기에 앞서 2차상봉에서 자기들이 내놓은 이른바 〈수정안〉을 자기들의 〈최종안〉이라고 단언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회담전도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측은 이에 대해 량해를 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과 남의 국회대표들의 상봉의 전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말을 함부로 하며 상봉장소에 나온 남측이 문제토의에서 진실성과 성실성을 보일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사실 남측은 첫 발언에서부터 국회련석회의를 무슨 〈군중대회〉라고까지 모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나자빠졌으며 저들이 내놓은 협소하고 수공업적인 국회대표회담만을 고집하였다. 더우기 남측은 2차 상봉때 우리의 정당한 주장앞에 철회했던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재개문제를 다른 의제에 접목하여 들고나왔는가 하면 역시 보류하겠다고 했던 〈정상회담〉문제도 다시 독립적인 의제로 들고나왔다. 불가침문제, 올림픽문제에 대한 의제도 모호하게 문구표현만 바꾸어 우리를 업어넘기고 그 의제밑에서 저들의 본래의 기도대로 올림픽공동주최 반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 거부 등 목적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속심을 로출시켰다.

사실상 이것은 쌍방간에 이미 합의했던것을 뒤집어엎음으로써 문제토의를 첫 출발점으로 후퇴시키는 불손하고 신의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자 내외기자들속에서는 〈또 틀렸군…〉하는 소리가 튀여나왔다.

우리 기자들은 남측 기자들에게 국회련석회의를 하면 상정된 문제를 민족의 리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다는것이야 뻔한 리치인데 그것을 굳이 반대하는 리유가 무엇이겠는가고 물었다.

많은 기자들이 대답은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것으로 난처한 립장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자 한 외신기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30% 지지표밖에 받지 못한 민정당정권이 자기 의사대로 북남관계를 유지하는데는 국회련석회의가 무섭겠지요〉라고 하는것이였다.

우리에겐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였다.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민대중과 다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만이 인민대중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는 국회련석회의와 같은 폭넓은 협상무대가 두려운것이다.

상봉마당에서 우리측은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련석회의가 좋다는것이 뻔한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고 거듭 따져물었다.

그러자 남측은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남조선국회 일정이 바빠서 그런다느니, 다른 나라에 국회련석회의를 한 전례가 없다느니 하는 뚱딴지같은 구실을 들고나와 련석회의를 회피하려 하였다.

우리측이 북남국회련석회의에서 협의해결하자는 문제야 민족의 중대사인데 국회일정이 바빠서 못한다는것이 무슨 소리인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다른 곳에 우리처럼 민족통일문제를 안고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나라의 관례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고 질문도 하고 설득도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우리측 단장은 남측 수석대표가 발언에서 〈민족대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는데 쌍방 국회련석회의도 열지 못하고야 어떻게 온 민족의 대화합

을 이룩하겠는가고 따져물었으나 말문이 막혔든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북과 남의 립법기관이 새로 구성되고 북남인민들속에서 통일기운이 높아지고 대화 참여요구가 커진것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봐도 결실없이 끝난 대표회담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국회련석회의소집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참으로 고집불통이였다.

이날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이미 합의하였던 문제들을 뒤집어엎고 보류, 철회하였던 문제까지 도로 들고나와 회담앞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는데 대해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렇게 되자 남측 사람들은 의제에서 합의를 준 문제들이 없었던것처럼 사실을 외곡하며 오히려 발뺌을 하려 하였다.

남측에서 온 한 기자는 내 취재수첩에도 무엇을 보류한다고 하고 무엇은 철회한다고 했는가가 다 씌여져있는데 어찌면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가고 혀를 찼다. 그는 자기측 국회대표들이 〈당국자들의 침을 맞고 나온것 같다〉고 말하였다.

사실상 남측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던 의제토의를 원점에로 후퇴시킨것은 문제토의를 지연시키고 국회련석회의소집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는것이였다.

상봉에서는 남측이 올림픽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하여 북남국회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하여 일련의 론의들이 벌어졌다.

우리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와 올림픽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긴장,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진로를 개척하는데서 다같이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북남련석회의를 하루빨리 소집하고 여기에서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이날에도 〈시간촉박〉으로 공동주최는 불가능하

며 국회대표회담에서 우리 선수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나 협의하자는 식으로 나왔다.

우리측이 남측 주장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론박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함에 있어서 올림픽공동주최가 좋은가, 단독개최가 좋은가, 전번에는 올림픽공동주최가 월등하게 좋다는것을 시인하고 오늘은 또 왜 그것을 반대하는가고 거듭 따져묻자 남측은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하고 〈시간촉박〉이요 뭐요 하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남측이 올림픽공동주최는 반대하면서도 올림픽경기를 민족단합의 축제로 되게 하는데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하면서 국회대표회담을 긴급히 소집하자느니 뭐니 하고 들고나온것은 순전히 여론앞에 체면을 세우기 위한 오그랑수였으며 련석회의자체를 지연시키고 나아가서 부정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이였다.

남측의 모든 태도는 그들이 대화는 하되 속에 품은 칼은 내놓지 않으며 대화의 줄을 달아놓고 시간을 끌면서 〈두개 조선〉을 추구하려 한다는 의심을 다시금 가지게 하였다.

로○○가 〈7.7선언〉을 발표하고 〈통일〉이요, 〈교류〉요 하지만 그것이 기만이라는것은 더욱 명백해졌다.

이날 2시간반동안이나 상봉이 계속되였으나 쌍방회담에서 준수해야 할 신의마저 저버린 남측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하여 그 어떤 합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실상 문제토의는 후퇴하였다.

남측의 이러한 행동은 남북관계력사에 새로운 오점으로 기록되게 될것이다.

남측은 이러한 그릇된 대화자세에 대해 응당 반성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

4.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 아니다

(로동신문 글, 1988. 8. 27)

북남국회련석회의를 가지기로 되였던 8월 26일, 이날 국회련석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그 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네번째 상봉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있었다.

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이 난항을 겪지 않고 기대한대로 빨리 결속되여 이 시각 북남국회련석회의가 평양에서 소집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 올림픽공동주최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일정에 올랐다면 우리 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판문점취재길에 다시 오른 우리들에게는 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상봉에서 문제토의에 장애를 가로지른 남측의 행동은 민족앞에 죄악으로 된다고 생각되였다.

우리가 판문점 남측지역에 도착한것은 9시 30분, 우리는 남측에서 온 내외기자들과 섭쓸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이자 오늘 예정된 북남국회련석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그 준비를 위한 상봉이나마 끝장을 보아야겠다는것, 그동안 량측 단장들의 개별 접촉도 있었고 연구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니 문제토의에서 진전을 기대할수 있다는것 등등이였다.

쌍방 대표들이 서로 만나 회담을 할 때만 해도 이날 상봉에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질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남측 수석대표의 기본발언이 시작되면서 북과 남의 기자들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민족대화합〉이요, 〈통일〉이요 하고 말은 좋게 하였지만 북남국회련석회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고집하였으며 의제도 3차 상봉때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들고나와 펼쳐놓았다. 더우기 남측은 올림픽경기날자가 박두하였으니 〈국회대표회담〉을 열고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경기참가문제나 토의하자는 식으로 상봉에서의 문제토의방향을 돌리려 하였다.

그러자 기자들속에서는 남측의 온당치 못한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여나왔다.

〈그래 상봉날자까지 늦잡으면서 연구했다는것이 그게 다요〉, 〈도대체 하자는거요, 말자는거요〉

상봉장소에서는 우리측 전금철단장이 북남국회련석회의가 예정된 8월 26일에 열리지 못하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부당한 립장과 불성실한 대화자세로 문제토의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한 남측에 대고 강한 추궁을 하고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였다.

우리 기자들의 눈으로 보건대도 남측 사람들은 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결,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일을 하려 한다기보다 다른 목적을 노려 어떤 연극을 놀고있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민족대화합〉과 〈민의수렴〉에 대해 말하자면서광범한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수 있는 국회련석회의를 반대하고 소수의 몇몇 대표들만이 참가하는 〈국회대표회담〉만을 고집하겠는가.

의제문제토의에서 취하는 남측의 태도를 놓고도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

이날의 상봉도 남측의 부당한 고집과 이에 대한 북의 추궁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감돌고있을때 우리측은 상봉장소안팎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획기적인 새 제안을 내놓았다.

전금철단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봉을 구원하고 력사적인 북남국회들사이의 협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제안을 내놓겠다고 언명하자 내외기자들은 저마다 확성기가까이에 모여들었다.

—북남국회들사이의 협상은 북남국회의원들이 동석하는 합동회의로 한다.

—북남국회합동회의 제 1 차회의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제 1 차회의에서는 제 24 차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한다.

새 제안의 조항들이 발표된 때마다 기자들속에서는 〈정말 대범하다〉, 〈장훈을 불렀다〉라고 하며 환성을 질렀다.

사실 우리측의 새 제안은 회의형식, 참가자 등 여러 면에서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대범하고 아량있는 제안이였으며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밀고 공통점을 찾아 맺힌 고리를 풀므로써 상봉을 전진시켜 북남국회들사이의 력사적인 협상을 마련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것이였다.

내외기자들은 우리의 새 제안에 대한 남측의 반응에 주의를 돌렸다.

련석회의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다〉는것이 남측이 그것을 반대한 리유의 하나였는데 북에서 합동회의라고 했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는지 흥미있다고 말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우리의 새 제안과 관련하여 남측 대표들은 어떤 사람은 〈전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토의진전을 위해 〈성의를 표시한것으로 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련석회의와 〈본질상 다름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전면거부하고 〈국회대표회담〉만을 끈질기게 고집하였다. 도대체 북과 남의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아 민족의 리익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립장이 아니였다.

우리측은 회의 형식과 의제 등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토의하면서 쌍방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빠른 시일안에 국회합동회의를 소집하려고 성의를 다하였으나 남측은 막무가내였다.

이 과정에 평민당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남측 대표가 우리가 국회합동회의를 통해 남측국회의원들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 한다는 식의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다가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우리측의 추궁앞에 쩔쩔매기도 하였다.

우리는 남측이 국회합동회의를 끝끝내 반대하고 〈국회대표회담〉을 하자고 하는것이 야당대표들을 나팔수로 리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측은 남측의 요구도 고려한 새 제안을 내놓았는데 받아들이라, 그것을 반대하겠으면 무슨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하였으나 남측은 저들의 안이 〈최종안〉이라는 오만한 말까지 하며 상봉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회의형식, 의제문제 토의에서 말문이 막히게 되자 남측은 당면한 올림픽을 민족공동의 축제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체하면서 문제토의를 올림픽문제토의를 위한 〈국회대표회담〉에 끌고가려고만 하였다.

올림픽공동주최를 반대함으로써 올림픽이 민족공동의 축제로 될수 없게 하고있는것이 저 사람들인데 노는 꼴이 볼만하군 하며 혀를 차는 기자들도 있었다.

남측이 올림픽문제토의의 긴박성을 운운하는것은 그 공동주최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서울올림픽참가문제나 토의하자는것이였다.

그러기에 한 외신기자는 〈저 사람들이 왜 올림픽문제와 관련하여 열성이 있는체 하는지 압니까. 올림픽공동주최를 반대하며 그것을 안으로는 통일력량에 대한 탄압에 악용하고 밖으로는 북남대결과 전쟁,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주민들 특히 청년학생들의 반항이 크지요. 그네들이 〈올림픽〉, 〈올림픽〉하는것은 공동주최를 파탄시킨 책임을 모면하고 단독개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것이지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측의 한 기자는 남측의 거짓 〈열성〉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를 반대하는 그네들의 이 건물에 〈평화의 집〉이란 간판이 붙어있는것과 류사하다고 말하며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우리측은 우리가 내놓은 새 제안대로 북남국회합동회의를 하루빨리 소집하고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다루면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대표회담〉이요 뭐요 하며 복잡성을 조성하는가고 강하게 추궁하였다.

이렇게 되자 또 말문이 막혀 쩔쩔매던 남측은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였다. 4차 상봉을 그것으로 끝내며 5차 상봉은 10월달에나 가서 보자는 것이였다. 사실상 올림픽문제토의를 류산시킨다는 선포였다.

올림픽문제가 긴급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긴급제의〉라는것을 들고나와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오늘에 와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문제토의를 회피하는 남측의 태도는 그들이 〈국회회담〉이요, 〈올림픽문제〉요 한것이 시간을 끌다가 올림픽공동주최를 무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것을 명백히 해주었다.

우리측이 올림픽공동주최가 단독개최보다 월등하게 좋다는것은 남측이 인정한 바고 그러니 끝까지 공동주최문제를 토의하자, 상봉을 래일도 하고 모레도 하여 공동주최를 실현하고자 거듭 요구하자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은 거기에는 응하지 않고 먼저 일어나 나가려고까지 하였다.

우리측 전금철단장은 5차 상봉날자를 10월로 늦잡음으로써 올림픽문제토의를 무산시키려는 남측의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올림픽공동주최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고 못박았다.

남측은 우리의 국회련석회의소집제안에 응하고도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여 8월 26일에 평양에서 첫 련석회의를 할수 없게 한 책임을 져야 하며 올림픽공동주최를 파탄시킨 책임을 또한 져야 한다.

판문점은 남측의 이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온 민족앞에, 인류앞에 두고두고

고발할것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민족적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의 길이 아니라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남조선통치배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5.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상봉 북측대표단 성명

(1988. 8. 29)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발기에 의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던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북남국회의원들의 상봉은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10월로 미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8월안에 평양에서 북남국회련석회의 제1차회의를 개최할데 대한 문제는 무산되고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데 대한 문제는 더이상 해결할수 없게 되였다.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상봉 북측대표단은 쌍방상봉이 온민족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번 판문점상봉은 여러 갈래의 북남회담들이 일시에 중단되지 3년만에 다시 열린 대화로서 매우 중대한 사명을 안고있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와 북남사이의 가장 긴급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력사적인 북남국회련석회의를 탄생시킬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 판문점에 나간 우리 북측대표단은 상봉을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우리의 북남국회련석회의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던 당초의 립장과는 달리 협상형식문제와 의제문제를 복잡하게 들고나와 상봉앞에 인

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심히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였지만 어떻게 하나 상봉을 진전시켜 북남국회련석회의의 넓은 문을 열어 놓으려는 립장으로부터 대범하게 상대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보도 하고 보류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우리측이 회담형식문제에서 남조선측의 요구를 고려하여 국회련석회의대신 국회합동회의로 하며 다른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의 참가문제를 보류하고 본회담에서 협의할데 대한 획기적인 새 제안을 내놓았으며 회담의제문제에서도 당초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이외에 남조선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림픽문제와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 문제를 포함시키는 융통성있는 립장을 취하였다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일 남조선측이 거듭되는 양보와 성의있는 노력에 다소라도 리해를 표시하였더라면 쌍방은 이미 북남국회련석회의를 개최하고 북남사이에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현안문제들인 불가침문제와 올림픽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국회의원들의 상봉은 네차례의 공전끝에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겨레에게 실망만을 가져다주었다.

단 한차례의 상봉으로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을 네차례나 거듭하면서도 어느 한 문제도 합의하지 못하고 상봉자체를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측에 있다.

이번 판문점상봉의 총화는 남조선측이 대화에 림하는 근본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북남대화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이 대화는 마땅히 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주인인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

과 각 당, 각 파의 의사를 집대성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특히 오늘 남조선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북남대화에 직접 참여하려는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는 현실은 북남대화의 형식도 그에 맞게 선택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북남국회련석회의제안은 바로 조국통일문제의 성격과 온 민족의 요구와 념원을 반영한 최선의 합리적인 협상방식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은 이번 판문점상봉에서 북남국회련석회의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국회대표회담만을 고집하여나섰다.

남조선측은 확실히 통일대화에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가하는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을 대화에서 배제하려 하였다.

남조선측이 〈효률성〉이니 뭐니 하는것도 국회련석회의를 반대하고 광범한 대중을 통일대화에서 배제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효률성〉에 관한 문제는 회담운영방법과 관련되는 문제이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회담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회담운영방법을 회담형식선택의 원칙과 혼탕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남조선측의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이번 판문점상봉의 총화는 또한 남조선측이 우리와 대화를 하여 문제를 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있지 않는다는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그들은 지난날의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회담에서 의연히 지연전술에 매달리였다.

남조선측이 회담제의를 무려 5가지나 제기하였다가 상봉과정에 보류하였거나 우리와 합의를 본것도 다시 취소하고 나중에는 본래의 의제를 그대로 들고나왔으며 저들의 체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한것은 바로 대화마당을 대결마당으로 만들려는 립장의 반영이며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아

니라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그릇된 태도의 표시였다.

사실들은 남조선측이 북남사이에 불가침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가지고있지 않고 올림픽공동주최문제를 풀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 문제를 해결할 용의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들이 이번 상봉에서 올림픽공동주최를 결사반대하면서 단독개최를 집요하게 추구해나선것은 올림픽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리롭게 치르려는것이 아니라 북남사이의 대결과 나라의 영구분렬에 악용하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측이 8월안에 북남국회련석회의 제1차회의를 열고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각종 구실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문제토의에 장애를 조성하다가 끝내 상봉자체를 10월로 미루자고 비탈내기를 한것은 그들이 올림픽문제해결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실증하여준다.

모든 사실로 보아 남조선측이 이번에 판문점상봉에 나온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북남국회련석회의제안의 영향력을 막고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통일기운을 무마하며 나아가서 올림픽공동주최를 가로막고 단독개최를 강행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남조선측은 이번 판문점상봉을 공전시키고 지연시켰으며 올림픽공동주최해결을 파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측이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조선측은 대결과 분렬의 립장을 버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립장, 평화와 평화통일의 립장으로 돌아서서 새출발을 하여야 할것이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상봉을 성공시켜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려는것은 우리측의 확고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북남국회련석회의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것이며 훌륭한 결실이 있을 때까지 판문점상봉의 문을 닫지 않을것이다.

1988 년 8 월 29 일

평 양

6.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로동신문 론평, 1988. 10. 14)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다섯번째 상봉이 1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있었다.

1970년대초 인도주의회담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북남대화장소로 되여온 판문점에서 북과 남사이의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나 대체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전을 계속하거나 결실을 보지 못한채 중단되여 인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도 같은 전철을 밟아왔다. 우리측으로서는 단 한번이면 충분할것으로 보았던 상봉이 예상치 않은 암초에 부딪쳐 8월로 예정했던 련석회의는 열리지조차 못하였고 따라서 온 겨레가 기대하던 올림픽공동주최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기자들은 판문점에서 북남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곳을 찾군한다. 그것은 판문점을 찾아 국토를 가로지른 분계선표식물을 볼 때마다 더욱더 커지는 분단에대한 아픔과 함께 통일을 념원하는 겨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싶은 뜨거운 마음때문일 것이다.

이날 상봉장소로 된 통일각에는 북과 남에서 수많은 내외기자들이 모여 상봉분위기를 돋구었다.

그러나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에 앞서 남측에서 온 기자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날의 상봉도 성과없이 끝나는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측기자들이 하나같이 남쪽에서 단독강행된 올림픽〈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면 〈북방정책〉 선전에 열을 올렸기때문이다. 상봉이 시작되면서 남쪽에서 온 국회의원들도 같은 말을 하였다. 그들이 꼭같은 말을 하는것으로 보아 남조선당국이 침을 단단히 놓은것 같았다. 같은 겨레의 참가마저 가로막고 반쪽올림픽, 분렬올림픽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두개 조선〉을 위한 〈교차승인〉 레루를 놓으면서도 그것을 〈성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상봉을 통일에 유익하게 진전시키려 하겠는가, 누구나 품을수 있는 의혹이다.

상봉장소안팎에서 불미스럽게도 올림픽공동주최를 파탄시키고 그것을 단독강행하여 민족사에 치욕의 오점을 남겼으며 그것을 기화로 분렬을 고착시키기위해 혈안이 되고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부터 울린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고해야 할것이였다.

이날 상봉이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된만큼 우리측 전금철단장이 먼저 발언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쌍방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의 첫 막을 올린 때로부터 거의 옹근 두달이 지났으나 국회련석회의를 탄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은 제24차 올림픽경기의 공동주최도 실현시키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상봉이 진전되지 못한것은 그 어떤 방도상의 차이나 실무절차상의 차이에서 온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립장상의 차이에서 온것이라고 명백히 까밝히였다.

그는 이어 4차례에 걸쳐 공전을 거듭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을 총화하고 문제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쌍방은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낡은 대결의 관념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립장을 견지하고 쌍방 국회의원들이 민족앞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감과 사명에 충실해야 하며 서로 높은 성실성과 신의를 가지고 대화를 운영해나가며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민족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대화에 림하는 남측의 부당한 립장과 자세에 대한 강한 추궁이였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애국애족적발기와 진지한 노력으로 마련되게 된 북남국회련석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여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준것은 전적으로 대화에 림하는 남측의 부당한 립장과 자세때문이였다.

남측은 국회련석회의를 열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제24차 올림픽공동주최문제를 토의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응해나오고서도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으로부터 국회의원전원이 참가하는 련석회의를 반대하고 몇몇 의원들이 참가하는 대표회담만 고집하였으며 정치인으로서 민족앞에 지닌 책임감을 망각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를 당국에 권고나 하자는식으로 들고나왔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들고나와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는가 하면 이미 합의했던 문제까지 뒤집어엎으며 아무것도 합의에 도달할수 없게 하였다.

하기에 대화원칙문제에 대한 우리측 단장의 발언에 대해 외국기자들은 물론 남측 기자들도 모두 긍정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상봉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회의 형식과 의제 문제

에 대한 획기적인 새제안을 내놓았다. 국회회담형식은 국회합동회의로 하되 참가인원수를 대폭 축소하여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수의 3분의 1, 남측의 전체 국회의원수의 절반으로 각각 줄이자는것, 의제문제는 올림픽문제가 자동적으로 탈락된 조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로 하자는것이였다.

쌍방 상봉에서의 기본론쟁점인 회의 형식과 의제에 대한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은 남측이 제기하고 고집하는 문제들도 포용하여 제기한 대폭적인 수정안이며 양보안으로서 어떻게 하나 상봉을 진척시켜 국회합동회의를 성사시키려는 우리측의 아량과 성의를 뚜렷이 보여준것이였다.

북남기자들과 외국기자들 속에서는 〈북측이 대폭 양보했다〉, 〈남측은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들이 튀여나왔다. 한 외국기자는 우리를 찾아와 상봉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본회의를 성사시키려는 북측의 성의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측수석대표의 발언이시작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그는 올림픽공동주최를 저들이 파탄시키고도 반쪽올림픽〈자랑〉을 하면서 북의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은것이 〈유감〉이라느니 뭐니 하며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부터 하였다.

그는 또한 〈화해와 단합〉이요, 〈민족공동체〉요 하면서도 지난 시기의 그릇된 립장을 바꾸지 않았다.

례컨대 회담형식과 관련하여 국회합동회의형식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개막, 폐막 회의만 합동회의로 하고 의제토의는 대표회담에서 하자고 함으로써 종래 립장을 되풀이하였다. 대표회담 참가인원수도 절대적이 아니라고는 하였지만 종래 20명으로부터 이번에는 5～6명으로줄여 오히려 후퇴하였다.

의제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측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앞에 이미 보류하거나 철회했던 문제들인 기존대화재개문제, 〈정상회담〉권고문제를 다시 들고나옴으로써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

불가침문제도 우리의 요구대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자는것인지 저들의 종전립장대로 그것을 채택하도록 당국에 권고나 하자는것인지 모호한것이였다.

이것은 종전의 부당한 립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무슨 새로운것을 내놓는것처럼 요설을 피운데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기자들속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우리 기자들은 남측 기자들에게 들이대였다.

당신네는 국회합동회의에서 의제를 토의하는것을 한사코 반대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가, 통일을 바라는 인민들과 다른 꿈을 꾸기때문이 아닌가, 긴장완화없이 속에 칼을 품고 교류, 교역이 제대로 될수 있는가.

남측 기자들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벌개졌고 그 광경을 보며 외국기자들은 비난의 웃음을 던졌다.

상봉장소안에서는 우리측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획기적 제안의 정당성을 거듭 해설하며 그것을 받아들일것을 남측에 촉구하고있었다.

그러나 남측은 〈생산성〉이요, 〈효률성〉이요 하는 외마디소리만 반복하면서 우리가 제기한 회담형식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제문제에서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측은 우리가 획기적인 새제안을 한 이상 깊이 연구하고 다음 상봉때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올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상봉은 두시간나마 걸렸으나 다음번 상봉을 11월 17일에 하기로 한것외 합의에 도달한것은 없다.

우리는 다섯번째 상봉에서 취한 남측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상투적 수법대로 북남대화를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용하고있다고밖에 다른 해

석을 할수 없었다. 요즘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제반 사태와 련결시켜볼 때 더욱 그러하였다.

폭로된바와 같이 로○○일당은 〈7·7선언〉을 통해 안으로는 교류요, 교역이요 하며 껄렁껄렁 시간이나 보내면서 밖으로는 〈교차승인〉, 〈유엔가입〉의 방법으로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렬주의적 립장을 드러냈다. 그들은 분렬주의적인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영구분렬의 길을 닦으려고 혈안이 되고있다. 남측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한것이 아니라 분렬주의적인 당국의 둘러리노릇을 하고있는것이였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통일문제해결에 광범한 민의를 폭넓게 반영하는것을 반대할수 있으며 국회련석회의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과 같은 중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교류, 교역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전면에 들고나와 상봉앞에 난관만 가로지르겠는가. 남조선에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공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고있고 속에 칼을 품고있는 조건에서 교류, 교역이나 하자는것은 사실상 그것도 안하겠다는 소리이다.

이날 상봉을 총평하건대 우리측이 폭넓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애국애족적 립장에 서있다면 남측은 대화를 한다는 인상이나 풍기면서 그것을 〈두개 조선〉조작의 방편으로 리용하려는 매국배족적 립장에 서있었다.

남측의 이러한 태도는 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7. 양보도 대폭 양보다

(로동신문 보도, 1988. 11. 16)

북남국회회의 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여섯번째 상봉이 1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있었다.

상봉취재를 위해 판문점에 이른 우리 기자들의 감정은 례사롭지 않았다.

첫 상봉 취재를 위해 이곳에 왔을때만 해도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있었는데 이제는 락엽이 지고 추위가 접어들고있었다. 단 한번이면 충분히 본회의를 마련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예상외의 장애로 90여일이라는 시간을 끌고 그사이 절기마저 두번이나 바뀌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고 판문점에 갔다. 그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과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위한 방안을 담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에도 밝은 전도를 열어놓았다. 남조선에서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세계적 판도에서도 평화와 완화를 지향하는 조류가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우리는 이런 정세를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상봉에서는 응당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날 상봉에서 우리측 전금철단장은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회담형식과 의제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에 부딪쳐 공전을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말하였다.

수개월간에 걸치는 상봉의 결과가 령이라고 할 때 더우기 그것이 한민족끼리의 상봉결과임을 고려할 때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며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에 저촉되는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지금 주변나라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지역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호상 얽힌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순리롭게 풀어나가지못한다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모처럼 마련된 국회의원들의 상봉에서 회담형식문제와 의제문제를 가지고 시야비야하면서 본회의개최를 무한정 늦춘다면 온겨레의 비난의 대상이 될것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것이다.

그는 판문점상봉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수정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은 우선 상봉에서 기본론쟁점으로 되여온 회의형식문제와 관련하여 북남국회회의는 개막회의와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 페막회의로 하되 개막회의와 페막회의는 북남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로 하고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1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표회의로 할것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합동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의제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와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로 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 문제들을 상정하면 온겨레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있는 북남불가침문제와 남측에서 주장하고있는 기존대화재개문제, 인적, 물적 교류문제 등을 다 포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측의 새로운 수정안은 남측의 주장도 충분히 포용한 대폭적인 양보제안으로서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 북남국회회의를 하루빨리 마련하여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포함하여 민족앞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애국애족적 립장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하기에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이 나오자 회담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속에서는 흥분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 남측에서 온 많은 외신기자들이 《북측에서 또

양보다, 양보도 대폭 양보다〉, 〈매번 봐야 북측에 성의가 있다〉라고 하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기가 있는데로 달려갔다. 남조선기자들도 그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남측의 립장에서는 사실상 달라진것이 없었다.

이날 상봉에서 먼저 기본발언을 한 남측 수석대표는 무슨〈양보〉나 하는것처럼 말했지만 회담형식에서는 의제토의를 몇명의 대표들만이 참가하는 국회대표회담으로 할데 대한 립장을 바꾸지않았고 의제문제에서는 저들이 일단 철회, 보류하였다가 다시 들고나온 기존대화재개문제, 정상회담문제를 정식의제로 상정시켜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리고 불가침문제를 불가침선언문제라고 함으로써 표현상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외군철수, 북남군축 등 불가침을 담보할수 있는 본질적 문제들이 들어있는 극히 애매하고 모호한것이였다. 남측의 제안은 형식면에서나 의제에서나 5차상봉에서 내놓았던것의 복사판이였다.

이것은 대화에 림하는 남측의 그릇된 자세와 립장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뚜렷한 증거였다.

돌이켜보면 6차까지 이어져온 지난 상봉들에서 우리측이 매번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남측의 의사를 참작하여 양보도 하면서 상봉의 원만한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면 남측은 부당한 립장을 고집하면서 회담형식을 몇몇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회대표회담으로 하자고만 고집하였으며 의제문제에서도 중간에 몇번 수정제안을 하는척하였지만 결국 엎쳤다 제쳤다 하면서 첫 상봉에서 내놓았던 부당한 의제를 그대로 고집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질수 없게 하였다.

이날 상봉에서 취한 남측의 태도는 지난번 상봉들에서 취한 그릇된 립장과 자세의 연장이였던것이다.

이런 그릇된 자세로 나왔다가 우리의 획기적인 새 제안에 부딪친 남측은 당황함을 갖추지 못하였다. 상봉은 우리측의 새 제안에 기초하여 쌍방의 의견을 좁히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문제는 우리의 제안이 남측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한 성실하고 아량있는 제안인만큼 남측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였으나 남측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또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한것이다.

남측은 우선 회의형식과 관련하여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를 대표회의로 하지 말고 대표회담으로 하자고 고집했는가 하면 인원수도 100명이면 너무 많다고 하였으며 그밖에 아무것도 문제될것이 없는 운영절차상 문제를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으며 문제토의를 지연시켰다.

우리측은 대표회담이 대결관념에서 출발한 협상형식이라면 대표회의는 서로 나란히 앉아 네편 내편이 따로없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속에서 문제토의를 할 수 있는 좋은 협상방식이다. 대표회담은 단장중심으로 문제토의가 이루어지지만 대표회의는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전체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수있어 좋다. 우리가 대표회의를해도 집행부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조정하자고 하는 만큼 남측이 주장하는 쌍방회담도 수용한것으로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의 주장은 명백하고 설득력있었다. 상봉장소밖의 기자들속에서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민족화합〉을 주장하는데 쌍방에서 100명이 참가하는 회의도 못하겠다면 도대체 〈민족화합〉은 어떻게 하겠다는것인가고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측은 회의형식과 관련하여 납득이 가게 계속 해설을 가하는 한편 국회대표회의 참가자수를 대폭 줄여 각각 50명으로 할데대한 수정제안을 다시금 내놓았다. 참으로 이것은 교착상태에있는 상봉을 어떻게 하나 진전시켜 국회회의를 하루빨리 마련하려는 우리의 성실성을 다시한번 보여준것이였다.

이렇게 되자 내외기자들속에서는 물론 상봉장소안에서까지 〈정말 대폭 양보다, 북에서 통장을 불렀다〉라는 말이 튀여나왔다.

우리측의 거듭되는 양보와 성실한 자세에 눌려 어쩔바를 모르게 된 남측은 서울의 지령을 받자는것인지 휴회를 하자고 하였다. 휴회끝에 다시 나온 남측은 개막회의와 페막회의 진행방법, 대표회의 집행부구성과 운영위원회 조직 등 일련의 문제에 동의를 표시하였으나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형식을 대표회의로 하겠는가, 대표회담으로 하겠는가는 더 연구를 해야겠다고 하였다. 그들이 대표회의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집행부구성, 운영위원회조직 등 문제들은 우리가 제의한대로 좋다고 하면서도 대표회의방식을 받아들일수없다는것은 자기당착의 모순된 론리로서 어떤 타당성도 가질수없었다. 결국 회의형식에서 일정한 전진은 하였으나 기본문제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의제문제와 관련한 론의가 벌어졌는데 남측은 자기들도 부당성을 인정하고 일단 철회 또는 보류했다가 다시 들고나온 문제들을 그냥 정식의제로 상정시키고자 고집하였다. 그래서 의제문제는 의견을 접근시키지도 못한채 그 토의를 다음상봉에로 미루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측이 무엇때문에 부당한 문제를 계속 고집하며 상봉을 결속지으려 하지 않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들속에서 일련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남조선의 한 기자는 지금 〈5공화국비리〉청산, 광주사태진상해명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재야세력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고있는 이남당국자들에게는 북남국회들사이의 본격적인 대화마당을 당장 펼칠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물론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다 중요한 리유가 있다고 보여졌다. 지금 남조선통치배들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나라들사이에 하는것처럼 인적, 물적 교류, 교역이나하면서 지내자고 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북방정책〉을 실현하여 〈교차

승인〉의 방법으로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분렬을 추구하는 이것이말로 상봉에서 문제토의를 지연, 방해하는 요인의 핵이 아니겠는가.

이날 상봉에서는 다음번 7차상봉을 12월 15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여섯번째 상봉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인민들이 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북남국회들사이의 본회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남측 국회의원들이 분렬주의적인 당국에 추종하여 지연전술이나 써서 되겠는가. 그것은 자기들을 선거한 사람들을 배신하는것이며 결국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측의 지난 시기 그릇된 대화자세로 보아 그들이 앞으로도 회의형식문제를 가지고 롱간을 부리거나 의제문제를 가지고 난관을 조성하며 상봉을 지연시키려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우리는 남측이 다음번 상봉에서 취하는 자세를 지켜볼것이다.

8.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상봉 북측대표단장 전금철 담화

(로동신문, 1989. 1. 12)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상봉 북측대표단 전금철 단장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올해에도 례년과 같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　　　*　　　*

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올해에도 례년과 같이 〈팀 스피리트〉합동군

사연습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묵인할수 없다.

우리의 인민무력부 대변인담화에서도 언급되였지만 지난해에 북과 남사이에는 국회합동회의 준비를 위한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상봉이 열릴수 있는 전망이 트이게 되였고 또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 학생회담, 체육회담과 같은 여러 갈래의 회담이 일정에 올라 전반적 정세가 완화와 대화의 방향으로 좋게 흐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불가침공동선언발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열자는 우리의 제안에 남측이 동의해왔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하여 언급하는것으로 보아 이제는 남측이 대결과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할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러한 념원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7차상봉때에 북남국회합동회의를 빨리 성사시키고 다른 대화들도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남측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북남국회대표회의 첫째 의제로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완화와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대신 오히려 새해벽두부터 미국과 합세하여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할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전쟁연습이 대화와 량립될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번만 말한것이 아니며 또 지난날의 교훈이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좋게 성숙되여가는 대화의 전도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새해벽두부터 로골적으로 호전적인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을 벌리겠다고 하는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완화와 대화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제로는 정세를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북남대화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이 무모하고 모험적인 전쟁연습책동을 완화와 대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있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병력과 군사장비, 훈련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그것이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공격훈련이며 〈핵예비전쟁〉 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병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을뿐아니라 최근에는 포괄적인 평화제안과 여러갈래의 협상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미국본토와 괌도, 오끼나와와 필리핀으로부터 방대한 병력과 공격용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집결시키고 상륙작전과 도하작전, 기습작전을 벌리려 하는것은 결코 그 목적이 누구의 공격을 막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치자는데 있는 것이다.

대화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극하는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모처럼 성숙되여가던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는 또다시 위협에 처하게 될것이며 그때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전적으로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완화와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면 완화에 역행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대화와 평화를 바라

는가를 식별하는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

1989 년 1월 12일

평 양

9. 북남국회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판문점상봉 북측대표단 대변인성명

(로동신문, 1989. 2. 8)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국회의원들의 상봉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북남대화앞에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 * *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2월 10일 판문점에서는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국회의원들의 제8차 상봉이 열리기로 되여있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지난해에 시작되여 일곱차례나 거듭되여온 북남국회의원들의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또다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북남대화앞에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국회의원들의 상봉이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념원으로부터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남측에 여러번 권고하였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제7차 상봉에서는 남측에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정식 제기하고 그것을 북남국회대표회의의 첫번

째 의제로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우리는 지난 1월초에 남조선측이 진정으로 대결을 추구하지 않고 민족적 단합을 지향하여 정책전환을 할 용의가 있다면 최소한 올해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태도라도 명백히 표시할것을 촉구하였으며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이 일정에 오른 지난 1월 12일에는 국회의원상봉 북측대표단 단장의 담화를 발표하여 그의 무조건 중지를 다시금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정당한 충고와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과 함께 끝끝내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말로는 〈대화〉와 〈완화〉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지로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으며 민족적 단합을 위한 동족과의 대화보다 동족을 멸살하려는 외국군대와의 군사연습에 더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측이 국회대표회의 의제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상정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나서는 조건에서 북남국회의원들의 제8차 상봉은 예정대로 가지기가 어렵게 되였다. 따라서 우리측 대표단은 이번 판문점상봉날자에 나갈수 없게 되였으며 북남국회의원들의 제8차 상봉은 부득이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이 끝난후로 연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인정한다.

북남국회의원들의 제8차 상봉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 남조선측이 져야 할것이다.

1989년 2월 8일

평 양

10.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 북측대표단 성명

(로동신문, 1989. 3. 17)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 우리측 대표단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우리측의 요구와 민족의 념원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　　　*　　　*

미국과 야합하여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온 남조선당국이 그 중지를 요구하는 내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본격적인 공격작전단계에 들어간것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일뿐아니라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 북측대표단은 지난해말에 있었던 제7차 상봉에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합동회의의 첫번째 의제로 토의할것을 제기하면서 남측이 대규모전쟁연습을 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었다.

올해에 들어와 열린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서도 우리측은 대결을 조장하고 전쟁위험을 초래하는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립장을 밝힐것을 남조선당국에 거듭 요구하였다.

우리는 남측이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만큼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남조선군대만 가지고 훈련을 하며 그 규모도 축소하고 명칭도 바꾸는것과 같은 대책을 취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측의 요구를 외면하고 외래침략군과 함께 〈팀 스

피리트 89 〉 합동군사연습을 종전처럼 큰 규모에서 실시한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을뿐아니라 우리와의 대결을 로골적으로 추구해나섰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우리의 대화 상대방인 남측 〈국회〉가 〈팀 스피리트 89 〉 전쟁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말에 있었던 제 7 차 상봉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민족적 단합과 평화통일에 결정적으로 해롭다는것을 남측에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남조선 〈국회〉 가 〈민의를 대표〉 한다면 응당 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완화와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것을 루루이 강조하였다.

만일 남측 〈국회〉 가 우리와의 대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토의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있다면 우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했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그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것처럼 표방해나섰던 남측 〈국회〉 가 민족의 념원에 배치되는 〈팀 스피리트 89 〉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당국자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그 중지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채 속수무책으로 있었다는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거듭되는 우리측의 경고와 민족의 념원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팀 스피리트 89 〉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의 전쟁책동을 완화와 평화와 대화를 부정하는 침략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로 단죄하면서 온 민족과 더불어 준렬히 규탄한다.

남조선에서 무분별하게 〈팀 스피리트 89 〉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극히 우둔한자들이다.

〈팀 스피리트 89 〉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국침략군의 우둔한자들이 어느때

어떤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으며 그 불티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실전으로, 전면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신성한 조국강토와 사회주의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굳건히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 기개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훈련을 위하여 남조선에 투입한 모든 병력과 장비들을 지체없이 남조선경외로 끌어내가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북남대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침략자들에게 그것을 구걸할 의사는 조금도 없다.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와 〈완화〉와 〈통일〉이 가짜가 아니라면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적인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으로써 자기들의 명백한 태도를 표시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북남대화가 지연되는데 대하여 민족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89년 3월 17일

평 양

11. 대화장을 반공대결장으로 만든 신사들

(로동신문 론평, 1989. 10. 27.)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림으로써 쌍방대표들의 상봉을 중단상태에 빠뜨린 남측이 감히 다른 사람에 대고 중단책임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통일을 위해 의로운 길을 걸은 사람들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대해 말할수 있는가〉

이것은 25일 판문점에서 있은 북남국회합동회의를 위한 북과 남의 대표들의 8차 상봉때 남측을 추궁하여 우리측 전금철단장이 한 말이다.

남측은 이 상봉이 10개월동안이나 중단되게 되였던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우려 하다가 우리측의 강력한 추궁을 받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북남국회합동회의를 위한 쌍방대표들의 상봉은 남조선통치배들이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우리를 적으로 삼아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화분위기를 파괴함으로써 중단되였었다.

또한 우리측의 거듭되는 상봉재개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남조선인사들의 평양방문을 트집잡으며 상봉을 무기연기한다고 함으로써 10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마련되게 되였다.

남측은 저들의 잘못으로 상봉이 중단상태에 빠지게 된것과 관련하여 응당 우리측과 겨레 앞에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였다.

그런데 상봉에서 그들은 오히려 제편에서 흰것을 검다고 하며 벽두부터 도발적으로 나왔으니 어떻게 우리측의 추궁을 면할수 있었겠는가.

상봉 첫 시작이 이렇게 되다보니 이날 많은 시간이 이 문제 토의에 바쳐졌다. 우리측은 남측국회의원들이 저들당국을 대변하여 신성한 대화장소를 대결의 장소로 만들지 말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려면 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진정으로 완화를 바란다면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

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 등 평양을 다녀간 인사들의 문제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측은 말문이 막히게 되자 〈팀 스피리트〉는 〈남침위협〉때문에 하는〈방어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전쟁정책을 두둔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모두의 격분을 자아냈다.

우리측 대표들은 우리에게 남침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과 남이 대화하고 통일을 하자고 하는 때에 무엇때문에 외국군대와 함께 동족을 공격하는 전쟁연습을 하느냐, 이것은 민족의 수치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상봉장면을 지켜보던 북남기자들속에서 남측의 부당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조선을 미국의 핵기지로 만들고 미제와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이 남조선통치배들이라는것을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데〈남침위협〉 넉두리가 통할수 있는가〉

〈이번에 로○○가 미국에 가서 서툰 영어까지 주어섬기며 아양을 떨고 미군유지비를 더 부담할것을 담보하며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달라고 애걸했는데 그것도 우리의 〈위협〉때문이라고 해서 곧이들을 사람이 있는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내맡기고 그들과 함께 우리를 침략할것을 꾀하면서 허튼소리를 하지 말라〉.

우리측 기자들속에서 이런 말이 연방 나오자 남측기자들은 〈욕이야 나보다 당국자들을 두둔하는 저 사람들이 먹어야지요〉하며 얼굴이 벌개졌다.

우리 기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외신기자들도 북측에서 〈팀 스피리트〉

를 문제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날 상봉에서는 남측이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 등의 평양방문을 두고 그것이 누구의 〈정치공작〉에 의한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였을 뿐아니라 우리의 민족통일협상회의제안에 대해 〈통일전선전략〉이라고 시비해나서고 우리의 자주적이고 존엄있는 정치체제를 걸고드는 오만한 망동을 한것으로 하여 분위기가 더욱 흐려졌다.

우리측은 남측의 이러한 행동에 호된 타격을 가했다.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이 밝힌바와 같이 그들은 통일열망을 안고 스스로 북을 찾아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여 정치공작으로 되는가,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간첩〉으로 날조하는것이야말로 공작정치이다.

통일전선전략이란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손잡고 힘을 합치자는것인데 여기에 무엇이 나쁜것이 있는가〉

남측에 련속 들이댄 우리측의 주장은 어느것이나 정정당당하였다. 기자들속에서는 다시금 남측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말이 터져 나왔다.

〈안기부만 개입하면 애국자가 간첩으로 되고 〈국가보안법〉만 휘둘러대면 애국자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야 하니 그것들을 두고야 어떻게 통일을 하겠소〉

우리 기자들의 말이였다.

남측기자들도 이에 공감하여 〈립법권을 가졌다는 국회의 대표들이 저모양이니 그래서 야단이지요〉하며 혀를 찼다.

우리측은 남측이 우리가 자주성을 견지해나가는데 대해서와 우리가 내놓은 정당한 통일방안에 대해 시비하고 〈자유〉요, 〈인권〉이요, 〈개방〉이요 하면서 체제를 걸고드는 도발적 행동을 한데 대해 엄격히 추궁하고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자들은 이날의 상봉을 보면서 남조선에 〈공안정국〉이라는것을 펼치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말을 받아외우는 남측사람들의 가소로운 언행에 조소를 보냈다.

이날 우리측 단장은 남측이 그 무슨 〈개방〉에 대해 떠든데 대해서도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촉수를 허용하라는것이 아닌가, 주체성을 상실하고〈개방〉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사대매국적 관념에서 나온것이 아닌가고 따지고들었다.

이날 기자들은 민족통일협상회의라는 말조차 제대로 번지지 못하면서 그것을 〈엉뚱한것〉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무례하지 않는가고 우리측이 남측에 공격을 들이댈 때에는 〈잘한다〉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남측대표들은 이날 점수를 많이 떼웠다. 특히 남측수석대표가 례의도 도덕도 다 줴버리고 험담을 함부로 늘어놓았을 때 기자들속에서는 〈이전 독재시기부터 배운 깡패기질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말까지 나왔다.

객관적으로 보건대 이날 남측은 화해와 단결의 분위기속에서 문제토의를 진전시키려는것이 아니라 반공대결관념에 젖어 대화장소마저 대결장으로 만들 불순한 기도를 가지고 나왔다. 하기에 〈제안〉이라는것을 내놓으면서도 그들은 국회회의형식과 관련하여 〈민정당〉의 독판치기, 국회회담의 〈당국주도화〉를 노린 대표회담형식을 그대로 들고나왔다. 이날 상봉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남측이 민족자주적 립장을 버리고 미제에 추종하여 외세와 함께 우리를 침략할것을 꾀하는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의 반공악법을 유지하고 시대 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계속하며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는 한 대화와 통일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지울수 없었다.

우리측은 대화중단으로 잃어버린 근 1년간을 되찾는 의미에서 하루빨리 북남국회합동회의를 마련하여 온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려는 립장으로부터 일련의 양보를 담은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봉에서는 남측의 반공대결자세로 말미암아 기본문제토의에 들어갈수조차 없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상봉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여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막은데 대해 우리측의 요구대로 응당 사죄하고 11월 29일에 하기로 된 아홉번째 상봉에 나와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12. 누가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로동신문 론평, 1989. 12. 1)

북남국회합동회의를 위한 북과 남의 대표들의 제9차 상봉이 11월 29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있었다.

이날 취재길에 오른 우리 기자들의 심정은 기대와 의문이 엇갈린것이였다.

민족의 기대로 보면 문제토의를 빨리 끝내고 상봉을 마무리 해야겠지만 최근 북남회담들에서 거듭 부당한 립장을 취하여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년내 교환을 어렵게 만들고 북남유일팀구성에도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남측이 이날 상봉에서는 과연 성의를 보이겠는가, 이것이 못내 의심스러웠기때문이다.

그것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쥐구멍만한 개방〉

이날 우리측은 국회합동회의를 위한 실무절차문제토의에 직접 들어갈것을 제기하면서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화형식과 의제등에 대한 우리측의 립장을 다

시 한번 천명하였다.

그런데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은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를 걸고들었다. 우리가 〈개방〉이요, 〈개혁〉이요 하는것을 안하는것이 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통일문제도 〈잘 해결되지 못하게 한다〉는것이였다. 이것이야말로 대화상대방의 체제를 헐뜯는 무리한 행동이였고 사실상의 도발이였다.

우리측 단장은 남측의 이 역스러운 행동과 관련하여 남측이 쩍하면〈개방〉에 대해 말하는데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을 말하는가, 남북관계를 놓고 하는 〈개방〉이야기인가, 〈개방〉내용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것인가, 또 사람들도 제한없이 자유래왕하는것을 전제로 한것인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보는것인가, 정식 정책표명을 하는것인가고 따졌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남측 수석대표는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면서 자기측의 다른 대표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였다. 이 자체가 어처구니없는것이였지만 그 대표의 대답내용은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이였다. 즉 북남관계에서는 〈경제개방〉이나 한다는것이고 본질은 우리 체제에 〈금〉이 가게 하고 무엇을 얻어보겠다는것이였다.

누가 보나 가소롭기 그지없었다.

우리측은 우리는 세계앞에서도 문을 열어놓고있고 북남사이의 개방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무엇때문에 쥐구멍만하게 문을 여는 〈경제개방〉만 하겠는가, 우리는 전면개방하자는것이다, 민족사에 오점으로 되는 콩크리트장벽을 우리 시대에 허물고 자유래왕하자고 들이대였다. 또 무슨〈개혁〉에 대해 운운하는데 우리는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자주권을 전취했고 민주개혁도하고 사회주의개혁도 했다. 우리는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의 길로 계속 나아갈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후퇴란 있을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쪽에서 나라와 민족을 예속시키고 자주권을 파는 식의 잘못된 개방을 했으니 자주권을 찾는 개혁을 하라,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며 선진사상을 인정하고 진보적정당의 조직을 합법화하는 민주화개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남측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며 계속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강타를 받았다. 남측이 〈개방〉, 〈개혁〉에 대해 말하는데 다른 지역의것을 넘겨다보며 그런 소리를 하는것자체가 남에게 굴종하고 남을 모방하는데 습관된 사람들의 사대주의적발상이다.

주체를 세우고있는 우리는 그런데 익숙되지 못하였다. 남이 하라는대로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것은 망상이다. 미국에 시장개방을 하고 농민들의 항거에 부딪치는 맛이 과연 좋던가, 정말 개방하겠으면 콩크리트장벽부터 마스고 전면개방하라, 남에게는 안방문까지 열어주면서 혈육사이에는 바깥문까지 닫아매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누구에 대고 〈개방〉을 운운하는가.

우리의 이러한 당당한 주장앞에 말문이 막히게 된 남측 사람들은 그제서야 쩔쩔매며 기본문제토의에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 모양을 보면서 내외기자들은 〈남측사람들이 극히 페쇄적인 독재사회에 앉아 흰소리를 하다가 혼쌀이 난다〉, 〈혹을 떼려다가 붙인격이 되였다〉고 하며 남측의 행동에 비난을 퍼부었다.

〈소대가리에 말꼬리〉

이날 상봉에서 문제토의의 초점으로 된것은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화형식을 우리측이 주장하는대로 대표회의로 하느냐, 남측이 주장하는대로 대표회담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대화형식을 대표회의로 하는 문제로 말하면 6차 회담때 우리측의 설득력있는 주장앞에 남측도 그 합리성을 인정했던 문제이다.

그때 남측은 대표회의의 효률적운영을 위해 공동운영위원회와 공동의장을 내오고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참가인원수를 줄여달라고까지 했었다. 이것은 사실상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화형식을 대표회

의로 하는데 동의한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그런데 남측은 7차 회담에 와서 전번 회담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듯이 뒤집어엎으며 대화형식을 대표회담으로 하자고 고집해 나섰다. 가관인것은 그들이 합의된 사항을 다는 뒤집어엎을수 없었던지 공동운영위원회, 공동의장, 집행부 등은 그대로 두자고 한것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공동운영위원회와 공동의장, 집행부 등은 쌍방이 같이 앉아하는 회의형식에 필요한것이지 쌍방이 마주앉아하는 대표회담에서는 애당초 필요없는것이다. 그런데 남측은 이날 상봉때 자가당착의 제안을 그대로 들고나와 계속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일단 합의한 문제를 뒤집는 신의없는 행동을 하는데 대해, 남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인내성있게 해설하였다.

그래도 남측은 막무가내였다.

우리측이 남측 제안은 세살난아이가 소대가리에 말꼬리를 붙인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면박을 주자 남측은 할소리가 없어 쩔쩔매였다.

회담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속에서는 그 모양이 가소로와 폭소를 터뜨렸다. 대화형식문제토의때에 기자들을 리해할수 없게 한것은 남측 대표인 한 야당 〈의원〉의 괴이하고 구차스러운 행동이였다. 남측이 대표회담을 고집하는것은 사실상 대화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민정당〉이 독주하겠다는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민정당〉의 독주의사를 두둔해나서는것이였다. 더우기 그는 지난번 회담들에서 자기가 한 발언을 두고 〈자유로운 토론과정에 한 실수〉였다느니 뭐니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다가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대화형식문제토의에서 취한 남측의 부당한 고집은 대화에서 신의가 없는 행동이였고 대결관념과 독선적인 사고방식에 물젖은 남조선통치배들의 그릇된 대화자세에서 나온것이였다.

〈살기띤　　비둘기〉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회담〈지원요원〉이라는 이름밑에 〈비둘기〉 표식을 단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최근에 거듭된 여러 갈래의 회담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었다. 남측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속에는 〈통일원〉사람들이 더러 끼워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안기부〉요원이라는것을 차마 밝히기 어려워서 하는 소리일것이다.

우리 기자들과 남측 기자들이 만나 인사말이라도 나눌라치면 어느사이엔가 그 〈비둘기〉들이 나타나 저들 기자들에게 눈총을 쏘았고 중뿔나게 끼여들어 말참례를 하려들었다.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의 기자가 대화하는것을 한쪽에서 지켜보거나 말을 엿듣다가는 남측 기자를 끌고가서는 〈소속이 어데냐, 이름이 뭐냐? 증명서를 보자〉고 하는것이였다. 지어 그들은 남측 기자들에게 우리 기자들과 만나되 한사람과만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강요하였으며 담배를 나누어 피우는것마저 못하게 하였다. 한 외신기자는 뻐스에서 기자들의 취재가방을 뒤지는 놀음을 하는 것도 〈비둘기〉들이라고 하였다. 화목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표식을 달고나와 경찰깡패노릇을 하며 남측 기자들이 북측기자들과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자들의 행동은 우리 기자들의 눈에 몹시 거슬렸다.

우리는 회담을 계속 지연시키고있는 남측의 행동으로 보아 그들이 밀려다니며 회담장밖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꾸며내고 그것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할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인민을 두려워하고 기자들을 두려워하며 〈국회의원〉들도 믿지 못해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말끝마다〈자유〉와 〈개방〉을 운운하는것이 더욱 가소롭게 여겨졌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예비회담

(1989. 2 ~1989. 12)

1. 남측은 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글, 1989.2.9)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회담이 8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있었다.

이날 예비회담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의 반영인듯 북과 남의 기자들과 평양과 서울에 주재하고있는 수많은 외국기자들로 붐비는 속에 막을 올렸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로 말하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시켜나가는데서 더는 미룰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문제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토의할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마련되게 되였으니 내외가 이에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할것이다.

예비회담은 정각 10시에 시작되였다.

이날 우리측 대표단 백남준단장은 기본발언에서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의 절박성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다음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밝히였다.

그는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북남회담의 명칭을 쌍방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으로 하고 회담의정은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할데 대해 제안하였으며 그밖에 회담시일, 회담장소, 회담대표단구성등 회담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문제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리의 제안은 지금까지 쌍방 총리들이 주고받은 편지에 기초하고 지난 시기 북남대

화의 전례에 준한것으로서 쌍방이 예비회담에서 능히 합의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였다.

특히 이날 우리측 단장은 모처럼 마련된 예비회담을 어떻게 하나 성공에로 이끌어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화에 유리한 조건과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측이 우리를 가상적 적으로 삼고 미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극히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결을 격화시키며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이 전쟁연습을 무조건 중지할 것을 정식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최근 북의 실상을 그대로 소개한 출판 보급활동을 가로막아나서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행동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고 북남대화를 화해의 분위기속에서 순조롭게 진전시켜 나가는데 좋지 않은 후과를 초래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북반부를 소개하는 출판물들을 압수하고 출판을 중지시키며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련행해가는 부당한 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이 제기한 이 요구는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화분위기를 악화시키며 오해와 불신, 대결을 격화시킬 수 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예비회담을 진전시켜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어떻게 성사시키며 지금 일정에 올라있는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들을 아끼고 구원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요구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와 민족을 전쟁참화에서 구원하려는 참으로 애국애족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회담에 나온 남측의 립장과 자세는 처음부터 온당한 것이 못되였다.

남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제안〉이라는 것도 내놓고 여러가지 말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는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 기회에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하여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고 이번 회담에서도 그것을 중지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남측의 이러한 태도는 내외기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결국 회담에서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반 실무절차문제보다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대화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제에 론의가 집중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측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문제는 예비회담과 관련이 없고 따라서 예비회담에서 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등 괴이한 론거를 들고나와 문제 토의를 회피하려 하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사리정연한 론리로 강하게 반박하였다.

대화는 전쟁연습과 량립될 수 없다.

한손으로는 총을 들이대고 한손으로 악수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민족을 재난의 길로 몰아갈 새 전쟁 위험이 감도는 속에서는 대화가 성사될 수 없으며 설사 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대결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북남대화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남북이 마주앉아 잔치를 하자는 마당에 불이 났는데 불부터 끄고 잔치를 하자는 것이야 너무나 응당하지 않는가.

남측은 당면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회담을 하면서도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을 중지할데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동족과 진행하는

평화협상보다도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의연히 〈힘〉의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인 것이다.

남측의 태도를 놓고 북남기자들 속에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오갔다.

우리 기자들이 남측이 회담에 응해나왔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따라서 예비회담을 무한정 끌며 껄렁껄렁 시간을 보내다가 말자는 것이 본심이 아닌가고 들이대자 남측기자들은 대답이 궁해 쩔쩔매는 것이였다.

이날 남측은 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억지주장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한번 조소의 대상이 되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론박하였다. 미국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 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목적과 방대한 규모, 내용 등과 결부시켜 그의 공격적 성격을 까밝히는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앞에 남측 대표들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 측은 군사학적으로 볼 때 상대측을 놓고 반복하여 벌리는 군사행동은 상대측의 경계심을 늦출것을 타산한 전략적 기만으로서 불의타격, 불의공격을 노리는것이며 따라서 전쟁연습이 년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우리측의 정당한 론거앞에 〈년례훈련〉이요, 〈방어훈련〉이요 하던 남측의 주장은 사실상 산산쪼각이 났다.

이렇게 되자 군사분야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남측대표가 체면을 유지해보려고 〈참관초청〉이요 뭐요 하고 당치 않은 소리를 하다가 오히려 코를 떼우고말았다.

동족을 어떻게 죽이려 하는가 하는것을 와서 보라는것인가. 이것은 우리를 우롱하자는 것이고 내외여론을 기만하자는것이다.

우리측의 이러한 추상같은 론박이 뒤따랐기때문이다.

수세에 빠진 남측의 꼴이 얼마나 한심했든지 한 외국기자는 〈죄를 짓고야 언제나 떳떳할수 없지요〉라고 하며 남측에 조소를 보냈다.

우리측 대표들은 남측에 대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치자는것인데 민족적 견지에서 봐도 용납할수 없지 않느냐,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회담장을 지켜보던 남측의 한 기자는 이남에서도 동족을 적대시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가 학생들과 민주단체들 속에서 제기되고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추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족을 공격하려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수 없다.

우리측은 대화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그만둘수 없다고 하는 남측의 부당한 자세와 립장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남측의 말대로 방어를 위해 훈련을 하겠으면 미국군대를 끌어들이지 말고 남조선군대만 가지고 하며 규모도 줄이고 기일도 단축하며 군사연습의 명칭도 바꿀데 대한 립장이라도 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이날 첫 예비회담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남측의 부정한 태도로 말미암아 문제토의에서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2차예비회담은 3월 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합의되였다.

남측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립장을 표시하지 않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예비회담을 계속하기로 한것은 어떻게 하나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성사시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취함으로써 신뢰와 단합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것이였다.

남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심사숙고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성근한 자세로 다음 회담에 나와야 할 것이다.

2. 대화하자는 것인가, 대결하자는 것인가

(로동신문 글, 1989.3.3)

2일에 진행된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2차 예비회담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측이 진실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지에 대하여 의혹을 품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날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은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해 남측에 다시금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것은 대화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함으로써 예비회담자체를 진전시키고 하루빨리 본 회담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일정에 올라있는 여러 갈래의 대화들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긴박한 전쟁위험을 막기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남측이 진실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란 없는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이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대신 회담시작부터〈회담밖의 문제〉를 가지고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다느니 뭐니 하며 오히려 우리를 걸고드는 철면피한 행동을 하였다.

남측은 감히 우리앞에서 〈남침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을 합리화하려고 꾀하였다.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이 북침을 노린 극히 위험한 핵시험전쟁이고 예비전쟁이라는것은 이미 명백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

우리측은 남측의 그릇된 태도, 불성실한 대화자세에 대하여 응당한 반격을 가하였다.

〈남측은 동족과의 대화를 귀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더 중시하는가.〉

우리측의 이 추궁은 너무도 응당한것이였다.

우리측은 남측이 무슨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데 대해서도 론박하였다. 우리측이 우리는 남조선괴뢰군은 물론 세계의 〈군사강국〉이라는 미군과 1 : 2로 대치하고있다. 이 사실을 놓고는 나어린 학생들도 누가 위협을 받고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하자 외신기자들도 이를 긍정하였다.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와 야합하는 사대매국립장은 애국하는 사람들앞에 몰리우기마련이다. 이날의 예비회담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날 회담에서 중심적인 론의의 대상으로 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은 그것이 〈방어훈련〉이요, 〈대화에 지장으로 되지 않소〉하며 발뺌을 하려 했으나 외세와 함께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돌리면서 대화를 운운하기가 세상사람들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는 우리측의 추궁에는 한마디 온전한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회담장안에서 우리측의 추궁앞에 대답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있을 때 회담장밖에서도 진땀을 빼고있었다.

주되는 문제는 미국대통령 부쉬의 남조선행각과 관련된것이였다.

우리 기자들은 이번에 남조선당국자가 부쉬에게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안보공약〉을 다짐받았는데 쓸개빠진 매국노의 행동이 아니냐, 부쉬가 남조선이 〈주권국가〉라면서도 불과 몇시간 머물고 달아뺐는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도 미군이 있어달라는 말이 나오느냐고 들이댔다.

남측 기자들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당국자들이 하는 일인데…〉하며 피하는 기자들도 있었지만 태반은 그래서 부쉬가 서울에 온 기간 학생들이 그의 행각을 규탄하여 시위를 하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부쉬와 같은 침략자들은 떠받들면서도 〈전민련〉이 범민족대회소집을 하는 예비회담을 하려 하는 것은 왜 폭력으로 가로막느냐, 이것이 매국노의 짓이 아니냐, 일본놈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36년동안이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도 일본〈천황〉의 장례식에 찾아다니는것은 또 무슨 꼴이냐, 외세에 명줄을 쥐우면 이런 쓸개빠진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의 이런 말에 남측 기자들은 대답을 못하고 벌개져 어쩔줄 몰라했다. 서울에 주재하고있는 한 외국기자는 당국자를 잘못 만난탓에 북측 선생들에게 공격을 받는 남측 기자들이 불쌍해보인다고 하였다.

어떤 기자들은 남측 기자들에게 지금껏 민족의 존엄을 지킬데 대하여 북측 기자들로부터 교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남측대표단을 당신들이 교양하라고 우스개소리를 하기도 하였다.

물론 기자들속에는 당국자들의 사대매국로선과 대결, 분렬립장을 대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례컨대 회담이 끝난후 가진 우리측 단장의 기자회견때 남측의 한 기자가 분렬되어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동서독일 관계처럼 만들 생각이 없는가고 했다가 코만 떼우고 얼굴이 빨개져 꼬리를 사렸고 참가자들의 비웃음만 샀다.

이날 예비회담에서 남측 사람들은 안팎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동족과의 대화와 평화, 통일보다도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 전쟁, 분렬을 꾀하는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2차 예비회담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3.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1989.3.15)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우리측 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와 함께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더욱 엄중한 단계에서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끝끝내 미국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여나선것은 지금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 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로서 전적으로 정당하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측은 이미 올해초에 남조선당국이 올해에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으며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회담때에도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군사훈련을 하겠으면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남조선군대만 가지고 하고 훈련규모도 줄이고 훈련명칭도 고칠것을 요구한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에 있은 제2차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은 남측에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거듭 주장하고 이미 훈련을 위하여 투입된 병력과 장비를 남조선경외로 즉시 철수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에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남조선군대만 가지고 하고 훈련규모도 줄이고 훈련명칭도 바꿀데 대한 3개 항의 긴급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난관에 봉착한 예비회담을 구원하고 본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며 전반적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응당하고도 현실적인 요구

였다.

그것은 또한 조선에서의 완화와 대화를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였다.

남조선당국이 조금이라도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화해와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면 우리측이 내놓은 긴급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조건과 구실도 있을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지 않고 1월부터 무력을 전개하여오다가 우리 대표단이 2차례예비회담을 마치고 판문점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기도전인 3월 3일 낮 12시에 〈팀 스피리트 89〉전쟁연습을 지난 시기보다 20일이나 더 길게 강행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지금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위하여 미국본토와 해외로부터는 미군병력과 전쟁장비들이 남조선경내로 대대적으로 투입되여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우리를 가상〈적〉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실동연습을 벌리고있다.

만일 이 실동연습에 참가한 미국호전분자들이 앞뒤도 가리지 않고 우리측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불장난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위험마저 외면하고 미국과 함께 전쟁연습을 벌려놓은것은 그들이 말로는 〈화해〉와 〈대화〉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실지로는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은 우리의 거듭되는 정당한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외세와 함께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더욱 엄중하게 감행하여나선 남조선측의 태도야말로 우리의 예

비회담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본회담의 마련을 지연시키며 민족의 머리우에 새 전쟁,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용납 못할 대화부정적이며 전쟁지향적인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서로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 그것을 성공에로 이끌자면 대화에 대한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대결자세를 버리지 않고서는 대화가 성사될수 없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고서는 신의있는 대화를 할수 없으며 민족자주적 립장에 서지 않고서는 민족을 위한 대화를 할수 없다.

대화상대방을 공격하는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은 대화를 부정하는 립장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북과 남사이의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화의 문이 열리고 바야흐로 화해의 기운이 돌고있는 때에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해나선것은 남조선당국이 동족과의 대화와 단합보다도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러한 자세와 립장을 버리지 않고서는 대화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없고 대화에 나설 자격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성사시킬 용의가 있다면 이제라도 반대화, 반평화, 반통일적인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이 훈련을 위하여 남조선에 투입된 일체 병력과 무장장비들은 남조선경외로 내보내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팀 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

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1989년 3월 15일

평 양

4.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로동신문 글, 1989.10.13)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회담이 12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있었다.

회담때마다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회담취재를 위해 북과 남에서 나온 기자들속에서는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회담전망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속에서 오가는 말들은 의혹과 기대가 엇갈린 착잡한것이였다. 그것은 응당한것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측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대화상대방을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함으로써 대화분위기를 마스고 대화를 중단상태에 몰아넣었으며 그이후에는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그 누구의 〈정치공작〉이니, 〈체제전복〉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대화의 문을 모조리 닫아맴으로써 회담의 재개를 7개월이상이나 공공연히 거부, 지연시켜왔다.

남측이 7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나마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재개요구에 응해나선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마지못해 나온 그들이 문제토의에 열의를 보일것인가는 누구에게나 미지수였던 것이다.

우리는 로○○가 〈통일방안〉이요 〈대화〉요 하며 통일문제 해결에 열의가 있는것처럼 떠들기도 하고 회담 하루전에 통보하기는 했지만 예비회담 남측대표 2명을 교체하기도 한만큼 그들의 대화자세를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모두는 실망하였다. 남측대표들의 행동으로 볼때 그들의 대결자세, 분렬주의적 립장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던것이다.

이날 남측은 회담시작부터 검은것을 희다고 하고 흰것을 검다고 하는 고질적인 악습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남측수석대표라는 사람은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으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또 대화의 문을 닫아맸던 저들의 그릇된 처사를 반성할 대신 오히려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긴장이 격화되게 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심히 무례하고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였다. 남측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기자들속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한 외신기자는 우리 기자에게 민주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잡아가두면서도 〈민주주의를 한답시는 그들이니 그만한 일쯤이야 뒤집어엎지 못하겠는가〉고 하며 한눈을 끔쩍해보이는것이였다.

옳은 말이였다. 남측은 회담장에 나오기는 했어도 애당초 대화를 진전시킬 잡도리가 아니였다. 세상이 다 아는 문익환목사일행과 림수경학생일행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남측의 태도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날 우리측은 남조선통치배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한 문익환목사일행과 림수경학생일행의 애국적 소행을 범죄시하며 탄압하고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폭로규탄하면서 그들에 대한 부당한 처형놀음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남대화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인만큼 그것은 정당한 요구였다.

더우기 그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의 평양방문을 범죄시하고 그것을 구실로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있는 조건에서

경색된 북남관계를 풀고 당면한 쌍방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그것이 무슨 저들의 〈내부문제〉이며 〈회담외적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지어 〈정치공작〉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들고나와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려 하였다.

오직 통일을 위해 우리와 만나고 간 사람들을 범죄시하고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반민주, 반통일적 파쑈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그들을 처형하려고 날뛰면서 〈통일〉과 〈대화〉를 떠드는 남측의 행동이야말로 자가당착의 모순된 망발이였다.

문제는 〈통일〉이요, 〈대화〉요 하는 말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일을 목적한것인가, 분렬을 추구한것인가 하는 그 출발점이 중요한것이다.

남측은 당초부터 대결자세, 분렬립장에 서있었다.

이날 우리측이 남측의 행동이 하도 역겨워 공화국북반부를 아직도 〈미수복지역〉으로 보는가 등 질문을 들이댔다. 남측대표들은 말문이 막혀 쩔쩔매다가 어느 동구라파나라가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하겠다는 가소롭고도 도전적인 수작까지 하였다.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장에 나와 마주앉아서까지 우리를 먹고 〈승공통일〉을 하겠다는 흉악한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 이런자들과 마주앉아 과연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였다. 우리측의 론리정연한 추궁에 바빠맞은 남측은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최근의 민족통일협상회의제안에 대해 헐뜯으면서 회담장을 저들의 분렬주의적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선전하는 마당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훌륭한 방안이지만 남측에서도 〈통일방안〉이라는것을 내들고있는 조건에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하고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더없이 정당한것이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의 제안을 헐뜯으면서 저들의 분렬방안을 〈유일방안〉이라고까지 하였다. 남측의 행동이야말로 반공대결과 〈승공통일〉에 환장한자들의 망동외의 다른것이 아니였다.

남측의 온당치 못한 대화자세는 예비회담과 관련한 제안에서 그 무슨 뚱딴지같은 〈남북 통행, 통신에 관한 일반합의서〉라는것을 들고나온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쌍방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이다. 이 근본문제는 제쳐놓고 서로 갈라져 살면서 서로 왔다갔다하자는 〈합의서〉나 마련하자는것은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데 바탕을 둔 교활한 책동이였다.

그것은 또한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여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검은 심보에서 나온것이지 결코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할 의사가 있어서 들고나온것이 아니였다. 며칠전만 해도 통일을 위해 평양을 다녀간 문익환목사일행에게 10년의 징역형을 언도하고 또 림수경학생을 처형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하는 놀음까지 벌린자들에게 과연 래왕의 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있다고 누가 보겠는가.

하기에 우리측 기자들이 남측 기자들에게 저것이 당신네 당국자들이 일곱달이 넘도록 연구해낸 새 제안인가, 도대체 어쩌자는것인가고 들이대자 그들은〈뚱단지같은것을 들고나왔으니 새것이라고도 하겠지요. 어쨌든 저사람들보고 물어봐요〉하며 얼굴을 붉히였다.

결국 이날 회담은 남측의 불성실하고 도전적인 대화자세로 하여 우리측이 양보와 아량을 보여 새롭게 제기한 제안에 대해서는 토의조차 해보지 못한채 끝

나고말았다.

회담 전과정을 놓고볼 때 우리측의 립장이 통일의 념원에서 출발하고 통일을 지향한것이라면 남측의 립장은 명백히 분렬의 목적에서 출발하고 영구분렬을 추구한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측이 〈통일방안〉이요 〈대화〉요 하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반대화, 반통일적 자세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남측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공대결과 분렬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화에 대한 성실한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번 회담에서의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것이다.

5. 대결관념에 절은 고약한 버릇을 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글, 1989.11.16)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4차 예비회담이 15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통일각〉에서 있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리측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본회담을 위한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측 대표단 백남준단장은 기본발언에서 현시기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강조하고 쌍방제안에서 차이가 있는 본회담의 명칭과 의제, 대표단구성문제 등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립장을 밝혔다.

우선 회담명칭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미 제기한 고위급정치군사회담으로 정립할것을 제의하였다. 회담명칭은 어디까지나 회담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되게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내놓은 본회담의 명칭은 북남관계전반을 다루는 회담이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회담의 근본사명과 목적으로 보나 그 발기취지로 보나 또 겨레의 통일념원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해진 현실발전의 요구로 보나 너무도 당연한것이였다.

본회담의제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할것을 다시한번 주장하였다. 우리측의 제안은 회담의 형식면에서 보나 토의해결하려는 문제의 내용면에서 보나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것이였다.

우리측의 안대로 포괄적인 단일의제로 하면 무엇보다도 예비회담을 빨리 결속짓고 본회담을 마련할수 있으며 본회담에서의 문제토의에서 합의를 빨리 이룩할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본회담의 급수에도 부합되는 적중한 의제형식이며 내용에서도 토의하려는 문제들을 폭넓게 담고있다.

하기에 우리측의 제안이 다시금 밝혀지자 내외기자들속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한 외신기자는 〈북측의 제안을 이번까지 여러번 연구해봤는데 확실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대결을 해소하려는 진실한 립장과 의지가 안겨옵니다〉라고 하면서 한 남측기자에게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것이였다.

그러자 남측기자는 자기도 북측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하면서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는지. 그들이 보는 견해는 우리와 다른것같애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옳은 말이였다. 남측은 우리의 요구대로 실무절차문제토의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부당한 주장을 고집하며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우선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은 본회담의 근본 사명과 목적이 반영되여있지 않는 〈고위당국자회담〉 또는 〈총리회담〉이라는 모호하고 막연한 명칭을 들고나와 고집해나섰다.

의제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측은 우리측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을 반대하고 이른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 협력과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문제〉라는 안을 들고나와 〈북의 제안을 수용한 합리적인것〉이니 뭐니 하며 황당한 소리를 하였다.

결국 이것은 정치군사문제를 뒤전에 밀어놓을뿐아니라 본회담의 성격을 변질시켜 다른데로 끌고가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내놓은것이였다.

남측이 내놓은 〈의제〉는 즉시 기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우리측의 한 기자는 곁에 앉은 남측기자에게 〈이 회담이야 우리측이 발기제의했고 남측이 거기에 응해나옴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그자체가 회담명칭과 의제에 사실상 동의한것이나 같지않는가. 그런데 회담명칭도 바꾸자고 하고 또 정치군사문제토의를 제껴놓고 교류문제를 기본적으로 삼자고 하니 온당한 처사인가〉고 들이댔다.

그러자 남측기자는 〈글쎄요. 주객이 전도된감이 있어요.〉라고 하며 어물어물하였다.

남측기자의 말처럼 남측의 제안은 명백히 주객을 전도한 생억지였다. 지어 남측은 정치군사문제는 중핵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차적인 문제로는 될수 없으며 남북관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망발까지 함으로써 내외기자들의 조소와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의 근본요인은 정치군사적대결에 있다.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면 교류, 협력 문제도 스스로 해결된다.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그대로 두고 교류, 협력하자는것은 속에 칼을 품고 무엇을 하겠다는것인데 론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완전히 모순된 소리다, 이것은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고 들이댔다.

우리측의 된타격에 할 말이 없게 된 남측은 다음문제토의에 넘어가자고 제의하는것으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대표단구성문제토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실무절차문제토의에 림하는 남측의 태도에서는 그 어느 문제에서도 회담을 전진시키려는 열의를 털끝만치도 찾아볼수 없었다.

남측의 부당한 고집으로 하여 이날 회담에서는 론의된 주요 실무절차문제의 어느 하나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합의본것이 있다면 우리측의 아량있는 량보로 원래 회담발기측인 평양에서 해야 할 첫 본회담장소를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한것뿐이다.

대화의 전진을 가로막는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는 한편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미국에서 120대의 신형전투기를 사들이기로 하는 등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에 전례없이 광분하고있다. 앞에서는 〈대화〉요, 〈평화〉요, 〈완화〉요 하고 떠들며 우리와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막뒤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음흉한 속심을 헤아려볼수 있게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렬의 지속이며 나아가서 미일반동들과 함께 우리를 침략하는것이다.

바로 이런자들을 대변해나온 남측대표란 사람들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을리없는것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백번을 마주앉았댔자 과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인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날의 회담과정을 통해 우리 기자들이 받은 일치한 느낌이다.

남측은 시대착오적인 반공대결관념에 절은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6. 회담지연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

(로동신문 글, 1989.12.22)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5차 예비회담이 2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있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본회담의 명칭, 의제, 대표단구성 등 문제가 주요론점으로 되였다.

이날 우리측이 대립되고있는 쌍방의 립장을 다같이 고려한 획기적인 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본회담의 명칭은 〈북남고위급회담〉으로 하고 대표단구성에서 군실권자참가문제는 군총참모장 (군참모총장)급을 참가시키는 조건에서 쌍방이 각기 편리한대로 군실권자를 대표단에 포함시키며 본회담수행원수는 쌍방이 각각 33명으로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본회담의 의제문제를 제외한다면 본회담과 관련한 실무절차문제를 기본적으로 다 합의한것으로 된다.

〈상반되는 두 립장〉

이날 문제토의에서의 진전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회담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겨레에게 기쁨을 주려는 우리측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의 산물이였다.

이날 우리측은 이미 제기한 우리측의 제안이 더없이 합리적이고 정당한것이지만 남측의 주장도 고려하여 우에서 언급한 획기적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의 거듭되는 양보와 관련하여 내외기자들은 〈북측에서 정말 성의가 있다〉라고 하며 우리측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회담자세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서의 진전은 바로 우리측의 거듭되는 양보앞에 빠질 구멍이 없게 된 남측이 우리측의 수정제안을 마지 못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과정을 보면 남측은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신뢰를 회복하며 통일을 이룩하려는 립장에 서지 않았다. 그것은 남측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해버리려고 각방으로 책동한 점만 봐도 알수 있다.

남측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우리측의 발기와 제의에 응해나오고서도 회담명칭문제토의에서는 무슨 〈고위당국자회담〉 또는 〈총리회담〉으로 하자고 고집해나섰다.

의제문제토의에서는 정치군사적대결을 해소하는 문제가 〈중핵적인 문제〉라는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교류와 협력 문제를 기어이 의제에 포함시키며 그것도 정치군사적문제토의보다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생억지를 썼다.

그리고 대표단구성에서는 군실권자 1명만을 참가시키고자 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오해가 지속되고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 있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교류와 협력도 잘할수 없고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서로 상대방을 겨눈 권총을 내놓고야 악수도 하고 교류협력도 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기에 우리측은 매 문제토의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측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려는것은 결국 교류협력자체도 부정하고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립장의 반영외 다른것이 아니였다.

회담장을 지켜보던 한 외신기자는 지금까지 회담을 보면서 어느쪽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한적이 없지만 오늘만은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회담장은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에로 가려는 북의 애국적립장과 대결, 분렬 정책을 지속하려는 남측의 반민족적립장의 대치를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불성실한 대화자세〉

회담을 보고 말하지 않을수 없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남측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대화자세이다.

쌍방회담에서 교착상태를 풀자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남측은 첫발언에서부터 〈호양의 정신〉이요 뭐요 하고 말은 했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다. 이날 남측은 우리측의 거듭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토의에서도 양보한것이 별로 없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주장과 성의와 아량앞에 마지 못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깎으려들고 조건부를 붙이는 등 별의별 비렬한 행동을 다하였다.

그것은 의제토의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우리측이 제기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문제에는 남측이 말하는 교류, 협력 문제도 포함되여있다. 그런만큼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교류, 협력 문제는 병렬하여놓을 성격의 문제가 못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문제와 협력, 교류 문제를 병렬시킨 절충안을 내놓은것은 문제토의를 진전시키려는 성의의 표시였고 사실상 대폭적인 양보였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가 수정제기한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대신 이번에는 의제를 정리하는데서 〈교류, 협력〉문제를 앞에 놓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문제는 뒤에 놓자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리유인즉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문제가 중핵적인 문제로는 되지만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것이였다. 남측은 저들의 주장을 합리화해보려고 동서독이 여러해를 두고 교류를 했기때문에 오늘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문제를 일정에 올리게 되였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였다.

우리측이 동서독은 조선의 북과 남처럼 정전상태에 있은것이 아니다. 남측에서 동서독관계문제를 원점에서 잘못 평가하고있다.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해야 모든 문제가 풀릴수 있다 남측이 동서독관계를 모방해야 할 표본처럼 말하는데 본받겠으면 지금 동서독간에 련방제

문제가 제기된만큼 그것을 본받아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해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해나서자 남측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날 남측이 타당한 론거도 없이 우리측이 수정제안한 의제에 끝끝내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연구해보겠다고 하므로 〈숙제〉로 남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측 기자들은 물론 남측에서 온 기자들속에서도 비난이 터져나왔다.

남측의 한 기자는 〈내가 다 창피합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음 회담에 나와서도 교류, 협력 문제를 앞에 놓자고 하며 문제토의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남녘민중이 용서치 않을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남측의 대화자세에서는 조선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을 잃고 남의풍에 놀자고 하는 나쁜 버릇도 나타났다.

이날 회담때 우리 나라 문제와 상관이 없는 동서독관계를 남북관계문제에 기계적으로 옮겨놓자고 한것도 그러한 근성의 표현이였다.

문제토의에 들어가기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남측은 우리측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미쏘수뇌자들의 말따회담에서 군축문제가 토의된것이 마치 자기들이 한 일이기나 한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다가 우리측이 쏘미회담에서 군축, 완화 문제가 토의되였는데 그것이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면 좋은 일이다. 군축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데 조선만이 랭전상태에 남아있어서야 되겠는가, 조선문제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다. 어느 대국도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는다. 주인인 우리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면박을 주자 얼굴이 벌개지며 쩔쩔맸다.

이날 남측이 다음번 회담을 우리측이 제기한 래년 1월 18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하자고 고집하다가 우리측이 회담날자를 앞당기자고 거듭 요구해서야 1월 31일에 하자고 한것도 회담에 대한 무성의의 표시였다.

돌이켜보면 남측은 년초에 미제와 함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였고 다음에는 문익환목사일행 등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회담을 7개월이상이나 중단상태에 빠뜨렸다.

남측은 회담이 다시 이어져 본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절차문제토의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의 성의에 성의로 대답하지 않고 각방으로 지연전술을 썼다.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절차문제토의를 년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지 않으면 안되게 된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

남측은 다음 회담에서부터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남 북 체 육 회 담

(1989. 3 ~1989. 12)

1. 북과 남은 유일팀으로 나가야 한다

(로동신문 글, 1989.3.11)

판문점에서 우리 민족이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 〈아리랑〉의 은은한 선률이 울려퍼졌다.

지난 9일 제1차 북남체육회담에서 우리측이 유일팀노래로 〈아리랑〉을 제기하면서 록음기를 틀어놓은것이였다.

북과 남의 대표들도, 기자들도 감동에 휩싸여있었다.

〈북측에서 북남단일팀의 노래로 제정한 〈아리랑〉을 들으니 민족적인 정서가 안겨오고 한 민족의 피줄이 이어지는것 같다, 노래 〈아리랑〉이 회담장안팎을 그토록 감동시키는것은 북과 남이 한겨레라는것을 말해준다. 유일팀구성이 앞당겨지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남측 기자들이 한 말이였다.

노래 〈아리랑〉은 유일팀노래로 합의되였다.

북남체육회담은 지난해 12월 21일에 1990년 9월에 열리게 되는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을 가질데 대해 우리측이 발기하고 남측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였다.

조국통일이 우리 나라 정세발전의 확고한 흐름으로 되고 그것을 반영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이미 이어졌거나 일정에 올라있는 시기에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마주앉아 국제체육무대에 유일팀을 두어 출전할데 대한 문제를 론의하게 된것은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기에 회담을 취재하러나온 남측 기자들과 외국기자들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북측에서 이번에 좋은 발기를 했습니다〉, 〈유일팀이 구성되여 북과 남이 하나의 선수단으로 국제경기에 나간다면 통일을 위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긴장이 고조되고있는속에서도 체육회담을 하자

는 립장만봐도 북의 열의를 알수 있습니다〉

문제토의에 앞서 우리측 김형진단장은 인도에서 있은 국제경기대회 권투결승때 북남선수들이 많이 대결하였는데 그 장면을 본 한 해외동포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오. 한동포끼리 무슨 일입니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면서 국제경기에서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남측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우리의 한 대표가 체육식으로 달려서 회담을 빨리 끝내고 결승테프를 끊자고 말했을 때도 남측은 좋다고 하였다.

조선민족의 피줄을 이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시위하는데 반대할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는 우리측 단장의 첫 발언으로 하여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측 단장은 북남유일팀구성을 위한 원칙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유일팀의 명칭, 기발, 노래, 선수선발 원칙과 방법 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의 제안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할수 있게,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지혜를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팀을 구성하면서도 문제해결에서 복잡성을 피하자는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였다.

내외기자들은 북측제안을 들으니 이번에 〈유일팀이 꼭 구성될것 같다〉고 하며 기대를 표시하였다.

남측의 한 기자는 〈남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것만큼 북측에서 그 문제를 들고나올줄 알았는데 북측 단장의 첫 발언을 들으니 북측에서 얼마나 대범하게 이번 회담에 림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모든것이 락관적이라고만 볼수 없었다.

회담에서는 남측에서도 유일팀구성문제와 관련한 자기들의 립장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쌍방제안을 놓고 합의된 문제들은 확정하고 차이나는 문제들은 좁히

는 방향에서 회담이 진행되였다.

처음 일정에 오른것이 유일팀의 명칭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일팀의 명칭을 〈고려선수단〉이라고 하고 표기는 영문자로 〈고려〉로 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것이였다. 알려진것처럼 고려는 약 500년간이나 존재한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의 이름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측 제안을 듣고 남측에서 나온 한 기자는 유일팀명칭을 〈고려〉 라고 하는것은 고무적이다. 고려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측에서 팀명칭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쉽게 합의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측이 유일팀명칭을 〈남북단일팀〉으로 하고 로마문자로 〈코레아〉라고 표기하자고 굳이 고집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문제토의는 다음회담으로 미루어졌다.

남측은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제경기들에 나가고있다. 그런데 남측이 유일팀을 뭇자고 하는 회담마당에 나와서 유일팀에 〈코레아〉라는 명칭을 달자고 굳이 고집하는것은 북남유일팀에 남조선모자를 씌우자는것으로서 우리의 존엄을 무시하는것이고 도대체 성의가 없는 표시였다. 우리에게는 남측의 이러한 태도가 한쪽이 다른한쪽을 압도하자는 대결관념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다음 상정된 유일팀기발문제와 관련해서 흰색바탕에 조선지도를 그리는 문제는 합의하였으나 지도의 색갈, 지도밑에 써넣을 팀명칭문제는 합의되지 못하였다.

우리측이 준비해간 유일팀기발도안을 기자들앞에 공개하였을때 남측 기자들은 앞을 다투어 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지도를 한색갈로 표시하니 통일된 조선의 미래가 보인다〉, 〈 우리는

유일팀기발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도안을 그려오지 않았는데 북에서 그것까지 준비해온것을 보니 유일팀구성문제에 대한 북의 성의를 알수 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 남측은 우리가 제기한 선수선발원칙가운데서 선수선발을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원칙에서 할데 대한 원칙을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남측에서 대결관념을 버리지 않았다는것을 시사하는것이였다.

남측의 이런 대결관념이 앞으로의 회담진전과 유일팀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지…… 이것은 이날 회담을 본 사람이라면 응당 가질수 있는 의혹이였다.

외국기자들도 자기들의 이러한 심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은 시작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쌍방이 상대방제안을 연구한후 3월 28일 우리측 통일각에서 2차회담을 가지기로 한만큼 속단하지는 말자.

내외는 다음회담을 주시할것이다.

2. 성의와 무성의

(로동신문 글, 1989.3.29)

2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있은 제2차 북남체육회담은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참가하여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통일위업에도 기여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회담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이날 우리측이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고 남측의 립장도 고려하면서 폭넓은 아량을 가지고 문제토의를 진전시켜 일련의 문제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룩할수 있게 한데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이날 우리측 김형진단장은 첫 발언에서 유일팀구성방안을 순조롭게 토의해

나갈수 있도록 쌍방의 방안을 일치시킨 10개 항으로 된 조절안을 내놓았다. 이 조절안은 우리측이 1차회담에서 내놓은 12개 항으로 된 유일팀구성방안중 일부 조항을 하나로 합쳐 10개 조항으로 만들고 남측 방안에서 제기된 조항들은 그대로 두되 순서만 일부 바꾸어 통일시킨것이였다. 이것은 우리측이 회담에서 유일팀구성방안토의를 순조롭게 빨리 진척시키는데 크게 공헌한것으로 된다.

우리측은 유일팀기발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기발에 새길 조선지도색갈을 황토색으로 할것이냐 록색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치되여있는 조건에서 쌍방이 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제3의 색갈인 하늘색으로 할것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며 조선지도를 보면 북과 남의 유일팀이라는것을 알수 있는 조건에서 지도밑에 아무런 외래어표시도 하지 말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문제토의를 하루빨리 진전시키려는 립장에 선다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공정한 제안이였다.

우리측의 제안이 발표되고 새로 작성된 유일팀기발도안이 공개되자 내외기자들은 《1차회담때 유일팀노래로 〈아리랑〉이 합의되였다면 2차회담에서는 유일팀기발이 합의될것 같다》, 《북이 정말 성의가 있다》고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남측이 기발밑에 쓰기로 되였던 외래어표기를 하지 않는데만 동의하고 색갈문제는 더 연구해야겠다고 함으로써 기발문제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1차회담때보다는 진전을 보았다고 할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측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회담에서 공동훈련을 거친후 최종선수선발을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선수선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할수 있었다.

이날 우리측은 또한 유일팀명칭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발기를 하였다. 그것은 팀명칭을 우리 말로 《고려》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레아》라고 하자는

것이였다.

이 제안은 북과 남의 기자들로 하여금 환성을 올리게 하였다.

〈대단한 양보다〉, 〈유일팀구성은 문제없을것 같다〉, 이것이 그들의 일치한 반영이였다.

그도그럴것이 〈고려〉라면 북과 남에서 다같이 쓰고있는 말이지만 〈코레아〉라는것은 남에서만 개별팀으로 나갈 때 달고나가는 이름이다. 우리의 이 새 제안까지 듣고 남측 수석대표도 유일팀구성을 위한 북측의 성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날 남측은 공동훈련을 거쳐 최종선수선발을 할데 대한 우리측 안에 접근한 절충안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성의있게 문제토의에 림했다고 볼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1차회담에서 론의하다가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더 연구한후 이번 회담에서 토의하기로 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새로운 안도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 유일팀명칭문제에서도 그러하였고 유일팀기발문제도 그러하였다. 회담장이 교단이라고 한다면 선생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남측을 책망했을것이다. 그리고 우리측이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선뜻 받아들이는 립장을 취한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느니, 누구와 〈협의해야 한다〉느니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회피하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미루고 쉬운 문제인 선수선발문제나 어서 토의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한 외신기자는 〈저 사람들이 또 억지를 쓰는군〉하며 남측 대표들을 나무랐다.

쌍방회담에서 각방이 자기측을 대표하여 결론권을 가져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남측이 누구와 토의해야 한다며 문제토의를 미루려는것은 결국 당국의 결론을 받겠다는것으로서 체육대표다운 행동이라고 볼수 없었다.
또 그들이 어려운것은 뒤로 밀고 쉬운것부터 하자는것도 남조선통치배들이 북

남관계에 적용하는 〈단계론〉과 류사한것으로서 결국 문제토의를 지연시키자는 것이다.

남측은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공동훈련을 하다가 다시 북과 남으로 갈라져 최종선수선발전을 하자는 립장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유일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낡은 대결관념에 물젖어있다고밖에 따른 평가를 할수 없게 하였다.

회담장안에서 나타난 남측의 무성의와 대결관념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회담장밖 북남기자들의 대화무대에 낯을 돌려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이날 북과 남의 기자들이 처음 만나자부터 화제에 오른것은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문제였다. 남측의 많은 기자들은 〈지금 당국이 문익환목사가 승인없이 자의로 평양에 들어갔다고 노발대발한다〉면서 그가 돌아오면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될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라왔다.

〈문익환목사로 말하면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에 온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무엇때문에 못마땅하고 법에 걸린단말인가. 로○○가 〈7.7선언〉에서 각계의 교류를 실시할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짜였단말인가.〉 우리 기자들이 되묻는 말이였다.

그러자 남측 기자들은 당국은 자기들이 〈승인〉을 받지 않은것을 문제시한다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역스러웠다. 최근에만도 남조선통치배들은 〈전민련〉, 〈전대협〉,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우리와의 대화를 위해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원천봉쇄〉로 그들의 북행길에 차단봉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승인〉을 운운하는것은 되지 않는 소리이다. 우리가 이런 말로 남측 기자들에게 들이대자 그들은 대답을 못해 쩔쩔맸다.

우리 기자들은 분렬된 우리 나라 북과 남에서 법을 가지고했다해도 통일에 리로운 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통일을 가로막는 법을 가지고있어서야 되느냐, 우리를 찾아와 만나는것이 법에 걸린다면 우리와 만나러 통일각에 온 당신들이나 저 회담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계속 들이

댔다. 그러자 남측 기자들은 할 말이 없었던지 〈그거야 당국이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며 말꼬리를 사리려 하였다.

지금 미제의 부추김밑에 로○○일당은 〈중간평가공약〉을 뒤집어엎는것과 함께 남조선을 〈포고〉없는 계엄상태에 몰아넣고 전○○없는 전○○군사독재를 재현하고있다. 그들의 폭압의 주되는 창끝은 우리와의 접촉과 련공통일을 주장하는 애국력량에 돌려지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반공대결정책이 북남유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 반영될 때 그것은 문제토의를 방해하는 새로운 암초로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제3차 북남체육회담은 4월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가지게 된다.

3. 남측은 지연전술을 쓰고있다

(로동신문 론평, 1989.10.22)

제3차 북남체육회담이 2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있었다.

회담에 대한 내외의 관심은 컸다. 그러나 회담은 유일팀기발문제 등 토의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을뿐 이렇다 할 성과없이 끝나고말았다.

체육인의 기백으로 앞장서서 달려 남먼저 결승테프를 끊자는 말까지 나왔던 회담이 왜 이렇게 되였는가.

그것은 더 말할것도 없이 유일팀구성에 관심이 없는 무성의와 지연전술때문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측은 이번까지 세번에 걸친 매 회담때마다 겨레의 념원에 맞고 남측도 접수할수 있는 공정한 제안들을 내놓으면서 회담을 하루빨리 결속짓고 북남유일팀을 탄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처음부터 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나오지 않고있으며 그러한 불성실성은 회담차수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배가되고 있다.

이날 회담진행정형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이날 회담에서 문제토의는 유일팀기발문제, 유일팀의 명칭문제, 선수선발문제 등에 집중되였다.

유일팀기발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이 흰색바탕에 하늘색 조선지도를 그려넣자는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회담에서 그나마의 합의가 이루어진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측은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토의에 장애만을 가로질렀다.

유일팀명칭문제를 보자.

알려진것처럼 우리측은 제2차회담때 유일팀명칭을 우리 말로 《고려》, 영문으로 《KOREA》로 하자는 수정제안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했었다. 남측에서 유일팀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란 없는것이였다.

그런데 남측은 이날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대신 우리 말 표기를 《고려》가 아니라 《한나라》 라고 하자는 이른바 《수정제안》 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그것을 고집하였다.

《한나라》란 뜻자체가 막연한것이다. 더우기 그것을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화대방인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였다. 그들이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하려는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을 《수정제안》이라고 들고나올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되자 회담장을 주시하던 북남기자들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리 조선기자들은 격분하여 《식민지남조선의 이름을 어물쩍해서 신성한 유일팀에 붙여보자는것인가》고 남측기자들에게 들이대기도 하였다. 남측기자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던지 《청와대의 고안품이겠지요》하며 자리를 피했다.

우리측은 남측의 제안이 극히 도전적이고 불손한것이였지만 어떻게 하나 문제토의를 결속지으려는 념원에서 유일팀명칭을 영문자로《KOREA》라고 하고 우

리말로도 영어발음그대로 《코레아》로 하자는 획기적인 새 제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자 기자들은 《북에서 새 실마리를 찾았다》, 《북의 제안대로 하면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남측이 기어코 《한나라》라고 하자는 저들의 그릇된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끝내 명칭문제에서 합의를 볼수 없었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남측이 불순한 기도로부터 고의적으로 공공연히, 지연전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되였다.

선수선발문제에서도 남측의 립장은 괴이한 것이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접수할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고 이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선수를 선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합의에 도달한 문제도 적지 않다. 공정하게 유일팀을 구성할 의사만 있다면 남은 문제토의에서 크게 걸릴것이란 없었다.

이날 우리측은 선수선발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이 많은 조건에서 본회담사이에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매일 가질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실무접촉에서 쌍방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본회담에 제기함으로써 문제토의를 빨리 진전시키자는것이였다.

우리의 제안이 더없이 정당하였던만큼 남측수석대표는 리해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회담장에 쪽지 한장이 날아들자 남측태도가 돌변하였다.

이번 회담에 새로 교체되여나왔다는 남측의 한사람은 수석대표를 제껴놓고 좌지우지하면서 선수선발에서의 《비률》이요 뭐요 하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오는 한편 자기측이 동의한 문제까지 뒤집으면서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남측은 실무문제들을 언제 구성될지 모를 공동위원회에서 토의 해결하자고 고집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자 회담장밖의 기자들도 웅성거렸다.

《유일팀명칭을 〈한나라〉로 하자는 안이 〈청와대의 고안품〉이라면 이미 동

의한것을 뒤집는 저 사람은 청와대파견원이 아니요?》, 《청와대야말로 정말 암적 존재요.》우리 기자들이 남측기자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다음번 회담을 우리측 지역에서 하는것만큼 관례에 따라 회담날자를 우리측이 정하게 되였다. 우리측은 4차회담을 11월 2일에 하자고 하면서 늦은감이 있다면 10월안에 한차례 더 하자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남측은 《개인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다음회담을 한달나마 지나서 11월 22일에 하자고 하였다. 정말 상상밖의 행동이였다.

남측은 말끝마다 《겨레의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유일팀을 구성하자》고 하면서 유일팀구성에 관심이 있는척하였지만 그것은 거짓이였다.

남측의 행동이 얼마나 의외의것이였던지 남측기자들까지도 《정말 한심하군, 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사정〉이요 뭐요 하며 민족의 기대가 담긴 회담날자를 미루고있으니 우리가 다 얼굴이 뜨겁다》고 하였다.

어떤 기자는 《회담시작전에 기자들이 유일팀구성전도에 대해 우려의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공연한것이 아니였군〉하며 실망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회담시작전에 북남기자들사이에 남조선통치배들이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북남대화의 문을 모조리 닫아매면서 체육회담을 근 7개월동안이나 중단상태에 빠뜨린 문제, 지난 9월 남측당국이 《국회》에서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단독출전할 기도를 공공연히 시사한 문제 등을 놓고 남측으로 하여 유일팀구성이 성사되지 못할수 있다는 말들이 오갔던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문제토의에 장애를 가로지르고 회담날자를 늦추자고 하는 남측의 태도는 유일팀구성을 가로막자는것으로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는것이였다.

남측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통일열망, 유일팀구성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높다. 로○○일당은 인민들이 두려워 체육회담을 당장 차버릴 처지에 있지 못하다.

이로부터 남측은 회담을 한다고 이름이나 걸어놓고 껄렁껄렁 시간을 끌다가

경기대회가 박두하여 《시일촉박》을 구실로 유일팀구성을 류산시키자는것이 아닌가.

이날 회담광경을 본 내외기자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로〇〇일당이 《두개 조선》에 유익한것이라면 발벗고나서지만 통일에 유익한 일은 어느것도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회담을 보고 우리가 내릴수 있는 결론이였다.

그러나 남측이 다음번 회담에서 걸린 문제들을 토론하자고 하는것만큼 우리는 다음번 회담에서 취하는 남측태도를 다시한번 보기로 하였다.

4. 남측은 고의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리고 있다

(로동신문 론평, 1989.11.16)

제4차 북남체육회담이 16일 판문점 우리측지역의 《통일각》에서 있었다.

이날 우리측은 하루빨리 북남 유일팀을 탄생시켜 겨레에게 기쁨을 주려는 일념에서 많은 문제에서 새로 양보도하며 진지하게 문제토의에 림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와는 정반대였다.

객관적으로 보건대 남측 대표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문제토의를 지연시켜 유일팀이 이루어질수 없게 하라는 지령을 받고나온것 같았다. 그들이 얼마나 야비하게 지연전술을 썼던지 남측에서 나온 기자들까지 《너무 지나치군. 그럴바엔 회담에 나오지말것이지》하며 혀를 차는 정도였다.

회담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측의 대화자세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가 그르지 않다는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유일하게 성과라고 할수 있는것이 유일팀명칭을 영문자로 《KOREA》, 우리 말 표기로 《코리아》로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지난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유일팀명칭문제와 관련하여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내놓은바있고 이날 남측이 회담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토의는 비교적 쉽게 결속되는듯 싶었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런저런 트집을 걸며 문제토의를 지연시켰다. 례컨대《KO-REA》라는 단어를 북과 남이 조선말로 달리 표기하므로 남쪽에서 하는대로《코리아》라고 하자고 끝까지 고집하였으며 나중에는 대회 주최국글자로는 어떻게 표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들고나와 또 시간을 끌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북과 남의 기자들은 유일팀명칭문제를 합의한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남측의 행동을 두고는 환멸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 남측이 회담벽두에 유일팀명칭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었다면 그후에는《다음번 회담으로 미루자》는것을 고집하는것으로 문제토의를 지연시키는 새로운 전술을 썼다.

이러한 태도는 유일팀의 선수단구성문제토의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우리측은 유일팀의 단장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단장으로 할 것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이것은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심중히 고려하여 북과 남이 다같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균형과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제안으로서 유일팀구성본연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된다.

우리측은 또한 경기지휘성원임명에서는 종목별로 선발된 선수가 많은측이 책임지도원(감독)을 맡고 적은측이 지도원(코취)을 맡도록 하자는 남측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크게 양보하였다. 남측이 진실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라고 문제토의를 진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들은 쉽게 합의볼수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남측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정신이 아니라 대결관념에서 문제를 보면서 우선 유일팀공동단장제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구실을 들고나와 시간을 끌다가 이 문제토의를 다음회담으로 미루자고 억지를 썼다.

뒤이어 선수선발문제를 토의할 때도 남측은 3차 회담에서 이미 합의를 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의본 문제가 없다고 뒤집으며 문제토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 하였으며 우리측이 사리를 밝히려들자 그 문제토의도 다음회담에 미루자고 고집하였다.

실로 상식밖의 일이였다.

북남기자들속에서는 남측의 대화자세를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남측에서 온 한 외신기자는 《아무리 유일팀구성을 지연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나왔다 해도 이미 합의한 문제를 뒤집는 신의없는 행동을 해서야 되는가》고 하였다.

우리측 기자들은 《선수는 선발경기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경기는 북과 남으로 오가며 한다는것을 3차 회담에서 합의보았는데 합의본것이 없다는것은 무슨 소리인가, 회담을 하자는것인가, 말자는것인가》고 남측 기자들에게 따져물었다.

그러자 남측의 한 기자는 《합의했던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아마 다른 지령을 받은 모양이지요.》하며 자기가 보기에도 어처구니없다고 하였다.

남측의 행동은 정말 비렬하고 파렴치한것이였다. 그들에게 유일팀에 관심이 없고 그로하여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막으려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하였다.

바로 이런 속심을 가지고 회담에 나왔기에 남측은 유일팀공동상설기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남측의 의견을 참작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느니 뭐니하며 합의하는것을 거절하고 덮어놓고 토의를 뒤로 미루자고 고집하였다.

이날 우리측은 10개 항으로된 합의서를 내놓으면서 이미 합의를 보았거나 본질적으로 의견차이가 없는 문제는 하나하나 먼저 합의, 확인하고 선포하며 다음번 회담부터는 합의보지 못한 문제만 토의하자고 제기하였다. 이것은 합의한 문제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를 명백히 하고 문제토의를 빨리 진전시키

기 위한 좋은 방도였다. 남측이 이미 합의한 문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남측은 《온 민족이 유일팀구성을 바라고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것마저 반대하였으며 상투적 수법대로 다음번 회담으로 미루자고만 하였다.

이날 회담과정을 놓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우리측이 유일팀을 어떻게 하나 탄생시키려 한다면 남측은 유일팀구성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

아세아경기대회날자가 다가오고있는 지금 문제토의를 뒤로 미루자는것은 사실상 유일팀구성을 파탄시키자는것외에 다른것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

하기에 북남기자들은 남측이 회담앞에 고의적인 장애를 조성하다가 나중에 《시간촉박》을 구실로 유일팀구성을 파탄시키려한다는것은 대체로 명백해졌다고들 하였다.

만일 남측이 지연전술에 매달려 겨레가 바라는 북남유일팀이 이루어질수없게 한다면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5. 공공연한 지연전술

(로동신문 글, 1989.11.26)

제5차 북남체육회담이 2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있었다.

이날 온 겨레가 하루빨리 북남유일팀의 탄생을 바라며 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회담은 남측이 회담시작부터 지연전술을 쓰며 기본문제토의를 회피하거나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함으로써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이날 우리측은 지금까지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견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인 선수선발문제와 유일팀공동상설기구설치문제, 선수단구성문제 등을

순차별로 토의할것을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한 우리측의 립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특히 선수선발문제와 관련하여 4차회담때 남측이 내놓은 수정안 18개 세부사항가운데서 13개의 세부사항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우리측의 제안은 사실상 남측의 제안을 거의다 받아들인것으로서 대폭적인 양보였으며 유일팀을 하루빨리 탄생시켜 겨레의 기대에 보답하려는 성의의 뚜렷한 표시였다.

그러나 남측은 애당초 문제토의를 진전시키자는 립장이 아니였다.

그들은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론의의 대상으로도 될수 없는 문제를 상정시켜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다가 선수선발문제에 들어가서는 불필요한 문제를 첨부한 《새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남측이 고의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이렇게 되자 회담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속에서는 《틀렸군, 또 지연전술이군. 남측은 애당초 유일팀을 할 잡도리가 아니야.》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옳은 말이였다.

남측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공공연히 지연전술에 매달렸다. 그것은 남측이 선수선발과 관련한 문제토의를 회피하며 저들이 내놓은 실무대표접촉제안을 토의하자고 고집해나선것만 봐도 알수 있다.

실무대표접촉으로 말하면 지난 회담들에서 우리측이 본회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본회담과 본회담사이에 실무대표접촉을 가질것을 2차에 걸쳐 제기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남측이 한사코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한것이였다.

남측이 회담의 진전을 위해 실무대표접촉문제를 새롭게 들고나온것처럼 말하는자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는것이였다.

남측이 우리가 제기할 때는 반대했던 실무대표접촉을 이제와서 들고나온 그

속심이 또한 문제였다. 그들이 과연 본회담의 성과적운영을 위해 그것을 들고 나왔겠는가. 아니였다.

남측은 실무대표접촉을 무조건 비공개로 할것을 고집함으로써 저들의 흉심을 드러냈다.

우리측은 정치문제도 아닌 순수한 체육문제를 토의하는데 감출것이 무엇이 있는가, 민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 무엇때문에 비공개로 하겠는가, 남측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가고 따져물으며 온 겨레가 다 알게 공개로 하자고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그 무슨 《효률성》이요 뭐요 하는 외마디소리만 하며 한사코 비공개로 할것을 고집하였다.

남측의 지금까지의 회담자세로 보아 문을 열어놓고 지연전술을 쓰면 낯이 깎이겠으니까 문을 닫아걸고 마음껏 지연전술을 쓰려고 비공개실무접촉을 주장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그러나 본회담의 효과적운영을 위해 실무대표접촉자체는 필요한만큼 우리측이 동의를 줌으로써 실무접촉을 12월 1일에 가지기로 되였다.

문제토의를 지연시키려는 남측의 검은 속심은 다음번 회담날자를 정하기를 회피한데서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이날 우리측은 실무대표접촉을 12월 1일에 가지기로 합의한것만큼 본회담을 12월 5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본회담을 하루빨리 진전시켜 문제토의를 마무리지으려는 성실한 립장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런데 남측은 다음 회담날자는 실무대표접촉에서 정하자고 생억지를 썼다.

우리측이 회담에서 강조한바와같이 실무대표접촉은 본회담을 성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본회담날자는 본회담에서 정해야 하며 그래야 격에도 맞는것이다. 본회담날자를 실무대표접촉에서 정하자는것은 본회담의 격을 낮추고 그것을 사실상 실무대표접촉에서 해소시키자는것으로써 본회담자체를 부정하

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에 말문이 막힌 남측은 본회담날자를 전화로 련락하여 정하자느니 뭐니 하다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무대표접촉도 철회하겠다는 등 극히 가소롭고 오만무례한 망발까지 서슴없이 줴쳤다.

너무도 황당무계한 남측의 언행에 내외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한 외신기자는 《남측이 이제는 대화일방으로서의 도덕마저 내던지고 내놓고 지연전술을 쓰는군》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남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앞에 굴복하여 다음 회담날자를 정하는데 동의해나오고도 우리측이 부른 12월 5일이 아니라 12월 22일에 다음번 회담을 하자고 고집해나섰다. 유일팀구성이 바쁜것이지만 쌍방회담인것만큼 어느 일방의 성의만 가지고는 문제토의가 촉진될수 없다.

다음번회담은 12월 22일에 하기로 되였다.

회담전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날 남측은 유일팀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저들의 속심을 명백히 드러냈다.

북남유일팀을 구성하는것은 온 겨레의 념원이다. 만약 남측이 회담을 지연시키다가 유일팀구성을 파탄시키는데로 나간다면 내외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측은 이제라도 온당치 못한 대화자세를 버리고 유일팀구성에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다.

6. 유일팀 구성에 제동을 걸지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글, 1989.12.24)

제6차 북남체육회담이 2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있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상정되였던 모든 문제 토의에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

놓게되였다. 9개월동안을 끌어온 유일팀구성을 위한 문제토의가 이해가 저물어 가는 이날 회담에와서나마 합의를 보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측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날의 회담과정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날 회담은 지난 5차례의 회담과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이 거듭 양보와 아량을 표시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토의합의되고 다만 선수단 단장문제, 공동사무국 장소문제, 개인경기 세부종목별 선수선발문제, 유일팀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문제만을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렸다.

남측은 지금까지 저들의 부당한 주장만을 계속 고집해왔고 또 합의를 못본 난문제를 연구해오겠다고 했던것만큼 응당 회담에서 미해결문제들에 대한 절충안이라도 내놓아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남측은 아무런 수정제안도 내놓은것이 없고 티끌만한 양보도 한것이 없다.

남측은 문제토의에서 합의를 이룩하려는 잡도리가 아니였다. 남측은 유일팀명칭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기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시간을 끌려고 하였다.

우리측은 그것이 제 11차 아세아경기대회 주최국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문제토의를 진전시키려는 념원에서 그에 대한 우리측의 안을 제기했고 남측이 연구를 하겠다고는 하면서도 동의해나서지 않자 남측 제안에 동의를 주는 대폭적인 양보를 하였다.

단장문제토의때도 우리측은 남측이 계속 저들의 부당한 제안을 고집하는 조건에서 합리적인 수정안을 거듭 제기하였다. 거기에는 공동단장제로 하되 대표권은 륜번제로 행사할데 대한 제안, 선발된 선수가 많은측에서 단장을, 적은측에서 명예단장을 내며 호상 협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며 대표권은 단장이 행사할데 대한 제안, 국제올림픽경기력사에 민족의 이름을 떨친 사람을 단장으로

낼데 대한 제안 등 합리적인 제안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남측은 《고려》요, 《연구》요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음번 회담에 가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회담을 올해안에 결속하고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족점은 있지만 선발선수가 많은측이 단장을 내고 적은측이 부단장을 내자는 남측의 제안에 동의를 줌으로써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측은 유일팀공동사무국 설치장소문제와 유일팀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과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문제 토의에서도 남측의 제안들을 몽땅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으로 이것은 유일팀을 탄생시켜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측의 애국애족적인 립장의 과시였다. 우리측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유일팀구성을 위한 실무절차문제가 모두 합의되자 회담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속에서는 격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는 평양구경을 하게됐다》, 《확실히 북측이 성의가있다》남측기자들이 기쁨을 금치 못하며 하는 말이였다.

그런가하면 한 외신기자는 《이번에 북에서 장훈을 불렀습니다. 남측이 더는 빠질 구멍이 없게 통장훈을 부른 셈입니다》라고 엄지손가락을 펴흔들며 말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남측이 취한 태도는 말그대로 무례하고 무지막지한것이였으며 상식밖의 것이였다.

그것도 남측이 아무런 건설적인 안도 준비함이 없이 회담에림하였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남측의 무례한 행동은 문제토의 과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유일팀단장문제가 합의되자 거듭 수정안을 내놓다가 갑자기 합의를 준

우리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측이 남측이 내놓은 유일팀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때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받아들인다고 트집을 걸었다.

어떻게 하나 합의를 보지 않을것을 계획하고 회담에 나왔는데 우리의 양보와 아량에 의해 합의를 보는것이 불가피하게 되자 그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가 분명하였다.

남측의 이러한 속심은 이날 상정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고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합의를 이룩했다고는 말할수 없다고 생억지를 쓴데서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들은 유일팀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들이 남측이 제기한 그대로 합의되였는데 용어의 정의 등 더 깊이 토의할 문제가 있다고 들고나왔는가 하면 합의서 서문과 합의리행보장을 위한 장치문제가 토의안됐다고 하였으며 나중에는 선수선발에서 균형을 보장하는 문제 등 앞으로 조직될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할 문제까지 토론하자고 들고나왔다. 어떻게 하나 유일팀구성문제토의를 지연시키면서 장애를 조성하려 한다는것은 더없이 명백하였다.

남측의 이러한 태도는 회담장을 지켜보던 내외기자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우리 기자들은 《도데체 남측에서 유일팀을 하자는것인가, 어쩌면 남측 사람들이 민중의 중대사를 놓고 저렇게까지 무례한 행동을 할수 있는가》라고 남측 기자들에게 들이댔다.

그러자 남측기자들은 《우리가 보기도 거북합니다. 북측대표들에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팀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그것을 따지게 해주시오》라고 말하였다.

지어 남측의 한 기자는 저 사람들은 《순수한 체육인이 아니라 분렬을 추구하는 당국의 나팔수가 분명하다. 유일팀구성을 손꼽아기다리는 민족의 념원을

아랑곳 하지 않는 저런자들에게는 응당 모두매를 안겨야 한다》고 격분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회담에서는 쌍방 실무대표접촉에서 이미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문제들에 대한 합의서와 세칙을 문안정리한 다음 1990년 1월 18일에 7차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남측이 뭐라고 하든 북남유일팀구성을 위해 상정시켰던 모든 문제에서 합의서가 이룩된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195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60년대와 70년대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국제경기에 나가려고 여러차례 접촉과 대화를 하였으나 성공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제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출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는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난번 회담들에서와 이날 회담에서 취한 남측의 태도는 남측이 실무대표접촉과 다음번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일팀구성에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할수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날 남측의 어떤 대표는 완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문구 하나를 토의하는데 1년이상이 걸릴 문제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연히 나온 말이라고 볼수 없다.

만약 남측이 분렬주의적인 남조선당국의 조종밑에 부당한 주장을 들고 나와 시간을 끌다가 유일팀구성을 끝끝내 파탄시키는데로 나간다면 온 겨레가 그들을 용서치 않을것이다.

제2차 고방단및예술단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1989. 9 ~1989. 12)

1. 남측은 비뚤어진 대화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

(로동신문 론평, 1989.9.28)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9월 27일 판문점에서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와 북남적십자 본회담재개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북남적십자단체 실무대표접촉이 있었다.

오래동안 중단되였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실무대표접촉이 마련되여 또다시 취재길에 오른 우리 기자들의 심중에는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 일정에 올라있는 인도적 문제들이 신속히 토의해결되여 흩어진 가족, 친척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남측이 접촉에 응해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응당한것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동포애적 구호조치가 실현된것을 계기로 12년만에 재개되였던 북남적십자 본회담이 중단된 이후 우리는 흩어진 겨레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를 좋은 분위기속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우리측은 지난 5월 이후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몇가지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적십자단체 실무대표접촉을 여러차례 남측에 제기하였었다. 이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인도적 문제해결의 길을 열고 북과 남사이의 경색된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통일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념원에서 나온것이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제의를 받고도 몇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오다가 마지 못해 응해나섰으나 그마저도 지난 7월에 일방적으로 무기연기시키는 반대화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의 대화가 마치도 저들의 발기와 무슨 촉구에 의해 마련되게 된듯이 외곡선전하면서 지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추궁하겠다는 등 철면피한 망발까지 하는 심히 방정치 못한 행동을 하였다.

사실을 공공연히 외곡한 남조선당국자들의 뻔뻔스러운 행위도 문제이지만 최근에 발로된 남측 적십자사의 비인도주의적 행위에도 문제가 있다.

림수경학생에 대한 남측 적십자사의 처사만 봐도 그렇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전대협〉대표 림수경학생은 오직 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위해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돌아갈 때에는 제3국이 아니라 제 나라, 제 땅인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그의 결심이 통일의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응당한것이며 더는 만류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남조선당국과 적십자사에 그의 판문점 통과귀환문제를 토의해결할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적십자사는 매번 외면하였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돌아간 나어린 림수경학생을 〈안전기획부〉의 밀실에 잡아가두고 잠도 안재우며 조사심문을 벌리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박해를 가하던끝에 극형을 들씌우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남측 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인 말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남조선적십자사가 이번 접촉에 응해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문제해결에 성실한 자세로 나오겠는가 하고 의심을 가지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였다.

실무대표접촉과정은 우리 기자들의 이러한 의혹이 공연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었다.

이날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기본발언에서 실무대표접촉에서 토의 해결해야할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실무대표접촉에서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와 함께 중단된 북남적십자 본회담재개문제를 토의해결할것을 제의하고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구성과 방문지, 방문시기, 적십자본회담의 장소와 의정, 대표단구성, 시일 등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것은 적십자본회담이 열리기전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흩어진 겨레들에게 상봉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여 완화와 통일에 기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것으로서 어느 모로보나 정당한것이였다.

그러나 남측대표단 수석대표는 실무대표접촉에서 토의해결할 자기들의 립장을 밝힌 제안도 내놓기전에 처음부터 적십자본회담중단문제를 들고나와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등 실무접촉과 인연이 없는 문제를 들고나와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되자 기자들속에서는 〈코집이 틀렸어〉, 〈버릇이 체질화됐군〉하고 남측의 부당한 태도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였다. 남측의 속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드러났다.

이날 우리측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문익환목사일행과 림수경학생일행의 애국적 소행에 대해 범죄시하고 박해하던끝에 그들에게 악형을 들씌우려고 책동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남측 적십자사가 그것을 외면하고있는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마땅히 그들이 처하고있는 신변위험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응당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것은 민족적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응당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응당한 책임을 느낄 대신 〈중립원칙〉이요, 〈내부문제〉요, 〈정치문제화〉요 하고 오히려 우리측을 걸고들며 문제토의를 지연시켰다. 그들은 애당초 문제를 토의해결할 자세가 아니였다.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대화자세는 그들이 내놓은 제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남측은 우리 제안과는 상반되게 무턱대고 본회담을 먼저 열고 거기에서 실무접촉에서 해결할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를 토의확인하자고 고집해나섰다.

원래 이날의 실무대표접촉으로 말하면 그자체가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의한것으로서 남측이 본회담재개문제도 토론하자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포용하여 그것도 동시에 토의해결하자고 한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어놓자는것은 실무대표접촉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어긋나는 심히 온당치 못한 행동이였다.

남측의 립장은 입으로는 통일 이요, 인도주의문제해결 이요 하면서도 실제로는 분렬을 추구하고 겨레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남조선당국의 립장을 대변하는것이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도대체 적십자단체다운 자세란 찾아볼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신통히도 당국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외웠다.

결국 이날 실무대표접촉에서는 남측의 고의적이고 온당치 못한 대화자세로 하여 상정된 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 기자들은 이날 남측의 립장을 통해 그들이 처음부터 실무대표접촉을 비공개로 하자고 집요하게 제기해나선 본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었다.

우리측 단장은 〈인도주의문제에 무슨 감출것이 있는가〉고 하면서 기자들이 다 알고 온 겨레가 다 알게 공개로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선례〉요, 〈효율적〉이요 하면서 다음번 접촉부터는 비공개로 하자고 고집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애당초 이번 접촉에서부터 문제토의를 지연시킬것을 작정하고

나왔음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우리측은 남측이 굳이 고집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였다.

이날의 실무대표접촉과정을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였다면 남측은 어떻게 하나 복잡성을 조성하여 문제토의를 지연시키려는 자세였다.

남측은 당국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그릇된 자세에서 벗어나 적십자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다.

2. 남측은 지연전술을 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론평, 1989.11.13)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의 제5차 실무대표접촉이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되게 된다.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교환문제와 북남적십자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고있는 접촉에 대한 겨레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접촉이 지난 9월 27일에 시작된이래 4차례나 거듭되였지만 북남겨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측은 접촉을 하루빨리 결속짓고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적십자본회담재개를 실현하여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려는 념원에서 접촉시작 첫날부터 문제토의에서 성의를 다하며 거듭 아량을 표시하였다. 접촉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공전을 계속하게 된 모든 책임은 남측의 비인도적 립장과 불성실한 대화자세때문이다.

남측은 《인도주의》에 대해 말은 많이 하였지만 애당초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며 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립장에 서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분위기를 파괴하

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도록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아 결국 북남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을 중단상태에 몰아넣었으며 그후 우리측의 거듭되는 실무대표접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지 못해 접촉에 나온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측은 접촉에 나와서는 부당한 문제를 고집하며 지연전술을 쓰는 방법으로 문제토의를 각방으로 방해하여 왔다.

그들은 적십자본회담이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긴장격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였고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문익환목사, 림수경학생 등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탄압책동이 부당하다는데 대해 내외가 공인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마당에서 공공연히 통치배들의 편을 들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히려 우리측을 걸고들며 접촉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 이것은 적십자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 하기엔 너무나 상식밖의것이였다.

남측은 또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를 토의해결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가 계기로 되여 마련된 접촉에서 본회담재개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고집하고 적십자본회담이 성사되면 의례히 해결될수 있는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문제를 상징적으로 하는 지금의 고향방문단교환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등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더우기 남측의 부당한 태도는 예술단교환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남측은 문제의 중요성으로 보아 응당 동등한 지위에 놓아야 할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문제중 예술단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하면서 인원수를 각각 50명, 30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게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공연실황중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해나섰다. 남측의 태도는 지난 시기의 선례로 보나, 교환예술공연이 북과 남의 실상을 알게 하고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그 의의로 보나 매우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민족 단합과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

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행동이다.

남측은 처음부터 〈효률적〉이요 뭐요 하며 접촉을 비공개로 할것을 고집하였는데 그 목적이 언론의 눈을 피하여 이렇듯 문제토의를 지연시키려는데 있었다는것은 명백하다.

겨레가 근 반세기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때 지연전술로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남측의 행동은 적십자인도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온 민족에 대한 배신이다.

접촉에서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날자, 적십자본회담날자가 합의되고 일부 문제에서 의견접근을 볼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오늘에 와서 어용언론을 동원하여 문제토의가 지연되는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는 비렬한 행동까지 하고있다.

남측은 합의된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날자, 적십자본회담날자가 다가오는 만큼 이제라도 적십자인도주의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실무대표접촉장소를 정치적 리용물로 만들고 인도주의사업에 방해를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진지한 립장과 성의에 호응하여 문제토의에서 성근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제5차접촉에서 남측이 취하는 태도를 지켜볼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1989.12.7)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 실무대표들사이에 합의한 제2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

향방문단 교환날자가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북과 남의 온 겨레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상봉의 기쁨을 나눌 감격적인 순간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날을 손꼽아기다려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 2 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은 예정대로 실현할수 없게 되였으며 상봉의 그날을 고대하던 겨레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가져다주게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제 2 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는 원래 8. 15해방 44돐을 계기로 북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흩어진 겨레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려는 인도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우리측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7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적십자실무대표접촉에서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어떻게 하나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북남쌍방은 방문단의 총규모를 각기 571명씩 동수로 하고 그안에서 우리측은 예술단 200명, 고향방문단 300명으로 하며 남측은 예술단 150명, 고향방문단 350명으로 하는데 합의하게 되였으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상정된 모든 실무절차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결속하고 예정대로 12월 8일에는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며 12월 15일에는 적십자본회담을 재개할수 있는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다.

그러나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날자를 10여일 앞두고 진행된 제 7 차 접촉때에 와서 남측이 문제로도 될수 없는 우리측의 예술공연내용을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무접촉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남조선적십자사측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가극 〈꽃파는 처녀〉로 말하면 과거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우리 나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으로서 여기에는 하등의 문제로도 될것이 없다.

더우기 북남적십자실무대표접촉에서 합의한 예술공연원칙에 비추어보아도 가극 〈꽃파는 처녀〉의 내용은 예술공연내용을 민족적인것으로 할데 대한 원칙에 맞을뿐아니라 건전한 내용으로 할데 대한 원칙에도 맞으며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을데 대한 원칙에도 부합되는것으로서 구태여 론의할 필요조차 없는것이다.

또한 가극 〈꽃파는 처녀〉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서 지난 시기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일본, 프랑스, 이딸리아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 수많이 공연되여 절찬을 받은바 있는 우리 민족의 가장 우수한 예술작품중의 하나이다.

가극이 창작된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1,000여회의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라와 민족, 사상과 리념, 제도와 체제, 계급, 계층을 가림없이 수백만 사람들이 가극을 관람하면서 한결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환영하여마지 않은 이 가극을 유독 같은 민족내부에서 남조선적십자사측만이 부정적으로 대하며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가극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 가극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립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우리는 우리측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문제로 하여 예정된 날자에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제2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적십자본회담을 재개하는 사업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립장으로부터 제8차 실무대표접촉을 새해 1월 22일에 가질것을 남조선적십자사측에 제의한바 있다.

문제는 남조선적십자사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우리는 남조선적십자사측이 페쇄적인 립장에서 벗어나 쌍방이 합의한 예술공연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의 가극 〈꽃파는 처녀〉를 받아들이고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며 적십자본회담을 재개하는 길로 성실하게 나올것을 촉구한다.